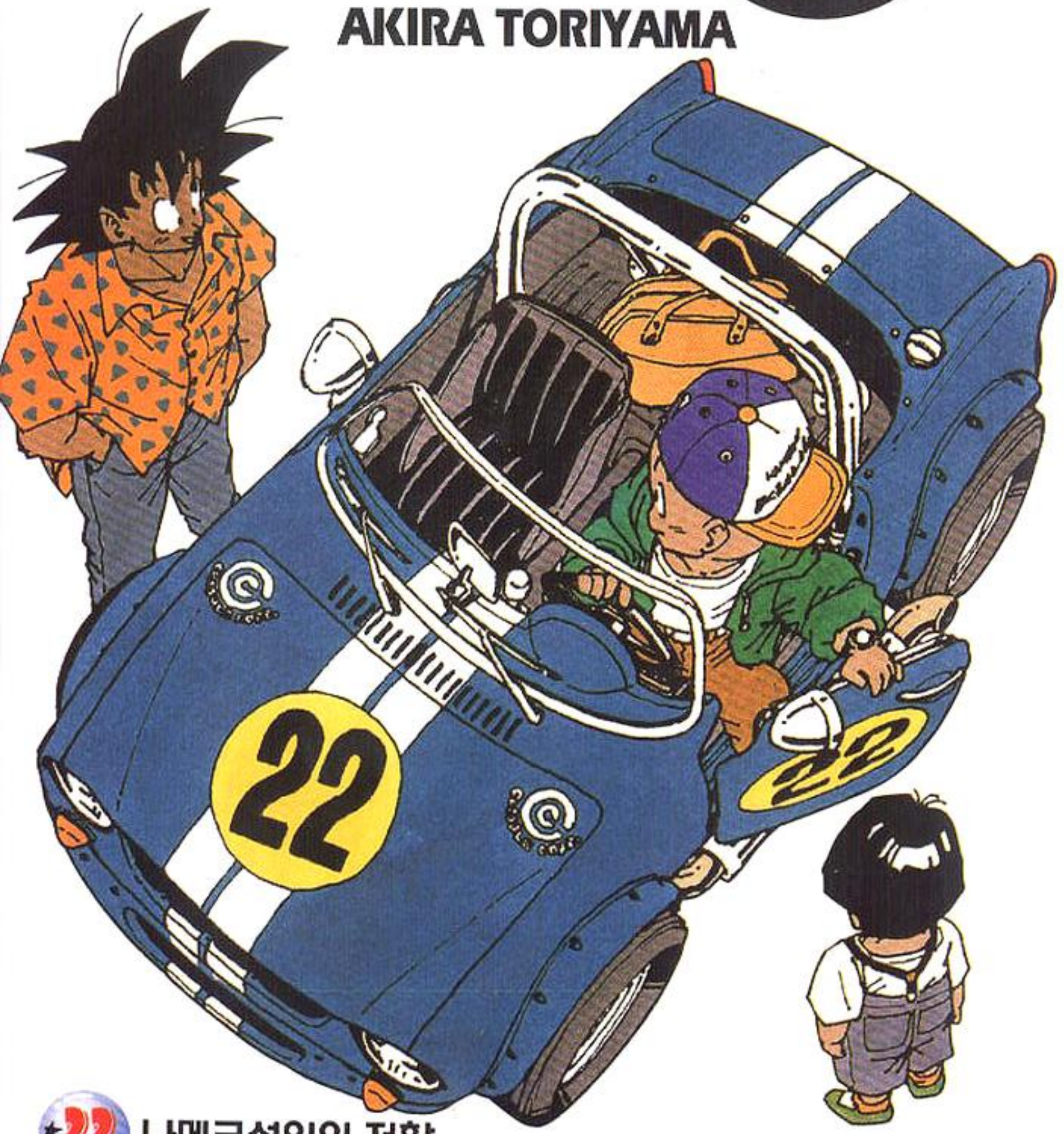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22 나메크성인의 저항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충치 다음에는, 왼쪽 엉덩이에 생겼던 3개의 작은 지방 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부어서 아프기 시작했다. 앉았을 때 가장 무겁게 체중이 실리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찢는 치료를 받았지만, 마취가 없는 수술이라서 죽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2주일 정도 지나서,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할 때 나머지 2개도 수술로 제거했다. 결국 나는 약 1개월 동안씩이나 오른쪽 엉덩이만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처지가. 지옥이었다….

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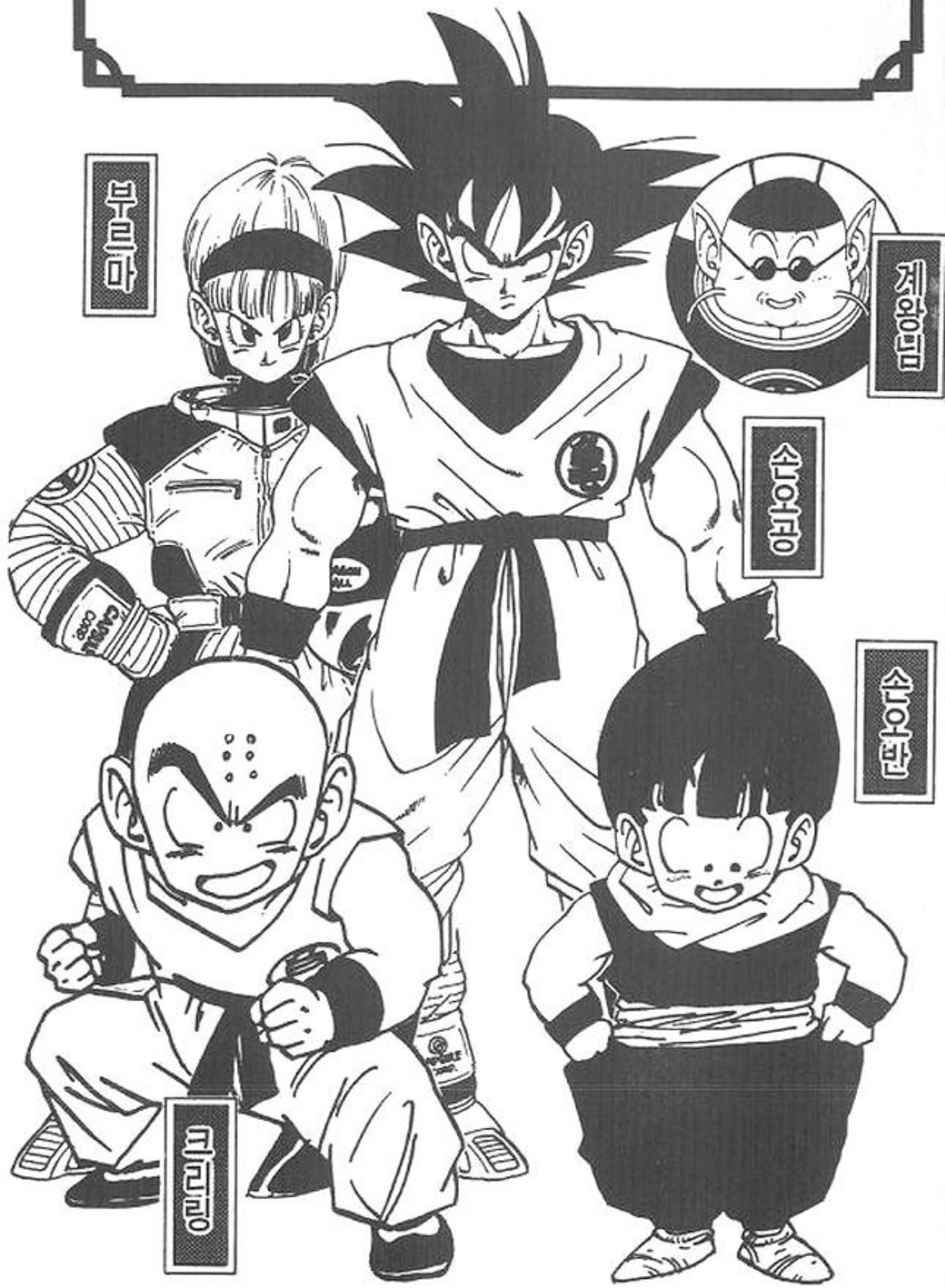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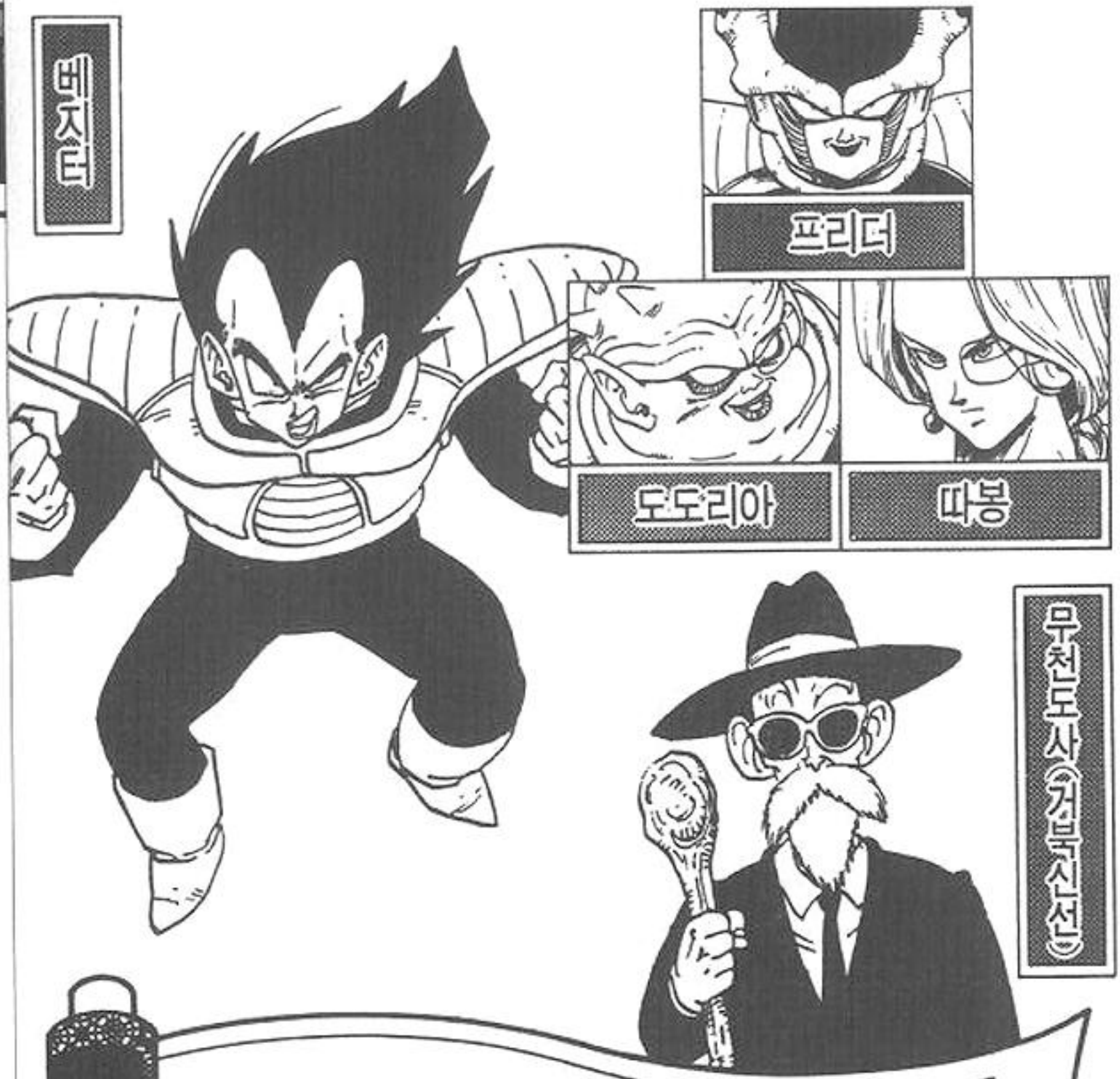
제22편 나메크성인의 저항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다음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숙적 피콜로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손오공이 우승한다. 그후 지구는 사이어인의 습격을 받지만, 오공과 친구들은 필사의 반격으로 베지터를 쫓아낸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찾아서 무대는 나메크성으로. 하지만, 벌써 새로운 적 프리더가 나타났다!!

DRAGON BALL 22

나메크성인의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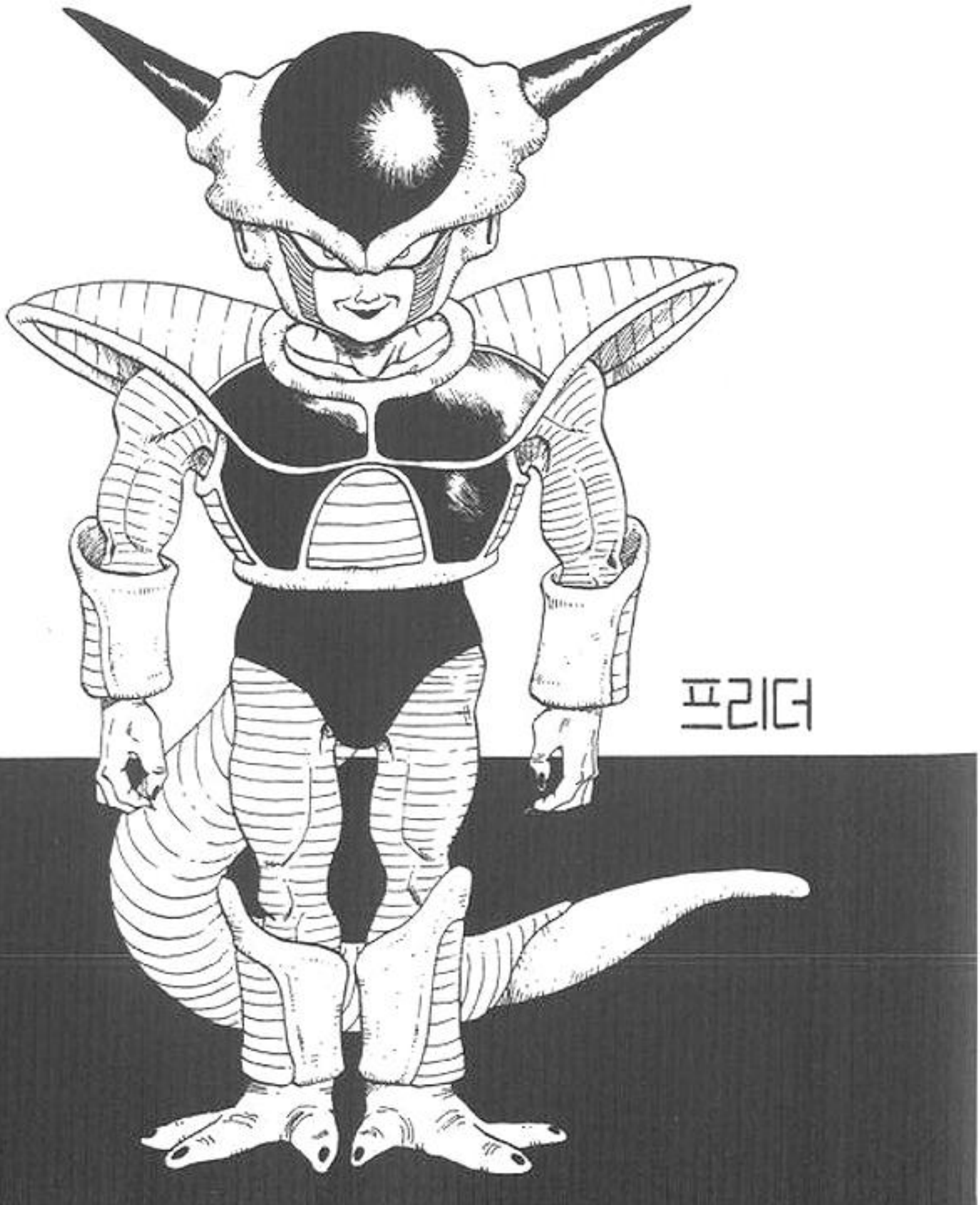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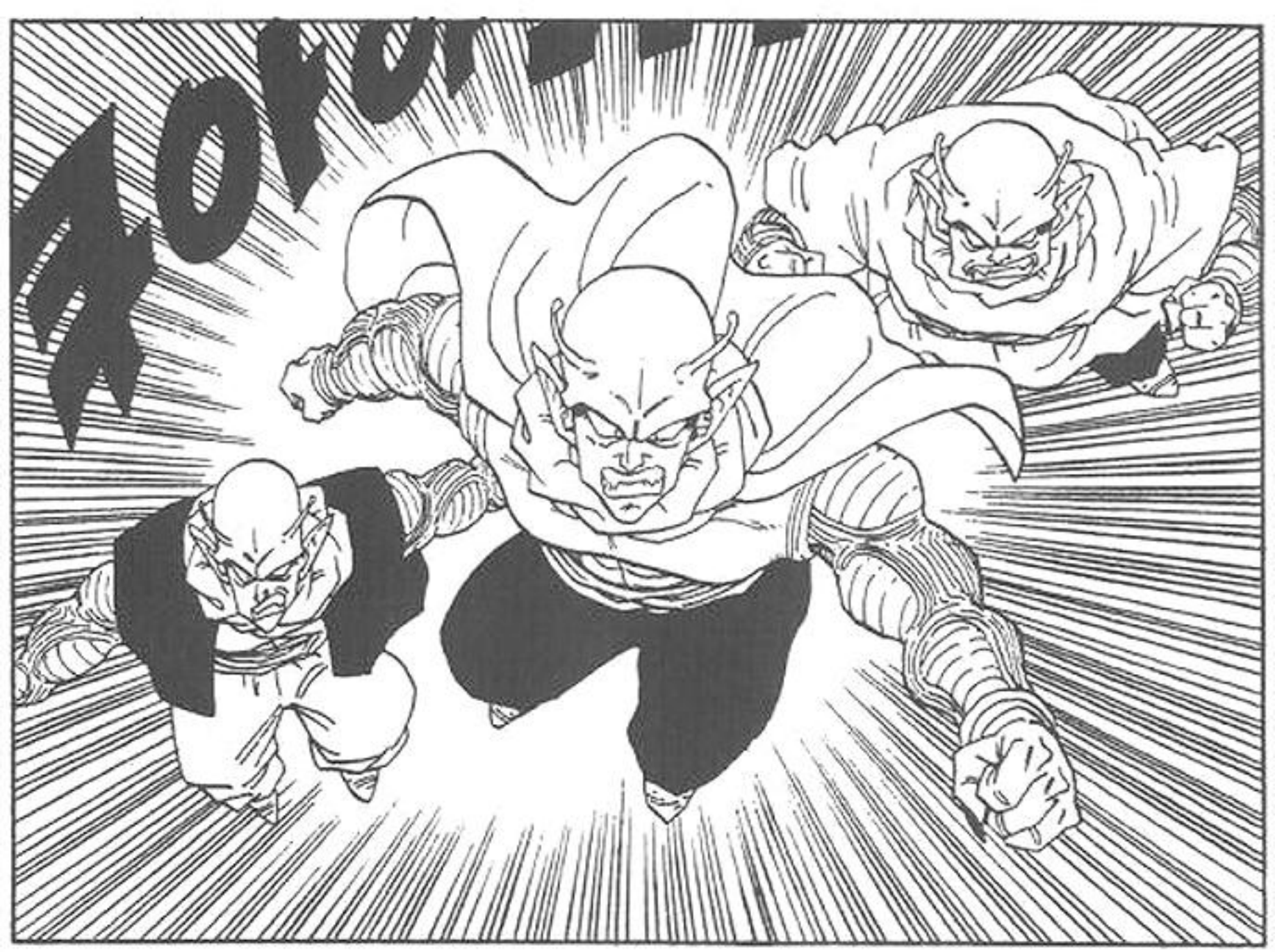
제253화 어떤 마을의 공방전 …… 7
제254화 나메크성인의 저항 …… 22
제255화 손오반의 돌변!! …… 36
제256화 죽음을 부르는 추적자!! …… 50
제257화 두려움에 떠는 도도리아 …… 64
제258화 위험이 가득!! …… 78
제259화 6개째의 드래곤 볼 …… 92
제260화 최후의 드래곤 볼 1개 …… 106
제261화 겁에 질린 계왕님 …… 120
제262화 베지터와 따봉 …… 134
제263화 따봉의 숨겨진 힘 …… 148
제264화 최고장로의 집 …… 162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I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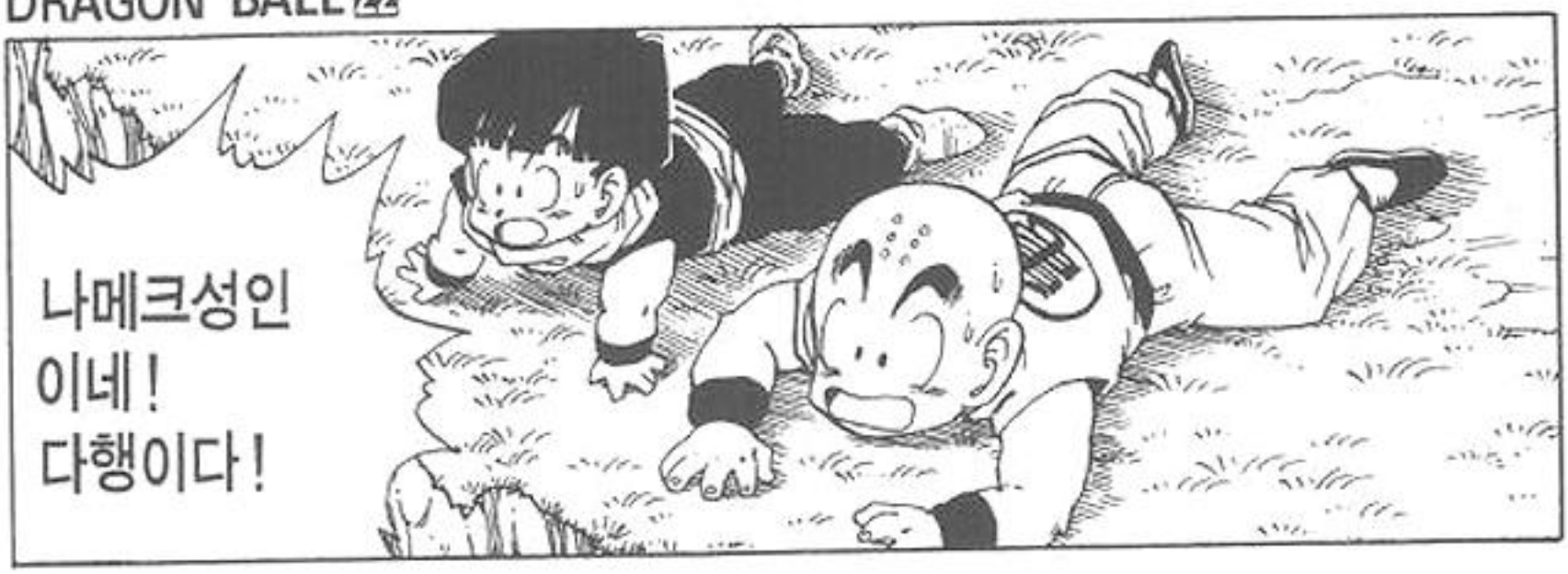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53화
어떤 마을의 공방전




아!
와주었구나!


나메크성인
이네!
다행이다!


찌어


끄-!





제길~!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았구나…!

일부러
하던 일까지
팽개치고
죽으러
오시다니.

이거 곤란한걸요.
막 드래곤 볼을
받으려던
참인데….

나메크의 평화를 짓밟다니!

이놈들, 그냥 안 둔다….

마을을 습격해 드래곤 볼을 빼앗는 놈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구나….

역시….

조심해서 싸워라! 놈들은 상당히 강해….

힘내!

빡!

저 사람 전투력이 어느 정도지요, 도도리아 씨?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호오! 싸우겠단 건가요?

!!

우리들이 나설 필요도 없겠군요.

실망하지 마세요. 3명 다 1000전후 입니다.

삐빗!

크크큭….

저 기계로 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어떻게 이 넓은 나메크성에 흩어져있는 몇 안 되는 마을을 놈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유를 알았어…!

헤헤헤! 저 사람 웃기는군. 전투력 1000정도로 우리와 싸우겠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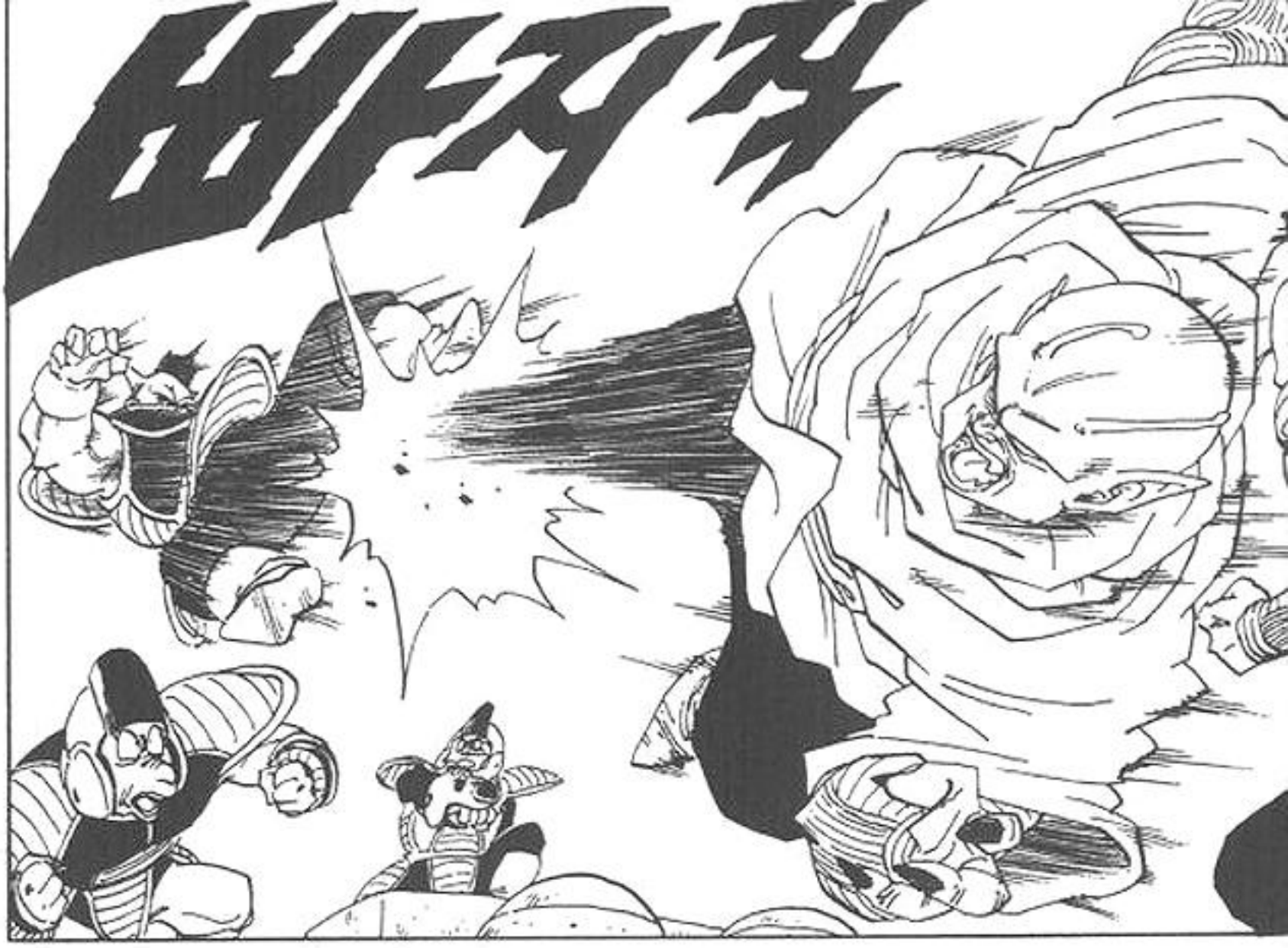
그러고 보니 사이어인들도 그것에 놀란 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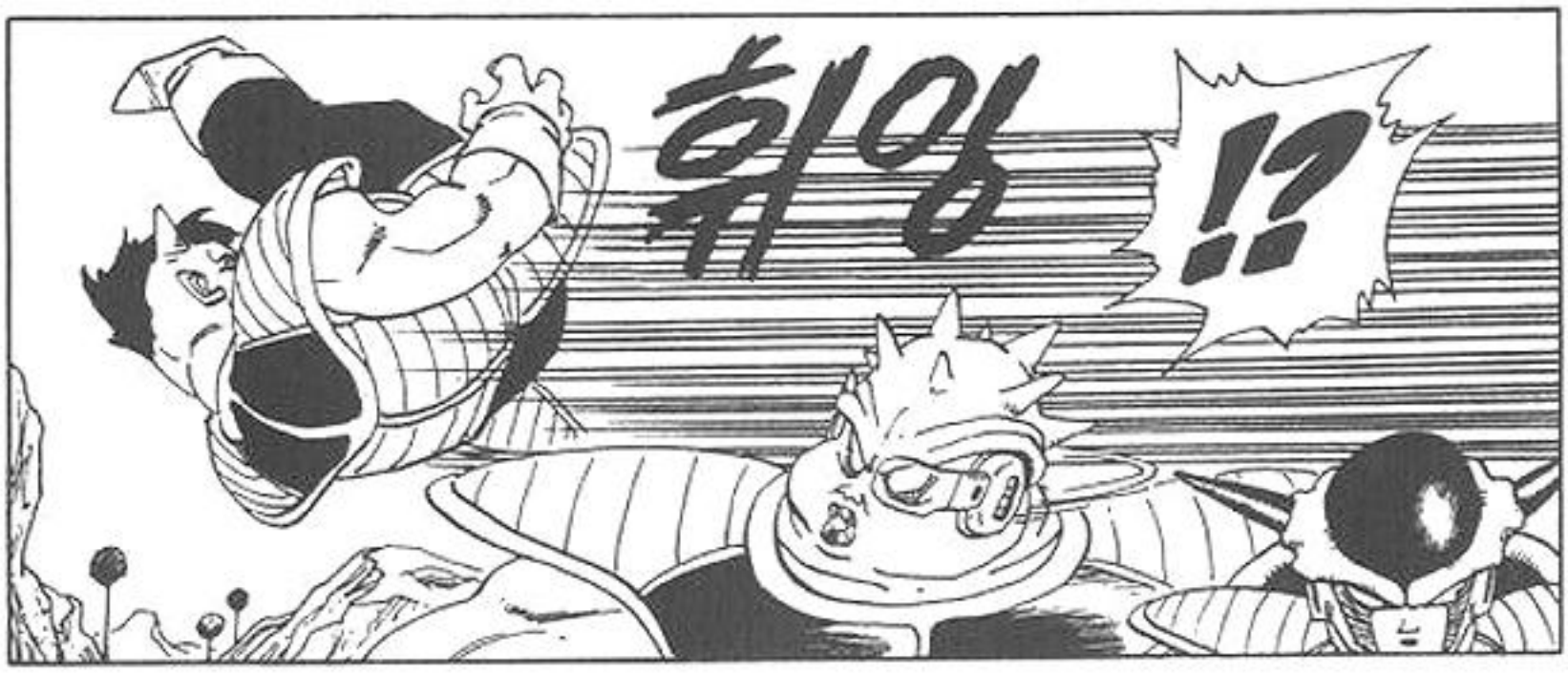
저놈들, 그런 것도 모르나…?

아니야! 저 세사람은 기를 숨기고 있을 뿐이라구….

해치워라!!

하앗!!


빠지직


휘잉 !?


엇!?


끼에
에

하앗!!

하앗!!

파앗

이, 이게!


핫!!
파앙
으…!!


쾅앙
펑 억
첨벙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전두력 1000이라고?
찰칵 찰칵…
세상에나! 세마리 다 3000이 넘네!

잘한다!
멋져!
완전히
박살내라!

.....

그거 참 드문
놈들이네요!

알았다!
나메크놈들은 전투력을
컨트롤할 줄 아는
종족이었어!

이런이런.
꽤 실력이
있네요.


좋았어…!
부서지지 않는
기계는 저 녀석
것을 포함해
3개 뿐이다…!






불쌍한
놈들…!
우리 손을
더럽히게
만들다니.


어서…!
얘들아,
나한테서
좀 떨어져
있어라…!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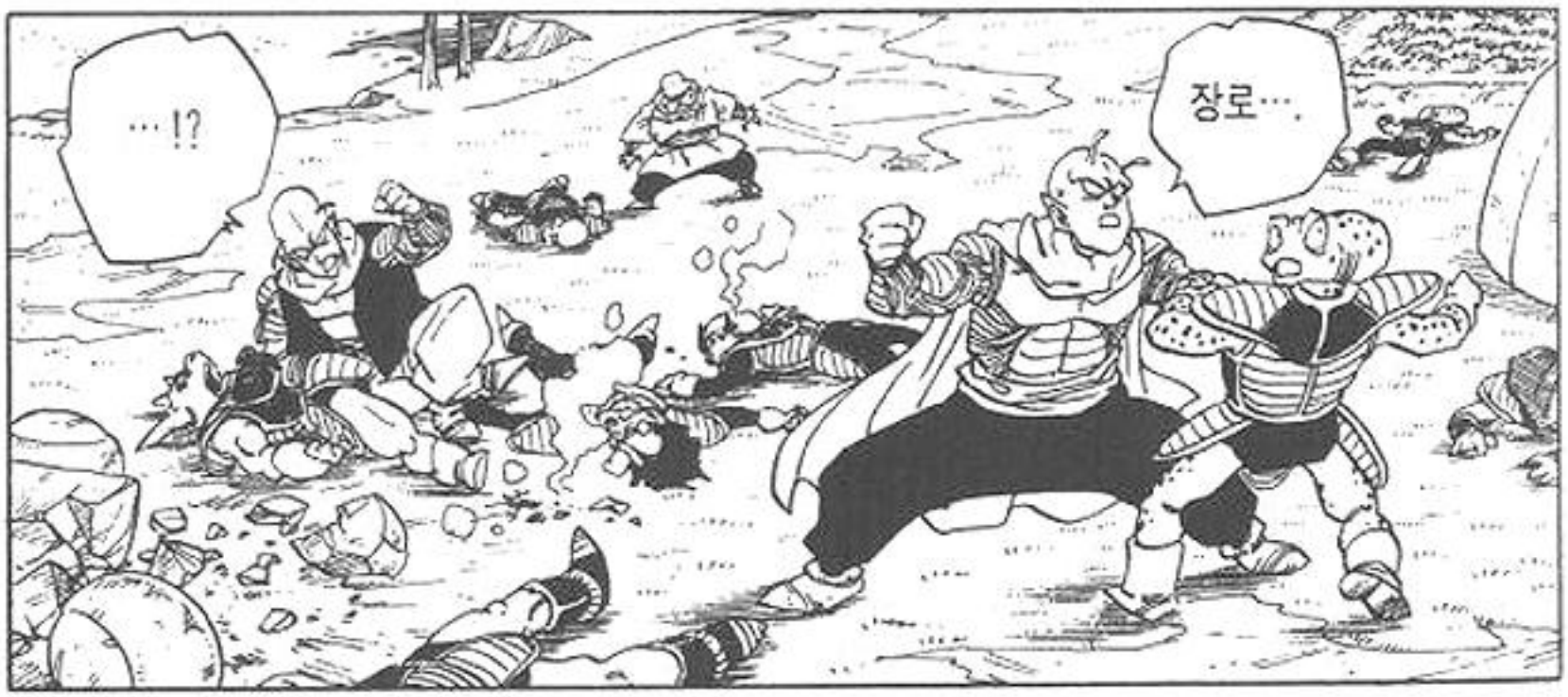

타앗!!


3마리 전부
처리해도
됩니까?
좋을
대로!


!!
퍼엉
그런 쫀쫀한 기술로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
!
이놈이~!
파앗
!!
팟
파팟











다음은, 제254화 나메크성인의 저항

!!

놈이
노린 건
스카우터
였어-!!

큰일
났다!!

그… 그
상대의 전투력이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기계말이구나…!

스카우터
-!?

저…
저놈이…!

스카우터란 기계로
나메크인들을
찾아서 강제로
뺏은 거야…!

그래서, 그걸 눈치챈
나메크인 할아버지가
스카우터를 전부
부숴버린 거라구!!

그렇구나!
역시 저놈들,
드래곤 볼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리가 없어!

한놈도
살려두지
않을
테야-!!

모두
죽여
버린다
-!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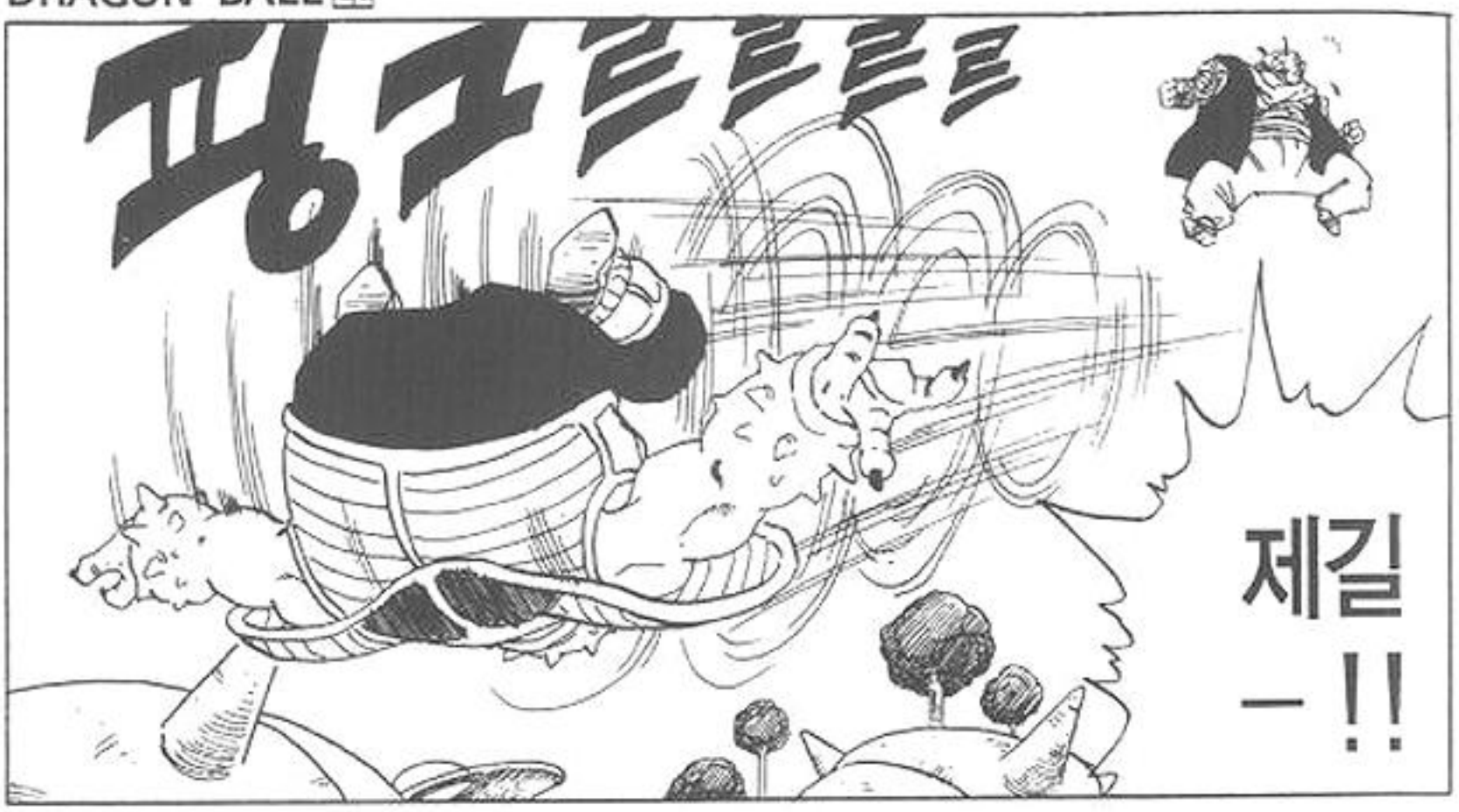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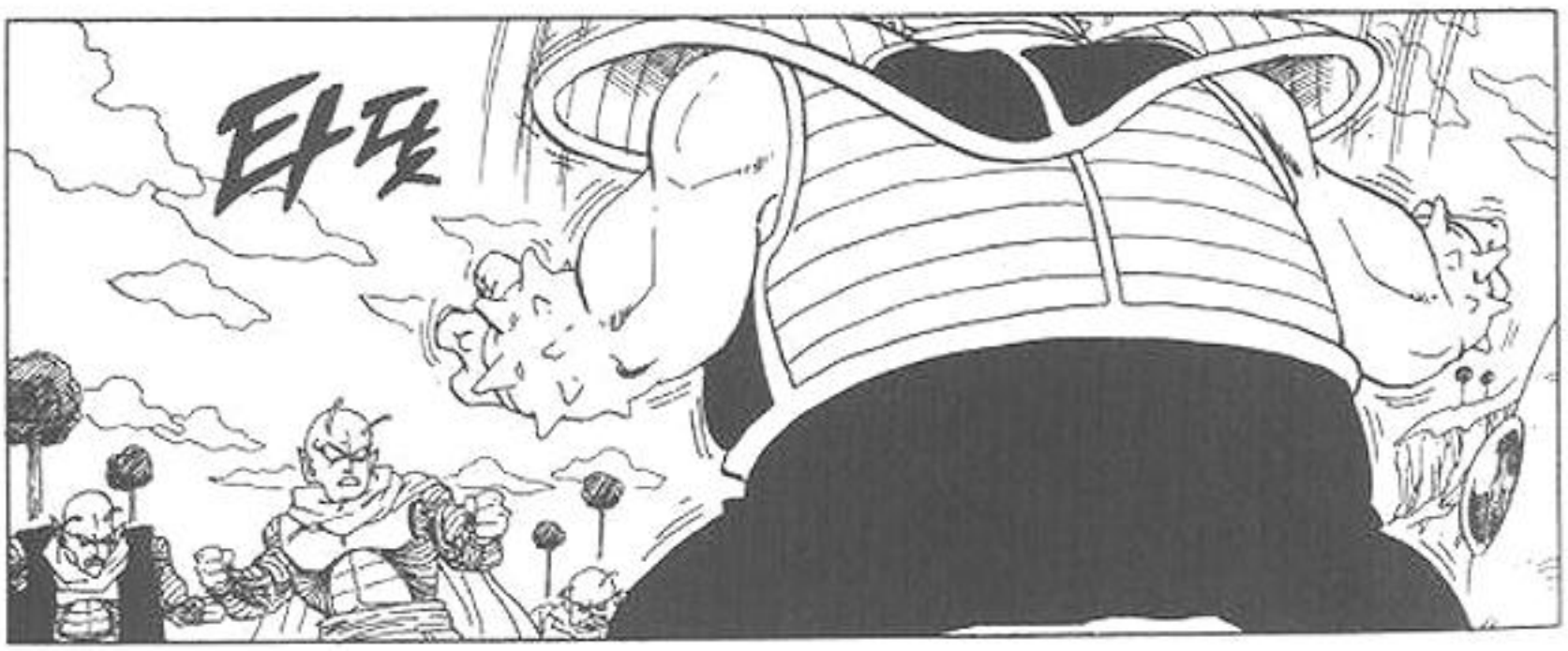
우선
젊은 놈
셋만
없애세요!

도도리아
씨,
잠깐만!

!!

TH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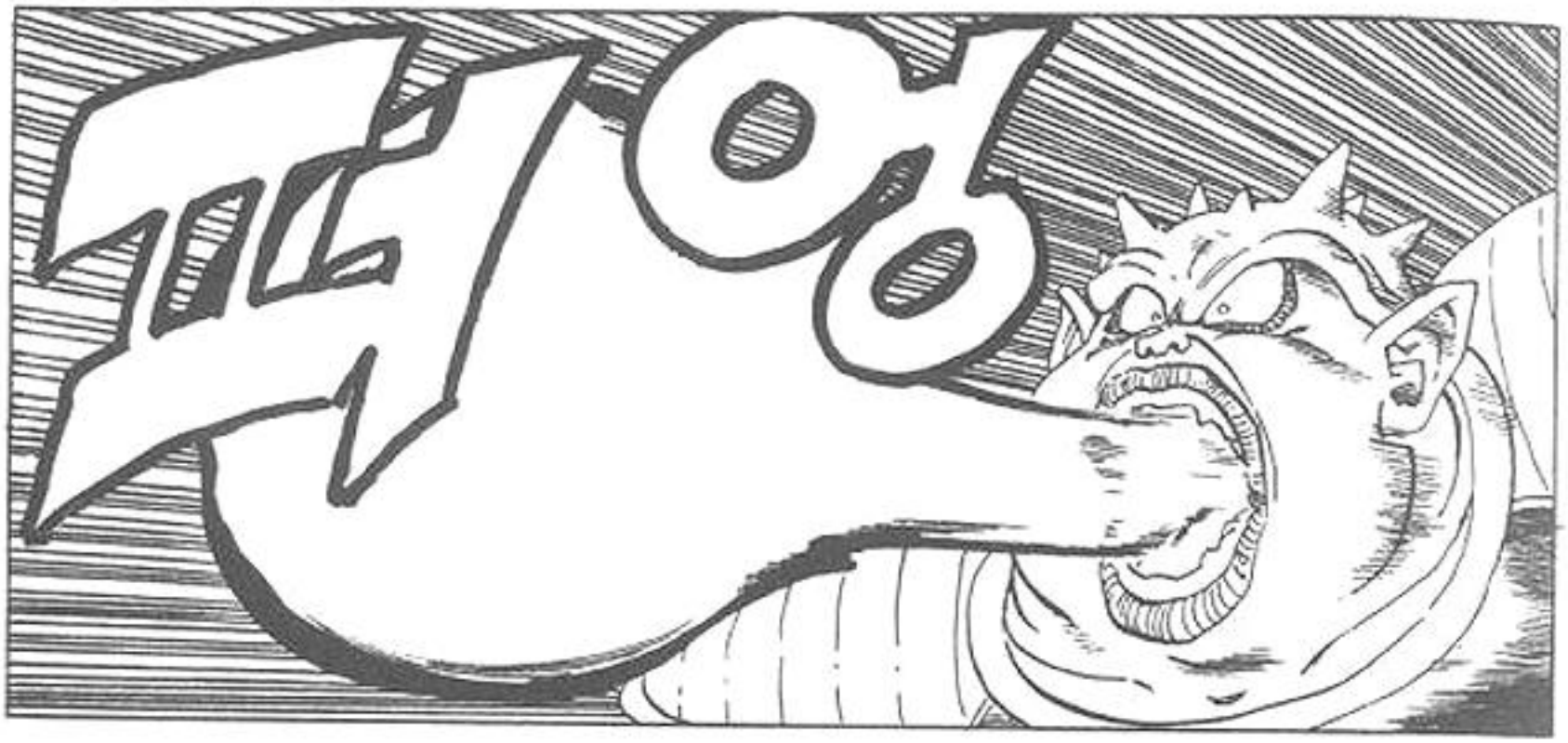

피그르르르
제길
—!!


타닷


세 놈 모두
10초 안에
처리해 주마….
웃기는 소리!
우리 세 명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후헤헤
….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재미없는 농담하고 있군!
피어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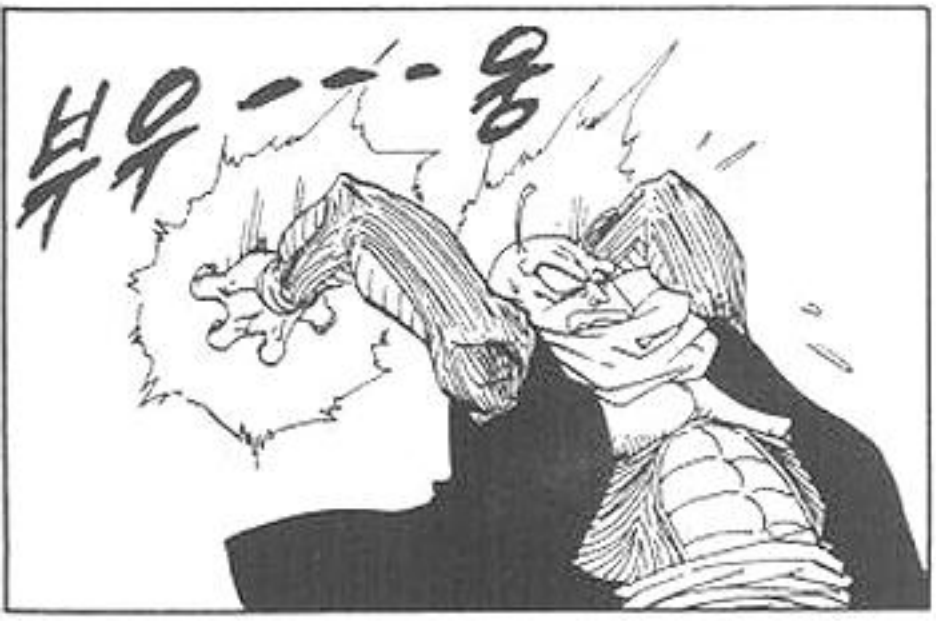

ゴク


ゴク
!!
!!


부우웅


파파




부우---웅


파앙
타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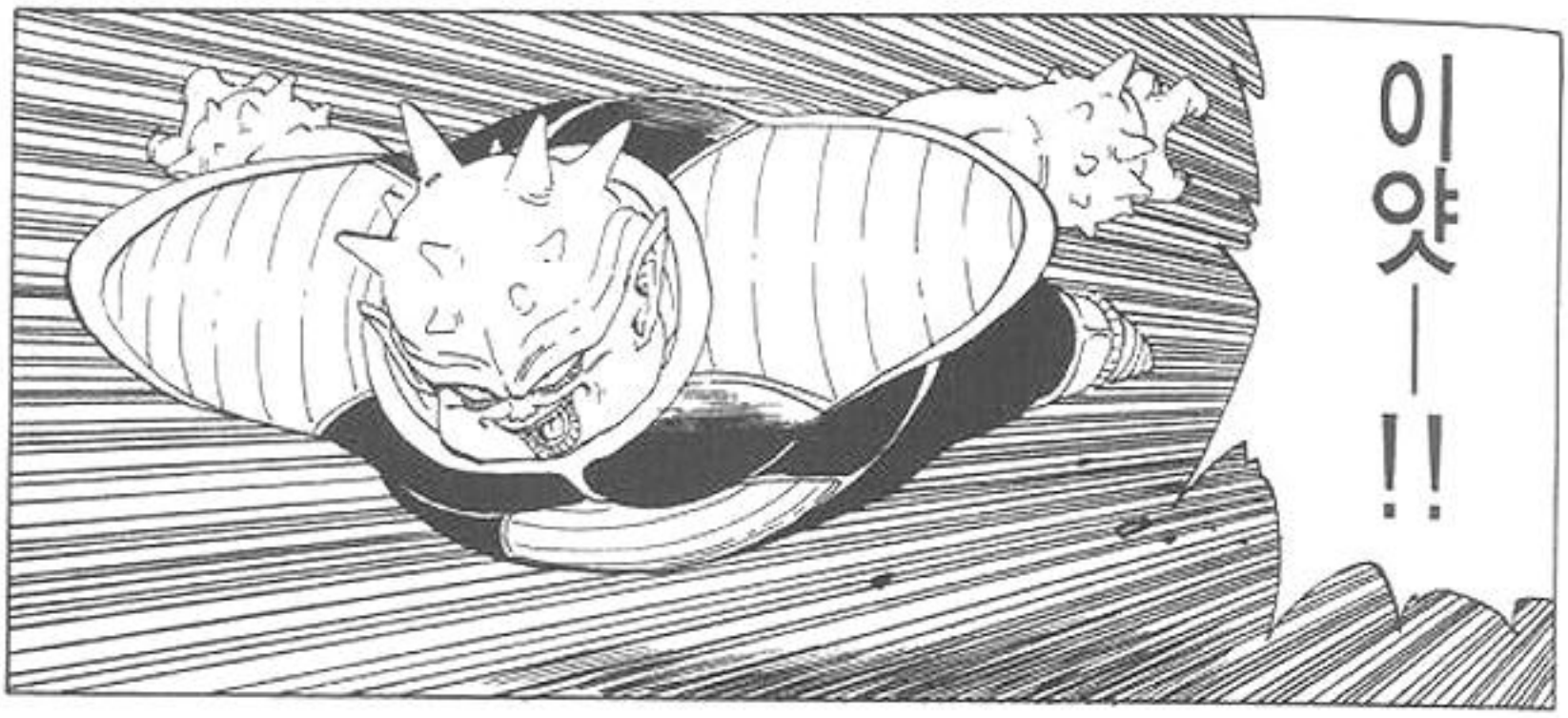

크크크…궁


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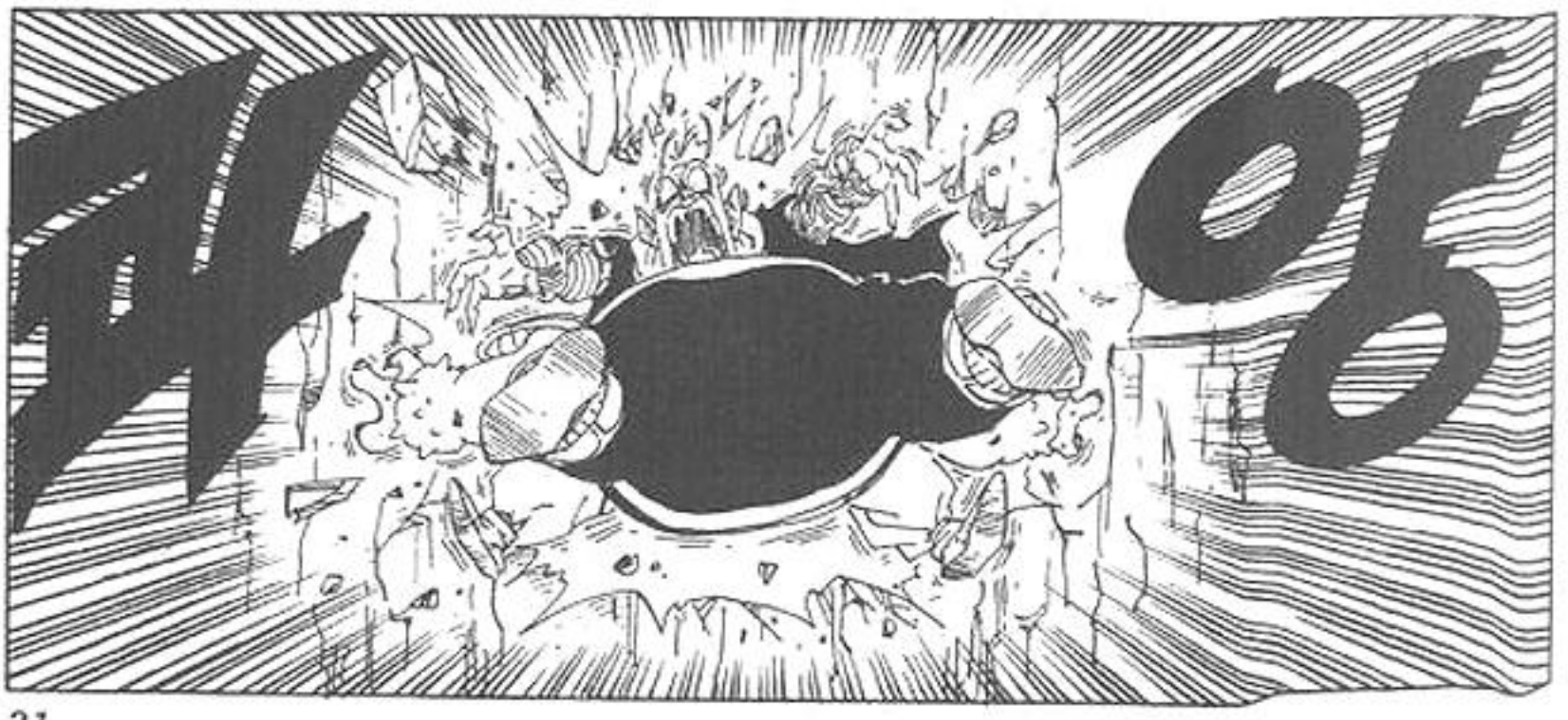

안 돼!
저 정도 공격으론
씨알도
안 먹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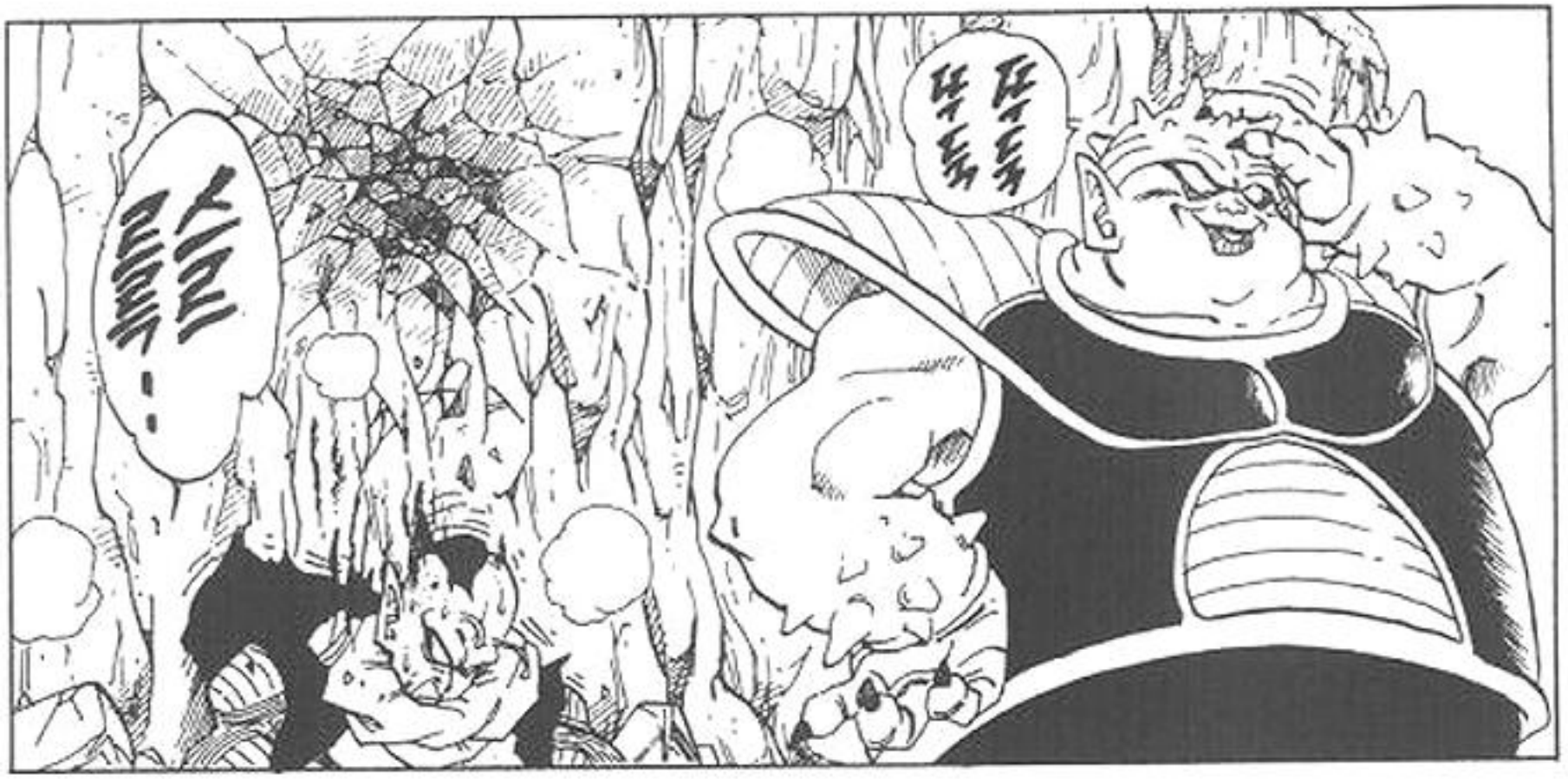

으헤헤헤….


이얏—!!


우아아
아악…!!


앗


앗


크크크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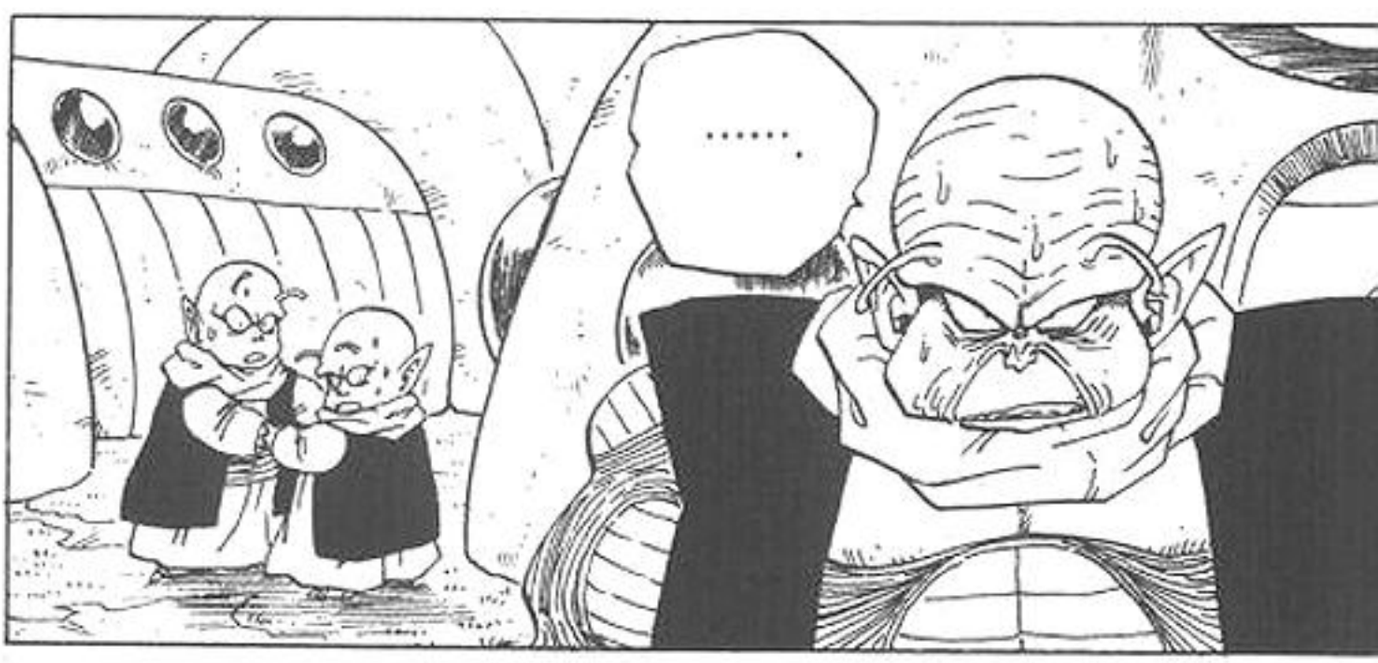

으으….
아….


탁!!
그게 더 보기 좋아요.
이제 좀 고분고분 해졌군요.


으….


하하하….
덤비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헛수고란 걸
아셨겠죠?
뭐, 어쨌든
내려오시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이걸로
잘 알았을 테죠?
더 이상 고집부리면
이번엔 그 애들이
죽게 돼요.
당신은
스카
망가뜨
사과하는 의
대신 드래곤
주지 않겠


……


씨익


하…, 할
그렇지만
애들
손 안


그야 물론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엄청난
놈들이네…,
너무 지독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놈들이
아니라구…!

이, 이봐!
오반…!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으으으….
저…
저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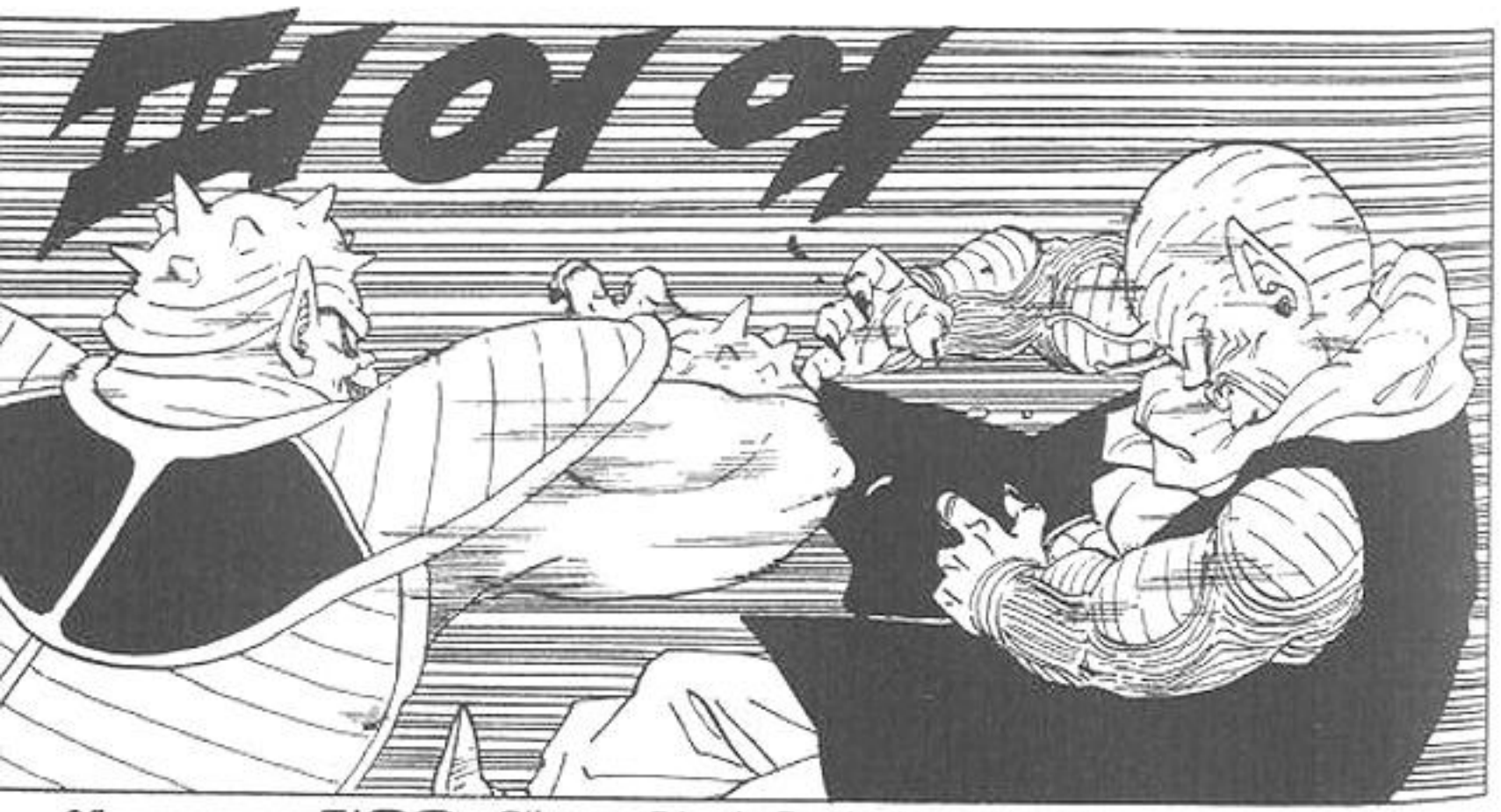
고맙소.

이걸
갖고 빨리
꺼져!









다음은, 제255화 손오반의 돌변!!


퍼퍼퍼퍼


야…, 약속이 틀리잖아…!
드래곤 볼을 주면 더 이상 아무짓도 안 한다고…!


앗!
龜


당신은 우리의 스카우터를 망가뜨렸으니까 나머지 두개가 있는 장소도 알려줘야죠!
그렇지만, 드래곤 볼은 7개가 모여야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말했잖아!
죽어도 동족을
팔지는
않는다고…!

그럼 역시
소원대로
죽어줘야겠군.

세 놈
모두
죽여
버려요.

걱정 마시죠.
이제 겨우 두개만
남았으니까요.
다른 마을이나
나메크성인을 뒤지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겠죠.

프리더 님.
스카우터 없이
드래곤 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

너희는
도망쳐!
빨리!

비…
비겁한
놈들…!

예!


보여
주마!!
나메크
성인의
긍지를
...
팡
피잉


아… !


카,
카르고!


드르륵


우…
우우우… !
저…
저놈들…,
저놈들… !


빠아아


꽈악


이, 임마! 화 좀 참아라!
화내지 마!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구…!
오반!


으헤헤
…!
털썩!
금지란 경
보여줄 듬도
없으셨네!


아…!
아….




으아아앗~!!
파앗
타닥
!!
으헤헤…, 이런 꼬만 놀아봤자 재미가 없단 말씀이야!

뭐, 우선 가라!!

퍽

그만 둬!!






한패인가!
어디지!?
뭐야!?


이
이
앙




피야
저, 저
바보!


네
놈은!?
뭐…
뭐야~ !?


탁


내가
없애
주겠다!
너 같은
놈은!


뭐라고~!?
크리링 아저씨!


아…!
예…?
멍청아—! 어서 도망가!
빨리!!
꽈야




나메크성인이 아니네…!


빨리 잡아요 !!
잡아요, 도도리아 씨 !!


이런 제길 … !!
윽 … !


무조건 날아 ! 잡히면 끝장이다 !
예 !


으아아앗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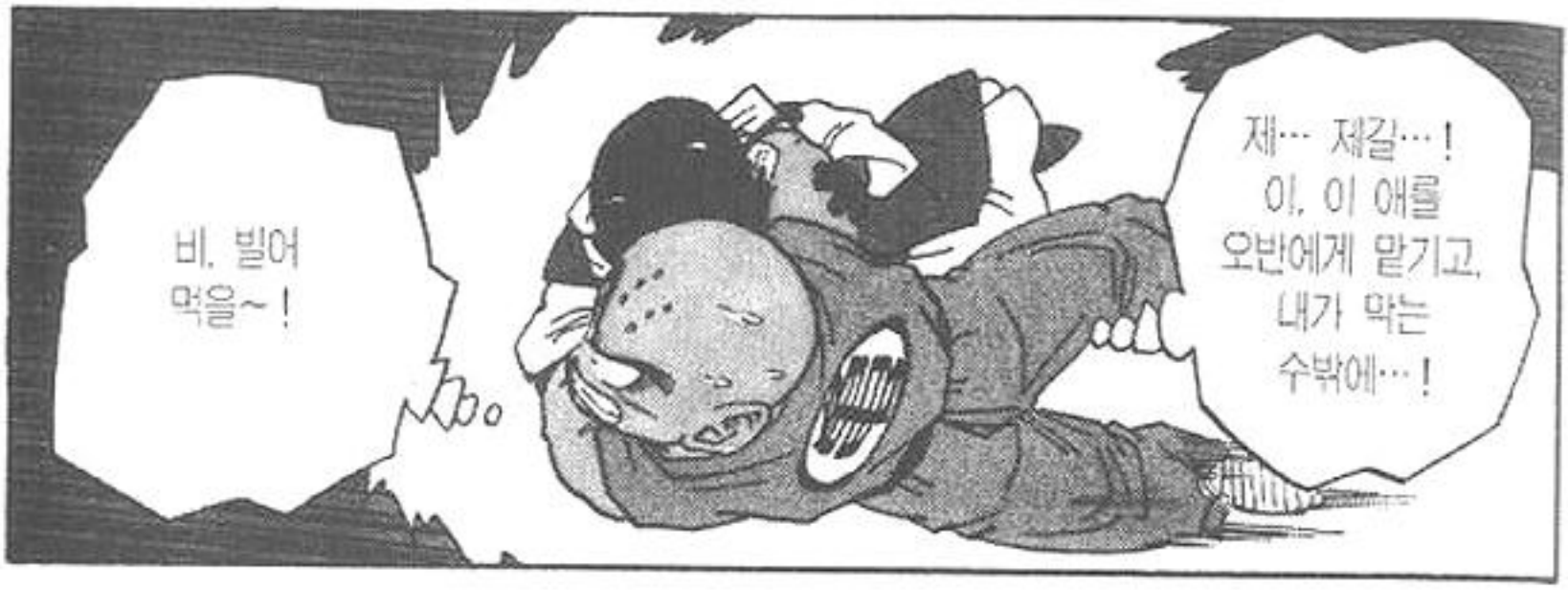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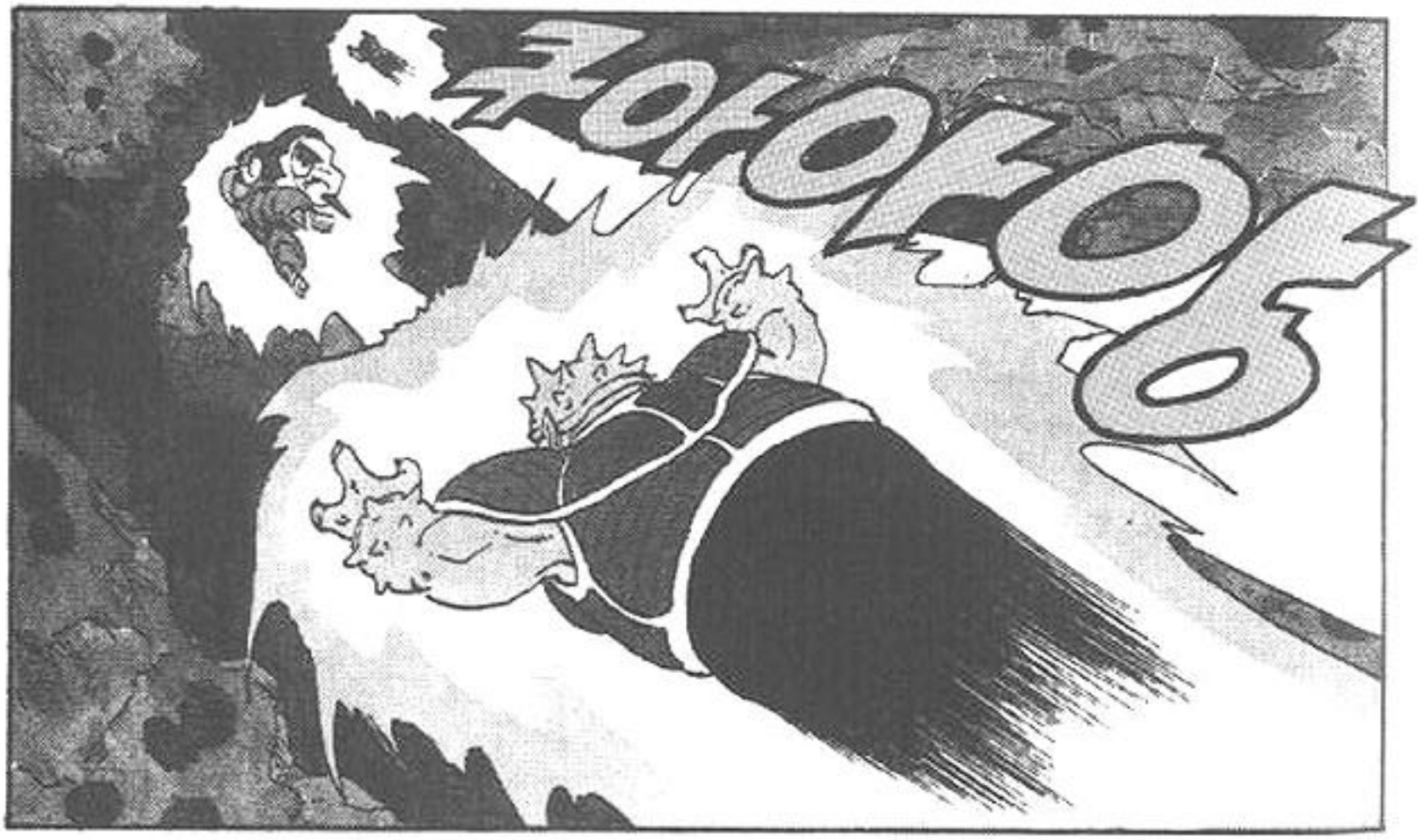


다음은, 제256화 죽음을 부르는 추적자!!



쌰아앙
쌰아앙
이, 이젠 틀렸어!!
내려가서 싸우자!
싸운다고 해결될 상대가 안 돼! 무조건 튀란 말야-!
으하하하!!




ZOOO



덜 써
간다!
오반! 내쪽을 보지 말고 눈을 감아! 알았지?
예…? 아, 예…!
엉!?


이거나
먹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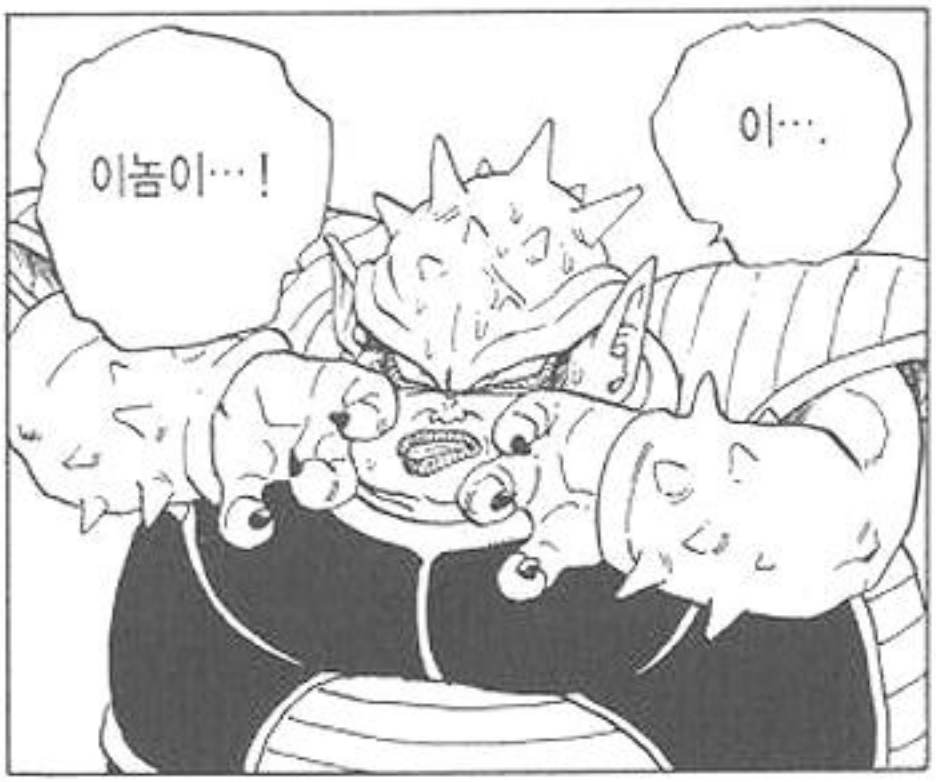

태양권
!!!


!!



으아악 — !!
눈이… 눈이…!
됐다!!
제대로 먹혔어!
오반, 숨어라!!
엥!? 아, 예!


별거 아냐,
그냥 잠시
눈을 멀게
했을 뿐이라구…
어, 어떻게
된 거야,
크리링
아저씨…?


이놈이…!
이…


제길~!!
어, 어디로
도망친
거지?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이, 이 빌어먹을 자식들~!!

그게 있었다면 저 꼬마의 기조차도 들켜버렸을 텐데…

걱정 마, 못찾을 거야… 그 할아버지가 스카우터란 걸 무숴버린 게 다행이다….

몽땅 날려 버리겠다…!

으~! 열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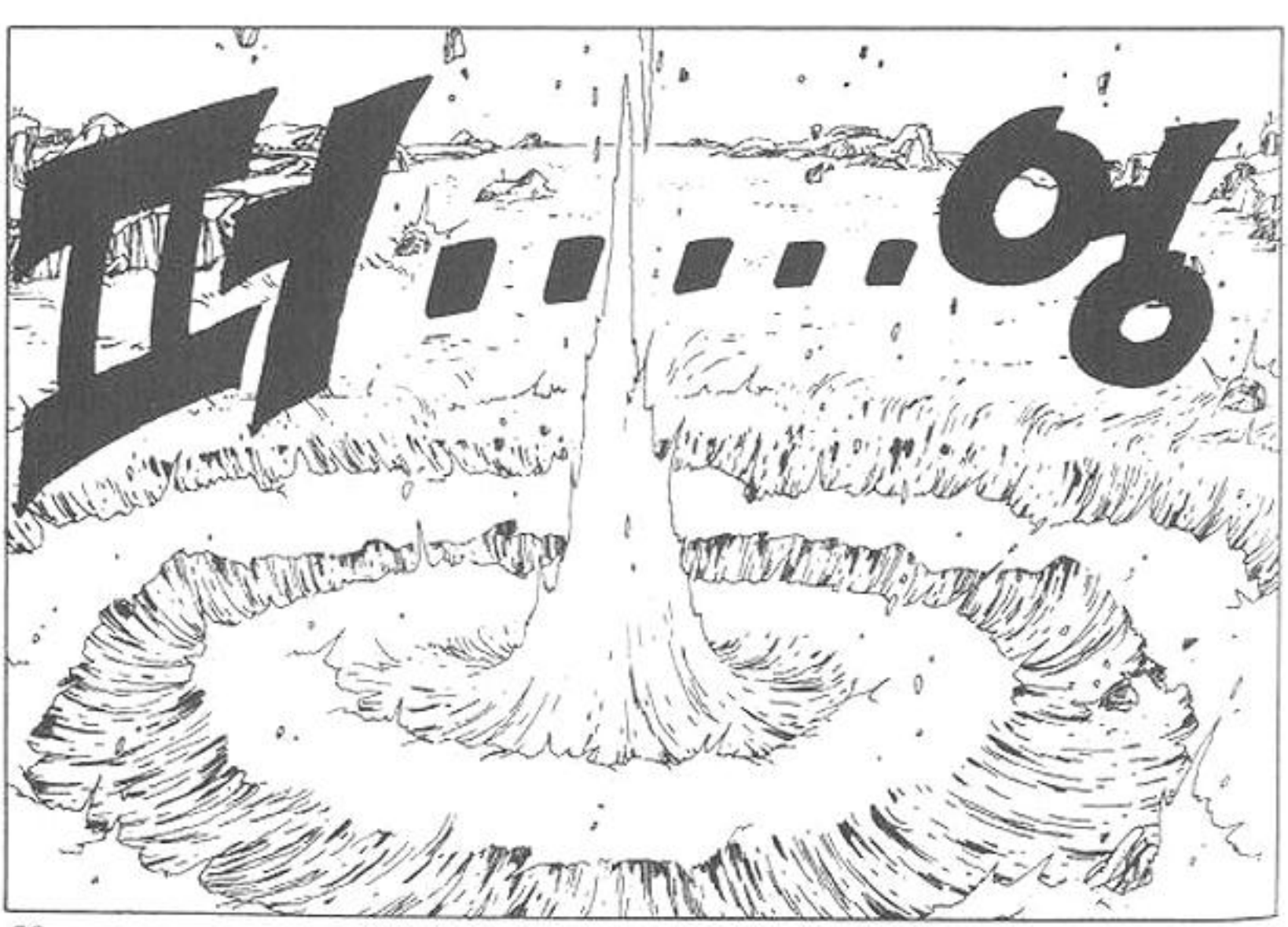
제길~! 그런 쥐방울만한 놈들한테 당하다니…!


휘이———잉
……
다행이다! 포기하고 가는데!
완전히 사라져 버려라!!
!!

위험해!!




AHHH


OH...OH

으하하!
꼴 좋다-!

꼼수를
피우면
이렇게
된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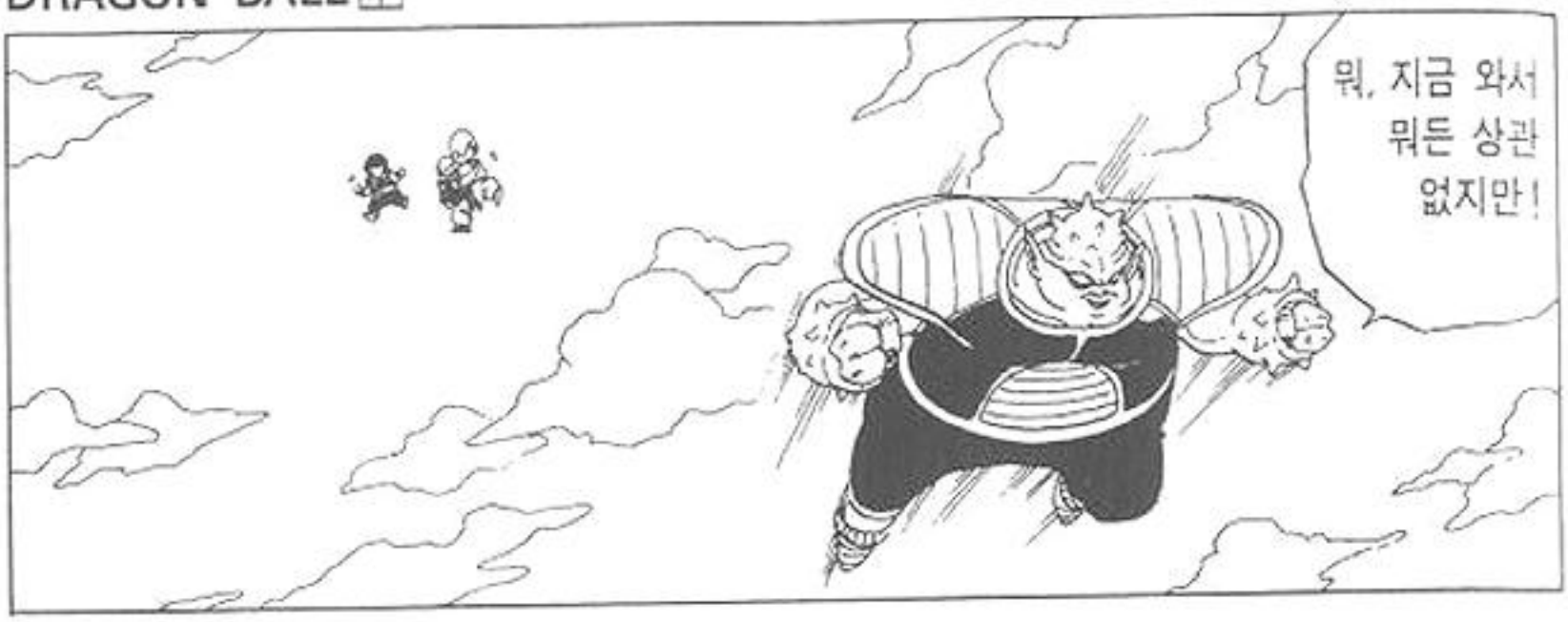
프리더 님은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뭐, 놓친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결국 꼬마들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잖아….

보통 놈들은
아니었는데….




뭐, 지금 와서
뭐든 상관
없지만!


휴우!
사…,
살았다….


구…
구해줘서
정말 고마
워요….
감사는 이쪽
오반이란 애한테 해.
난 겁나서 도와줄
생각을 못했거든….


일단
부르마 있는
곳으로 돌아
가자….
너,
하늘을
날 수 있니?
아…,
예….


그치만
크리링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아무튼, 우릴
따라와라. 우린
수상한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알아!
저쪽이야.

저기…,
부르마를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니?

타앙

그런데
스카우터 없이
남은 두 개의
드래곤 볼을
찾아야 하다니,
진짜 귀찮게 됐네.

크아아
아악~ !!

뭐 여긴
별로 큰 별이
아니지만….











다음은, 제257화 두려움에 떠는 도도리아

베…
베지터…!
네, 네놈이…!

어이,
이거 정말
오랜만이군,
도도리아 씨.

가, 감히 날
기습한 게
너냐,
베지터…!

네놈과 따봉은
항상 프리더와
붙어 다니니까
단독으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지.

프리더만 없으면
어떻게 처치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얌전히 그 스카우터를 내놓고 꺼져버려! 그럼 이번만은 그냥 살려주마.

뭐, 뭐야~!? 사이어인 주제에 상당히 건방진 소리를 지껄이는 구만…!

이게 필요 하겠지…?

혹성 프리더로 스카우터를 가지러 가려면 며칠이 걸리지.

역시 네놈들 스카우터가 모두 없어졌구나. 하하하! 이거 기분 째지는걸….

크크큭…. 그래? 갑자기 음성만 끊어져서 혹시나 했더니….

이젠 내가 접근해도 눈치채지 못하겠군.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어.

뭐라고~!?

내놓겠다는 거냐? 흐흐흐…. 겨우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았나 보네…! 이제 운이 좋으면 프리더 님이 목숨만은 살려주실지도 모르겠군.

!!

빠지잣

쌔…

그, 그게 없으면 프리더 님이나 나메크인들이 있는 곳도 알 수 없다구!

뭐… 뭐라고…!? 네, 네놈도 드래곤 볼을 모을 생각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난 지구란 별에 가서 그 별 놈들은 스카우터 따윈 없어도 상대의 파워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지구에 있던 나랑 같은 사이어인도 그 특기를 갖고 있었으니 나도 할 수 있겠지?

너, 완전히 돌았나!? 왜 그걸 부수고 그래!?

이, 이게 무슨 짓이냐…!? 베, 베지터!

이젠 내게 필요가 없어졌거든.

네놈들이나 프리더처럼 파워에만 정신이 팔린 놈들은 무리지만…. 하긴, 지금까지의 나도 그랬거든….

요점만 파악하면 간단했다구.

……

지구인이라고?

네놈은 지구인과 손을 잡은 거야…!

이제 알겠다~! 아까 내가 쫓던 꼬마놈들은 지구인이구나!

보내주겠다는 거다! 고맙게 생각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쨌든 네놈은 당장 여기서 사라져! 죽고 싶지 않다면 말야!

크크큭….

지구인이 이런 곳까지 올리가 없을 텐데.

무슨 잠꼬대야! 그런 놈들이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처치해줄 거다.

하긴, 이해가 되는걸.
네놈은 나와 큐이의
싸움을 보고 내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
졌다는 것을 알고
떠는 거야….
스카우터로 내 전투력을
봤을 테지…?

뭘 겁먹고
있는 거지…?
어서 덤비지 않고
뭐 하는 거냐구!

그런 수치는
잘못된
거야!
스카우터는
고장났다구!

날 물로
보지
마!

우와아
아아— !!


ガ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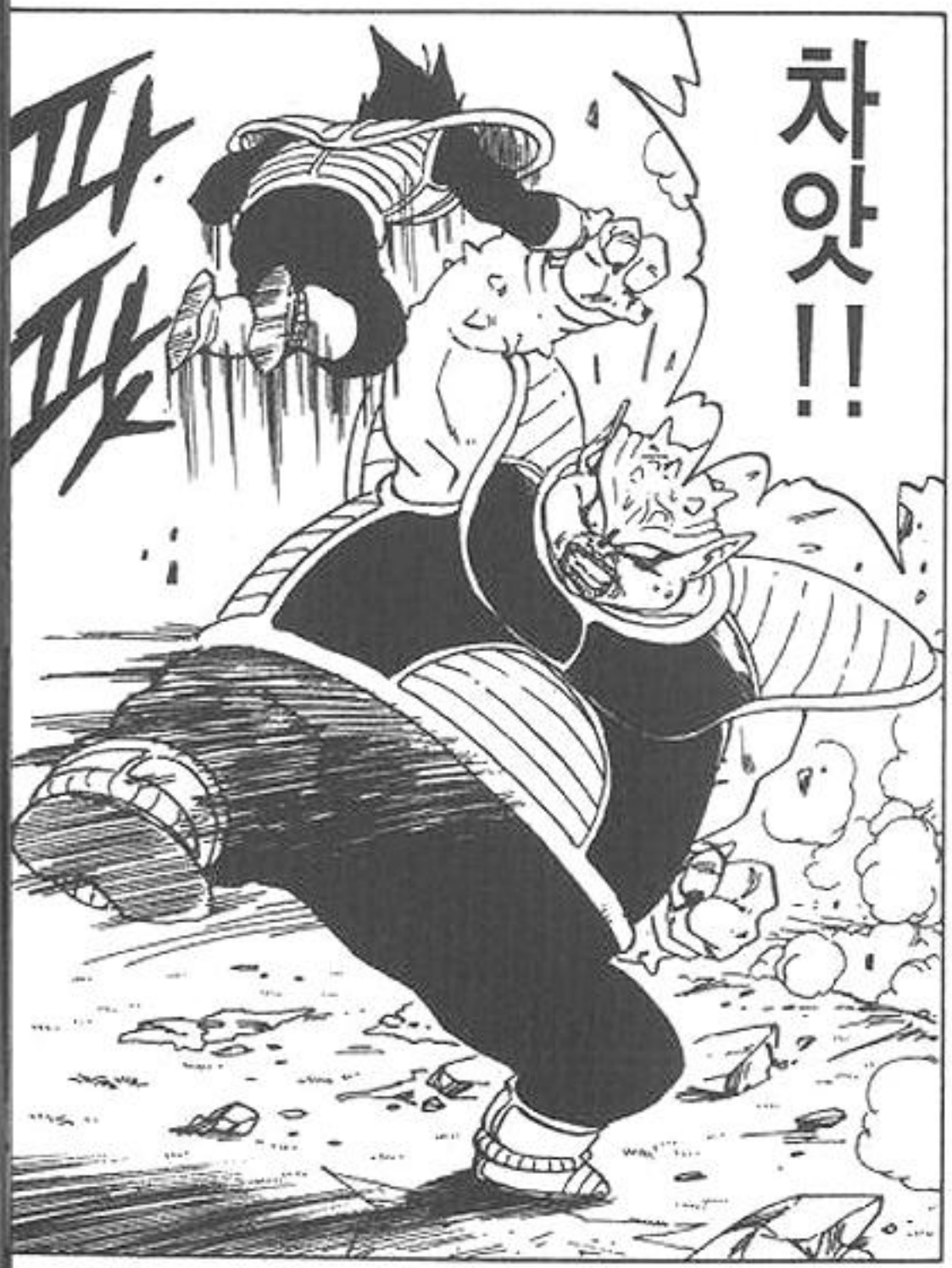

ガッ…ボ

크아아
아아
…!!

놀고 있군.

그런 기술이
내게 통할 것
같냐!?


부우웅
에잇!!


파
차앗!!


파팟


얏!!
탁
꽈악
우욱!!
쏴아악…


후하하하…!
우리
사이어인은
싸울수록
강해
진다…!
커어억~!!


죽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네놈이 자랑하던
파워도 놀고 먹다보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지구에 가서
죽을 뻔한 나는
훨씬 파워업
했다구…!
크크큭….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더
강해진다…!
그게 바로
전투민족
사이어인
이다!


너, 너희
사이어인의
별인 혹성
베지터에 대한
얘기다…!
자, 잠깐!
베지터!
나, 나를 그냥
풀어주면
어떤 비밀을
알려줄게…!
뭐야!?

하윽!!

혹성 베지터라고!? 혹성 베지터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헉헉! 마, 말하자마자 죽일 속셈은 아니겠지…!

안 하면 바로 죽인다!

빨리 불어!!

너… 너희들 사이어인의 혹성 베지터는…, 프… 프리더 님이 말한 것처럼….

거대한 운석에 부딪혀 사라진 게 아냐….

뭐라고…!?

사… 사이어인 각자의 힘은 프리더 님에겐 새발의 피지만….

마…, 많은 사이어인이 단결하면 상당히 귀찮은 힘이 되지….

묘하게 힘을 지니기 시작하면 계속 복종하며 명령을 들을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더 님은 그 시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

게… 게다가 사이어인 중에서 아주 적은 수는 너처럼 뛰어난 전사가 태어났고, 계속 늘기 시작했다….

둥실

하지만 베지터! 프리더 님에게 감사해라! 왕자였던 너의 천재적인 솜씨는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네가 별에 없을 때를 노린 거니까!

그래서 프리더 님은 자신이 직접 혹성 베지터를 사이어인과 함께 우주의 먼지로 날려버렸지!

내겐 별이나 동족, 부모의 일 따윈 아무래도 상관 없어….

착각 마라, 도도리아.

쿠악-!

후하하하! 역시 충격이 큰 거 같네!

난 이 틈에 프리더 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다!

단지, 그것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네놈들이 시키는 대로 광대 짓을 한 자신에게 열받은 것 뿐이다…!

뭐…!

퍽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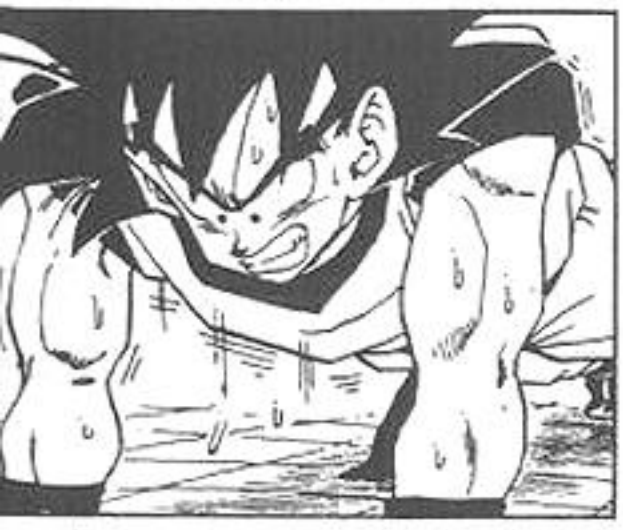
퍽

프리더는
사이어인의
무한한 가능성에
쫄고 있는
거야…!









다음은, 제258화 위험이 가득!!

후후후….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해졌어….

도도리아는 처치했다…! 그렇게 큰 파워를 자랑하던 도도리아를 식은죽 먹기로….

지구에서의 전투는 진짜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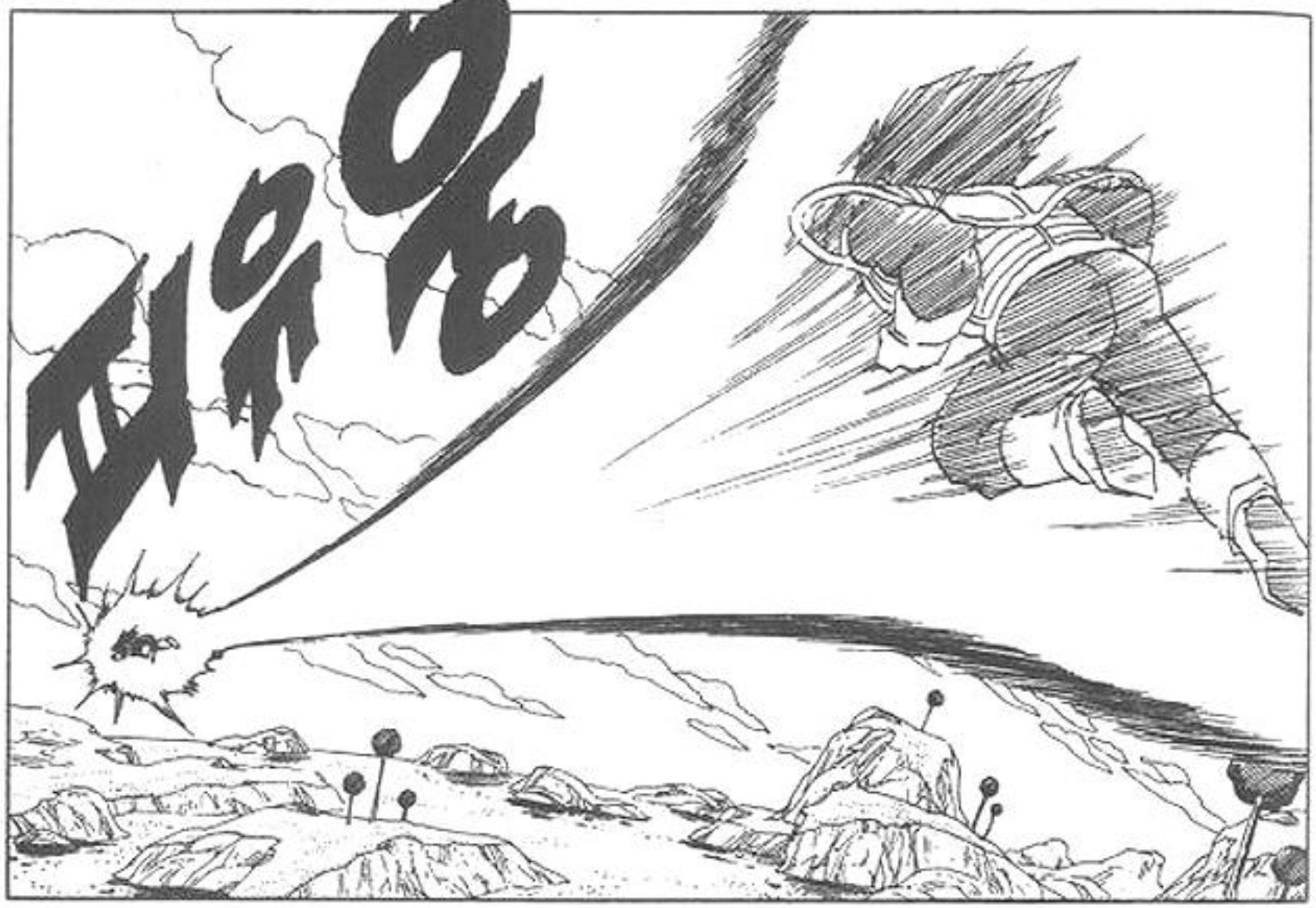
분명 멀어져 가는 두 개의 큰 파워가 느껴지네. 지구인은 아닐 테지만, 나메크 성인이 아니라면 신경쓰이는걸….

그런데, 그 이상한 얘긴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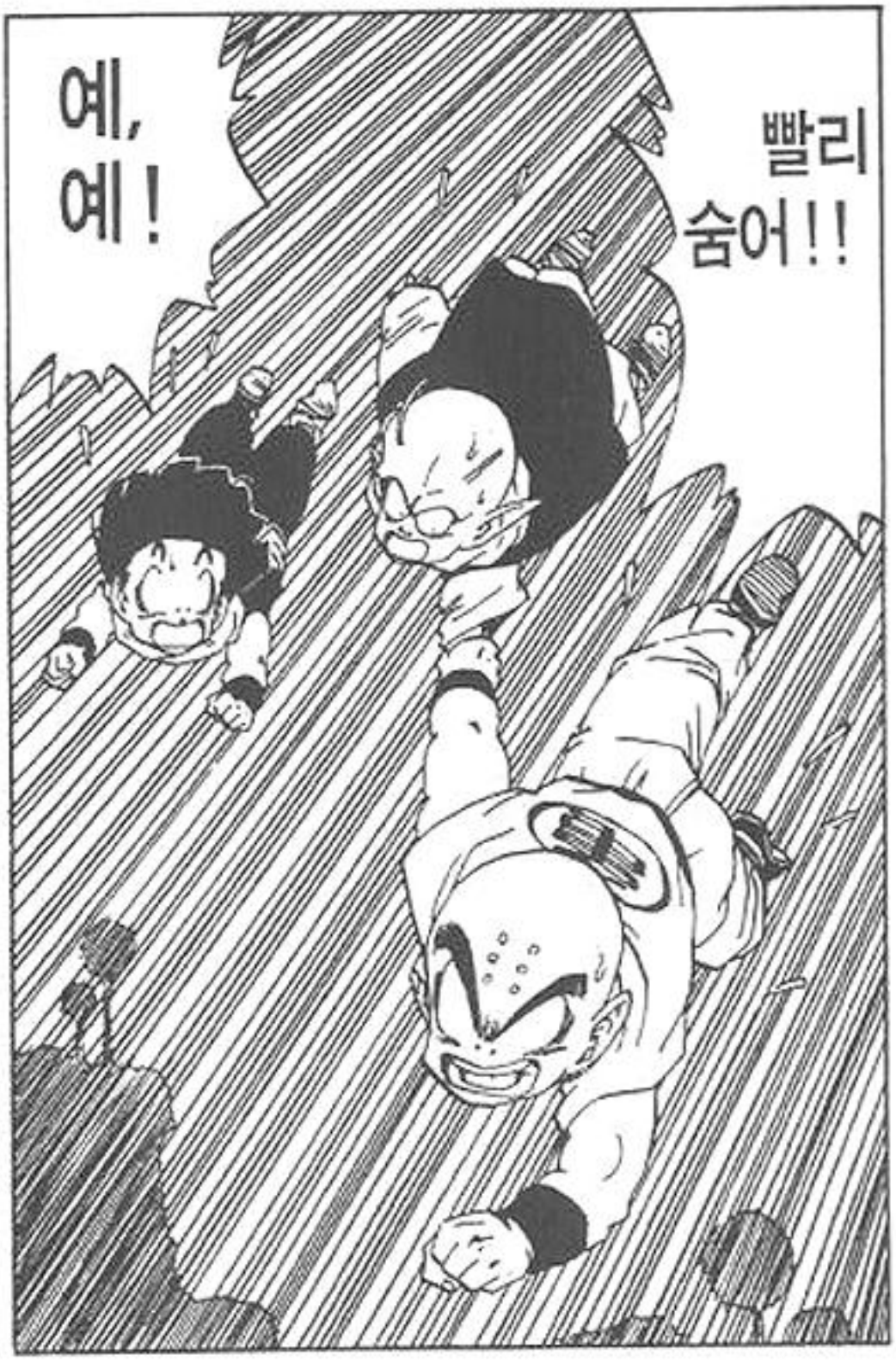
알겠다~! 내가 쫓던 꼬마 놈들은 지구인이구나!

일단 조사해 볼까…?

어쨌든 날 방해하는 놈은 그게 비록 꼬마들이라도 없애야 해…!


이제 다 왔어.
부르마가
숨어있는
동굴!
넌
그런 것도
잘 아는구나.
!!
뭐지
!?
뭔가
온다!
무, 무지
빨라!


탁
탁


예,
예!
빨리
숨어!!


또 그놈인가…?
제, 제길!
그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낸
거지…!?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됐으니까
빨리 기를
숨겨!
이, 이런 데
있다간
들키겠어
…!


휘
잉
!?
파워의 반응이 둘 다 사라졌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근처에서 갑자기…!

뭐!?

크… 크리링
아저씨….
저… 저길….

!!

이…
이럴 수가!
우씨…!
최악인걸…!

베… 베지터!
저, 저놈이
역시 왔구나…!

그…, 근데 어떻게 우리 있는 곳을….

저… 저놈…. 그 스카우터란 기계를 쓰지도 않았는데….

휴우….

아… 아직 우릴 찾고 있어….

쓱…

파워를 찾는 기술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일까…?

괜히 스카우터를 부숴버렸나봐….

제길…, 내가 잘못 알았나…?

우, 우리가 기를 숨겨도 이 애의 작은 기가…!

그, 그렇다면 이거 큰일인걸!

아…!

서…, 설마 저놈…. 기를 느끼는 능력을…!

그… 그게 분명해…!

엉?


!!


작은
파워가
느껴진다….
이번엔
확실해….
우선
내려가서
찾아볼까…?


이…
이쪽으로
온다…!
이…
이젠 틀렸어…!
들키는 건
시간 문제라구…!


이. 이렇게
되면
싸우는
수밖에…!
죽을 건
알지만…!


저 바위
근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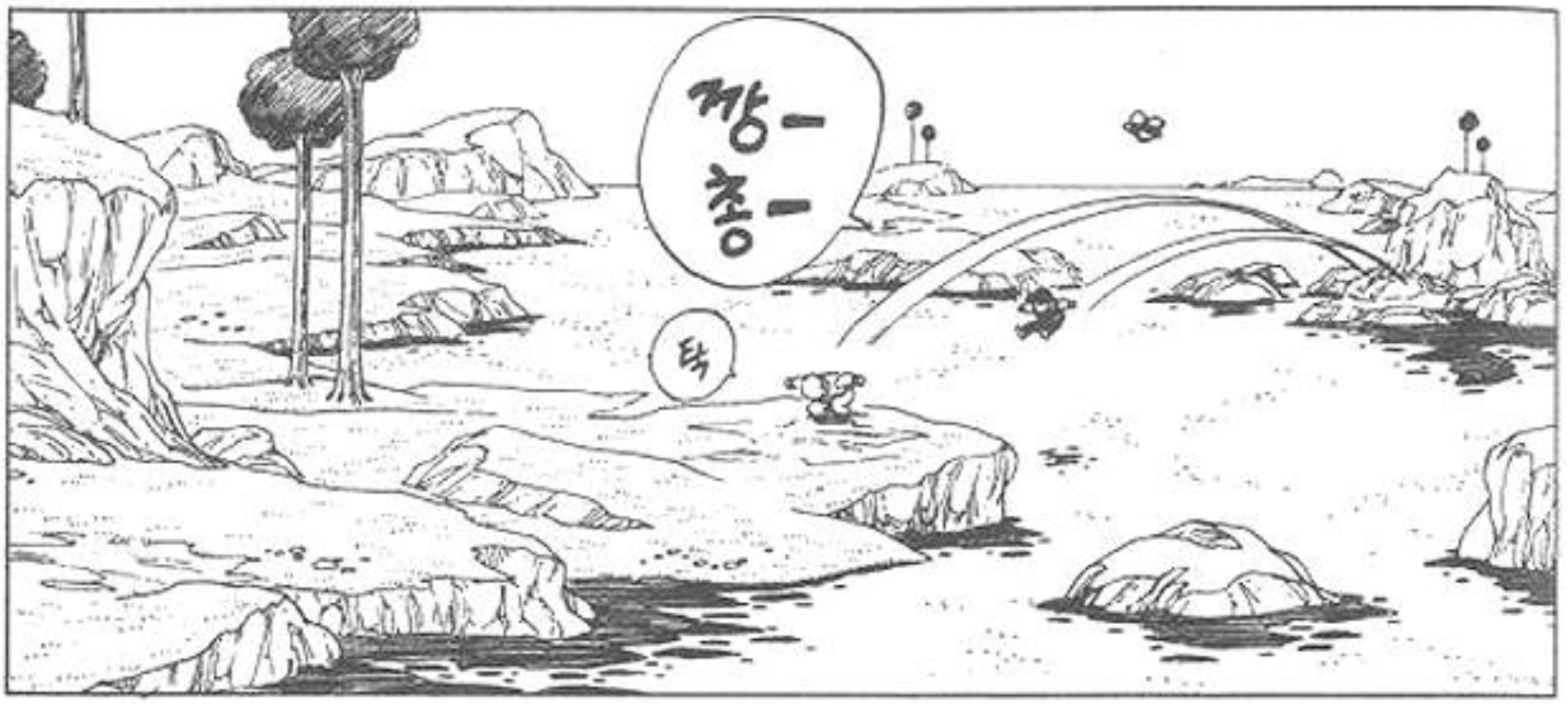

!!
첨버 ―…엉
푸하
촤악―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숨겨버리면 프리더 일행은 7개 모두를 모을 수가 없게 된다.
뭐, 됐어…. 일단 나머지 두개…, 아니, 하나만이라도 드래곤 볼을 손에 넣는 게 우선 중요해.
쳇….
휘―――앙
그리고 그놈들의 빈틈을 노려서, 놈들이 갖고 있는 다섯 개를 빼앗는 거야!
크크큭…! 놈들의 스카우터가 없어진 덕분에 나 베지터한테 행운이 돌아왔구나!
저놈 인가….

다…, 다행이야! 몰속에 있던 고기한테 감사 해야겠는걸….

와, 완전히 저승갈 줄 알았는데….

사…,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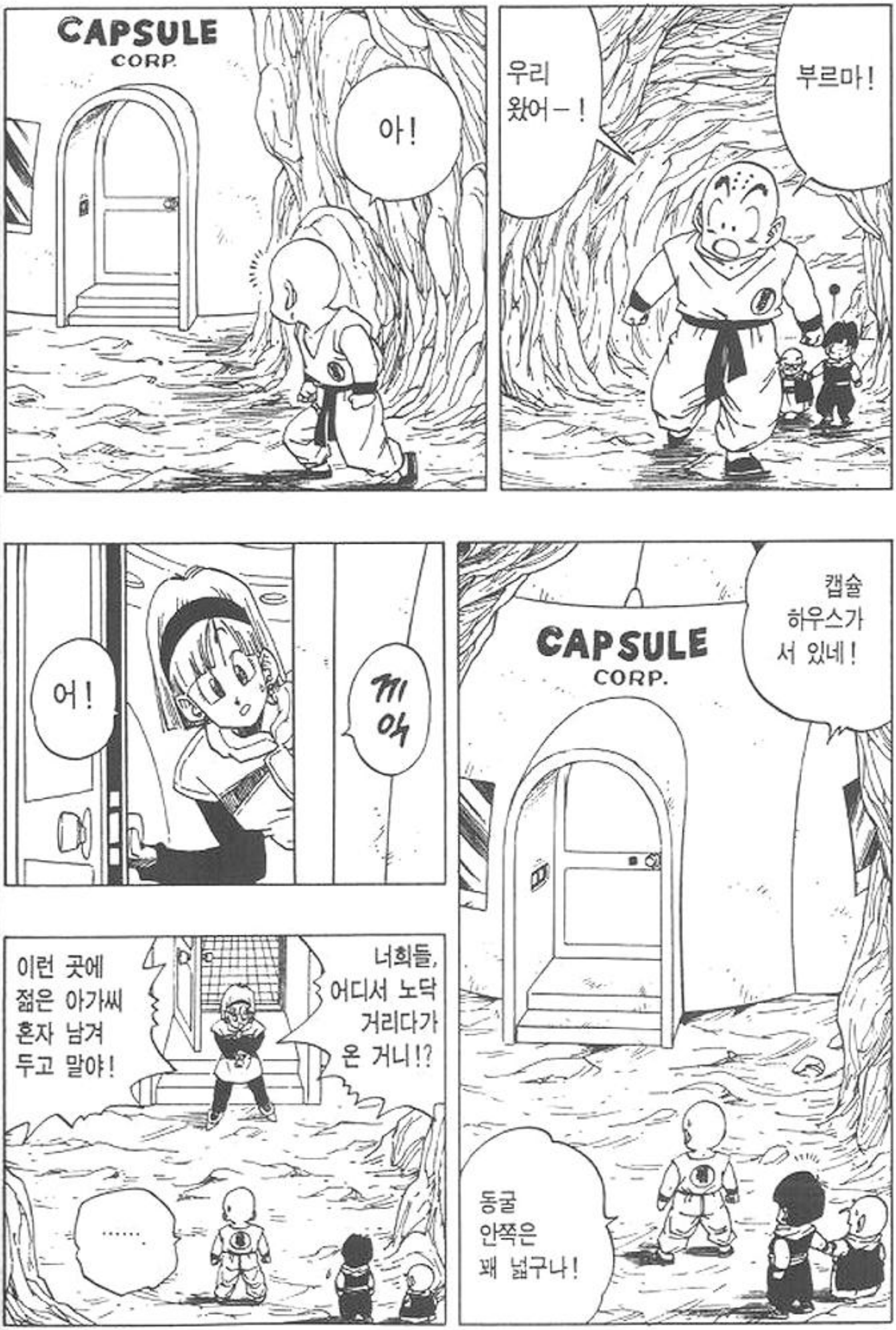
끄아아아


깡-
총-
탁


아, 그래…. 맞다.
됐다. 크리링 아저씨, 저기야.


죽은 야무치나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이 별에 안 오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모두를 되살려 내기는 커녕, 죽는 사람만 늘어날 것 같아…. 우리가….


동굴 안쪽에 숨어 있겠지.
부르마-!!
어라? 없네….


부르마!
우리 왔어—!
CAPSULE CORP.
아!
캡슐 하우스가 서 있네!
CAPSULE CORP.
동굴 안쪽은 꽤 넓구나!
끼악
어!
너희들, 어디서 노닥 거리다가 온 거니!?
이런 곳에 젊은 아가씨 혼자 남겨 두고 말야!
……


엥!?


노닥거리고 오다니….
하아….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혹시 나메크성인 아니니!?
뭐, 뭐야!? 그 소형 피콜로 같은 아이는!


손오공이 여기로 날아오고 있대!
도착은 겨우 6일 뒤래!


아까 아빠한테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
그래!
엥? 뭐,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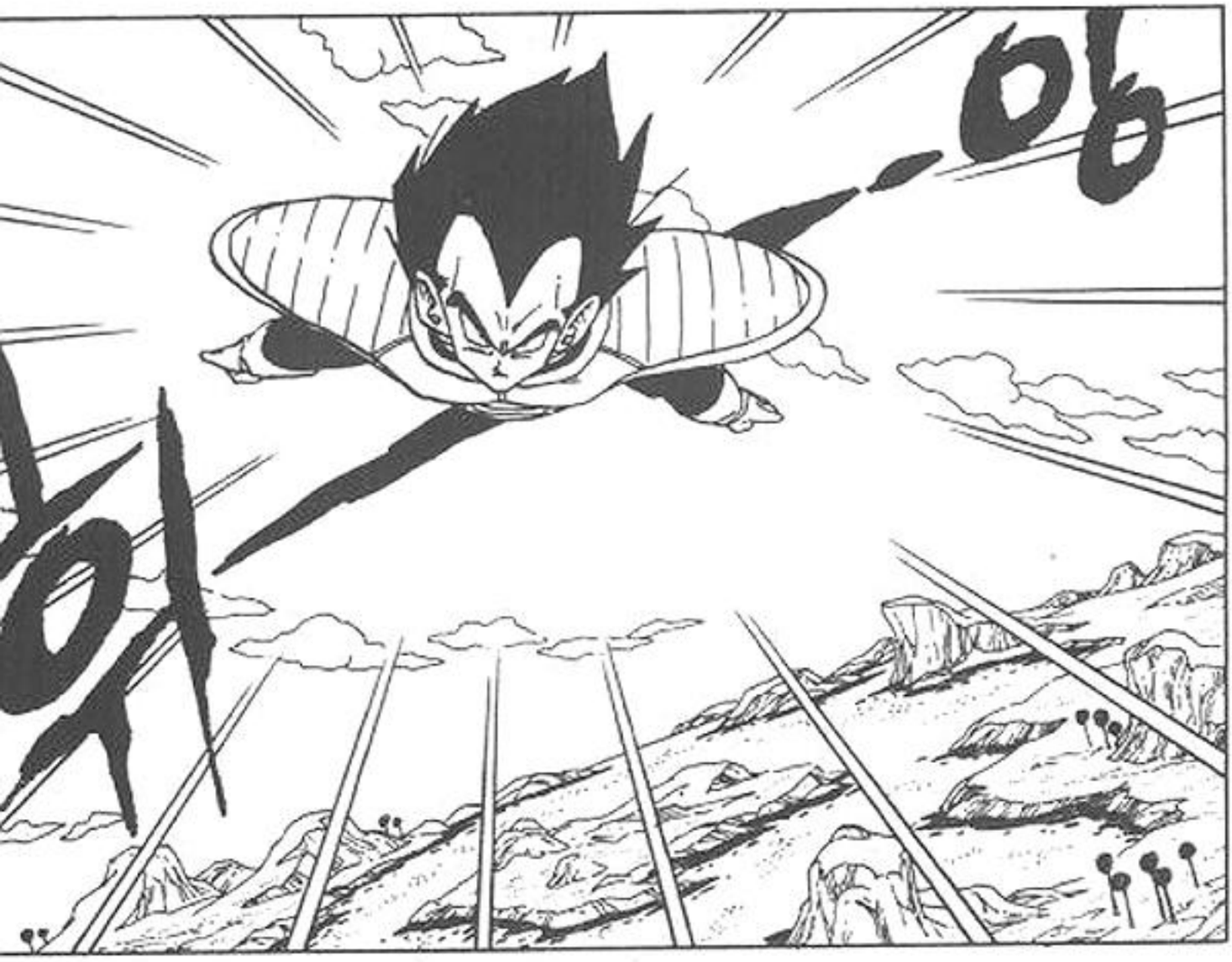


뭐!?
그게 말이지! 오공이 아기 때 타고 온 사이어인의 우주선을 아빠가 엄청 개조했나봐!
게다가 오공은 그 안에서 굉장한 수련을 하면서 온다는 얘기야!
아… 아… 아빠가….
?
머~~~엉
만세-!!
……!?
이야호-!!
굉장한 수련을 한다고!?
너무 잘 됐다! 드디어 희망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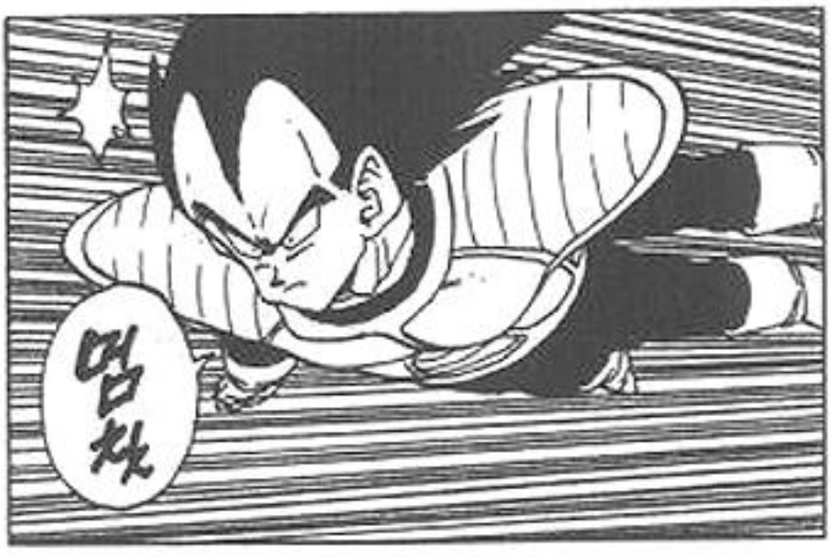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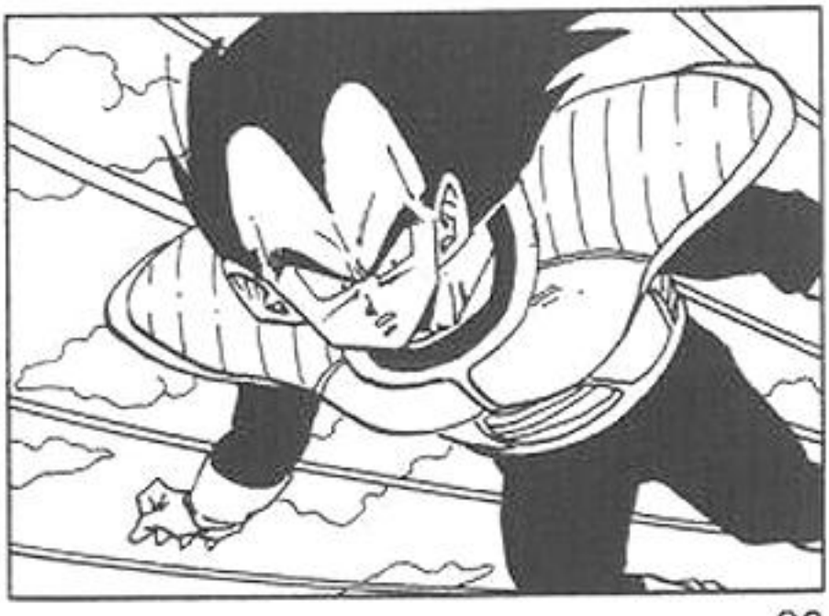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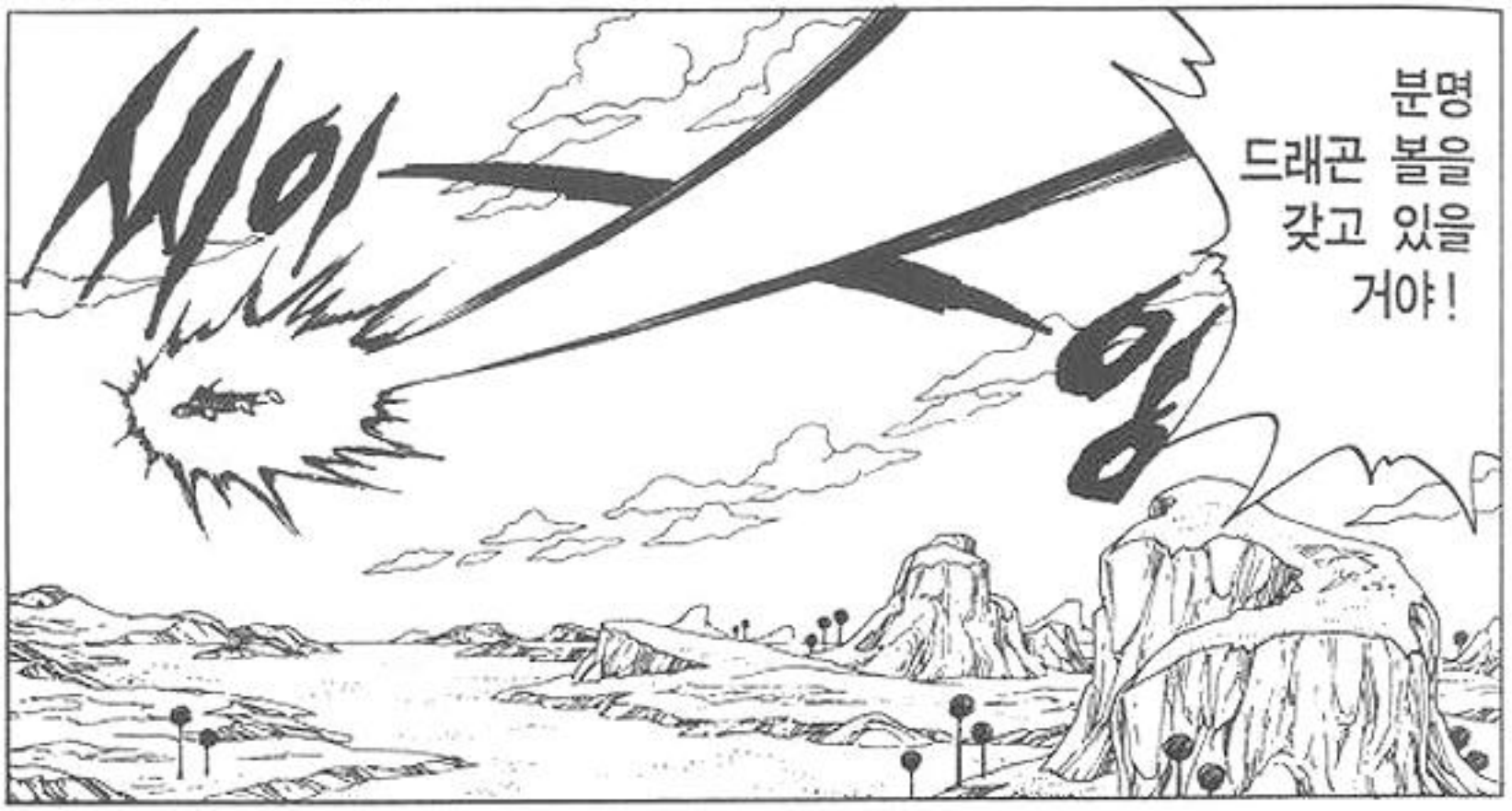
다음은, 제259화 6개째의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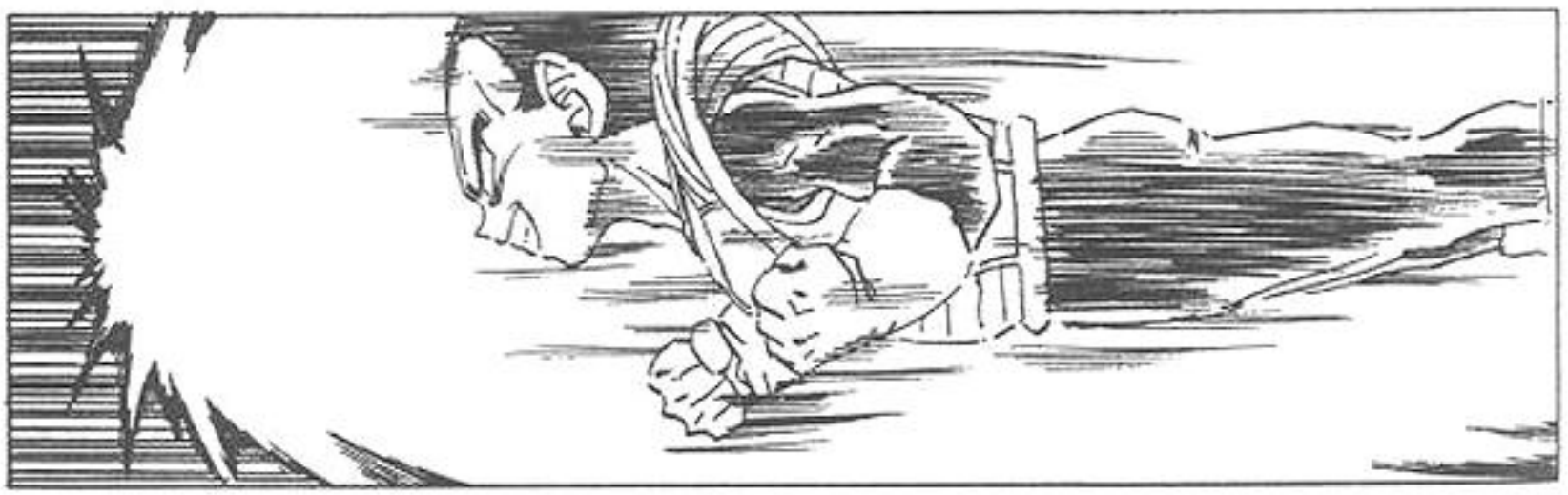

06


후하하하하!
느껴진다!
큰 파워야!
수는…,
20 정도나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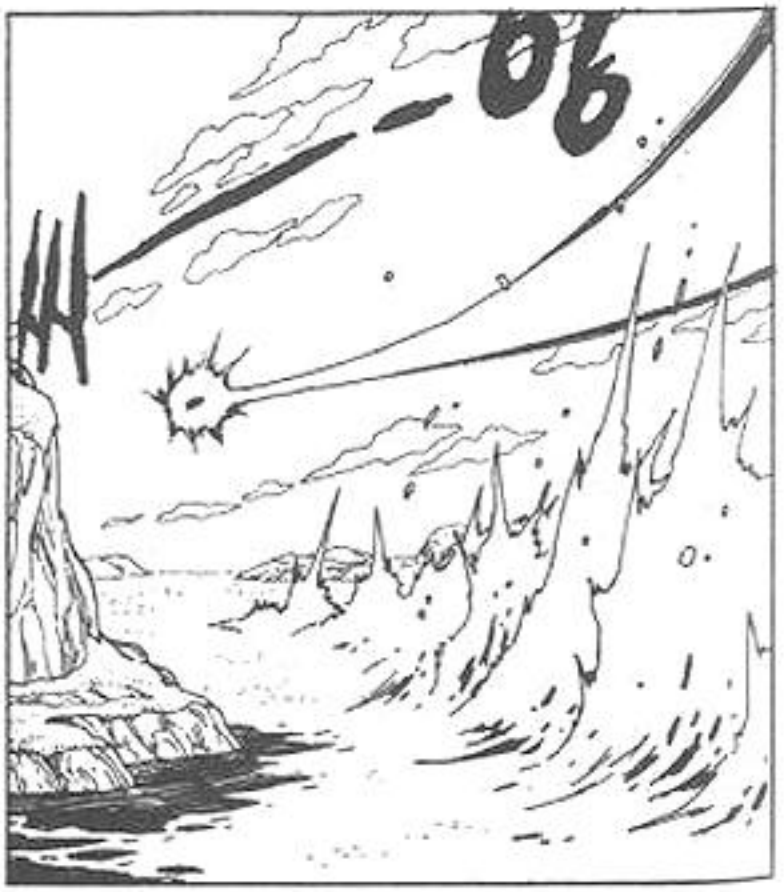

멈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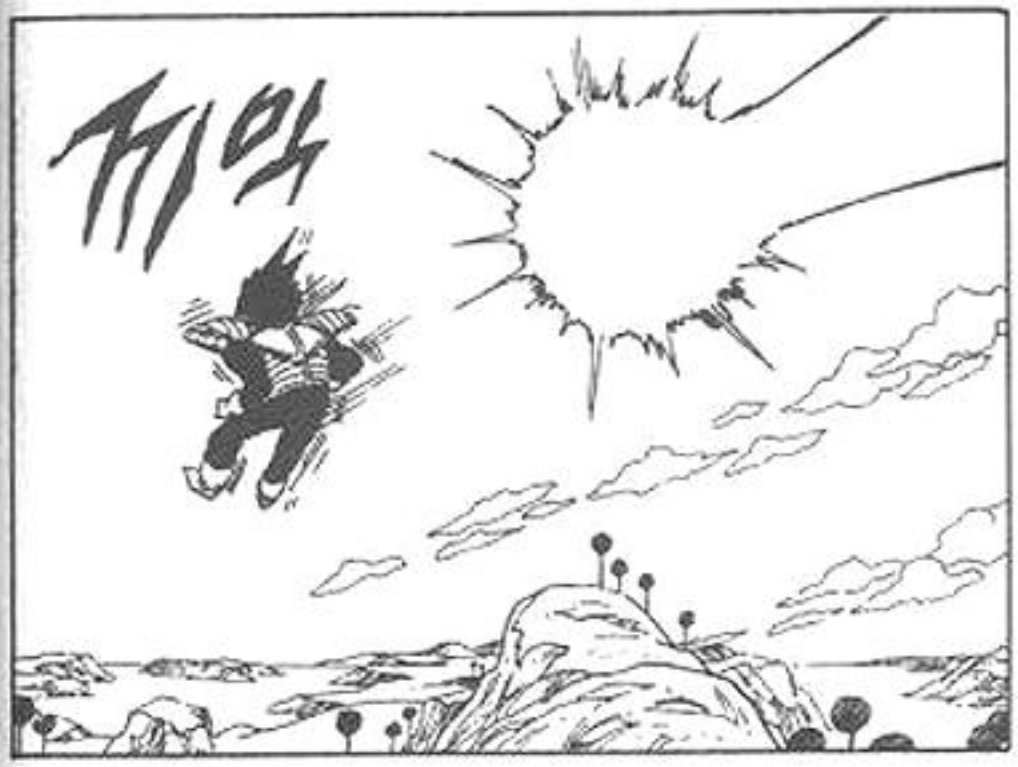



분명
드래곤 볼을
갖고 있을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놈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구!
크하하하!
프리더 일당은
스카우터가
없어졌다!




끼아


!!


마을의 주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프리더 일당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증거지…!
크흐흐…
역시나!




ドカ


!!


!!

내가
드래곤 볼을
받으러
왔다!!

장로라는
놈은
있나?

다른 별
사람
이다…!

뭐지…!?

대체
왜 당신이
드래곤 볼을
원하는지
들려다오….

내가
장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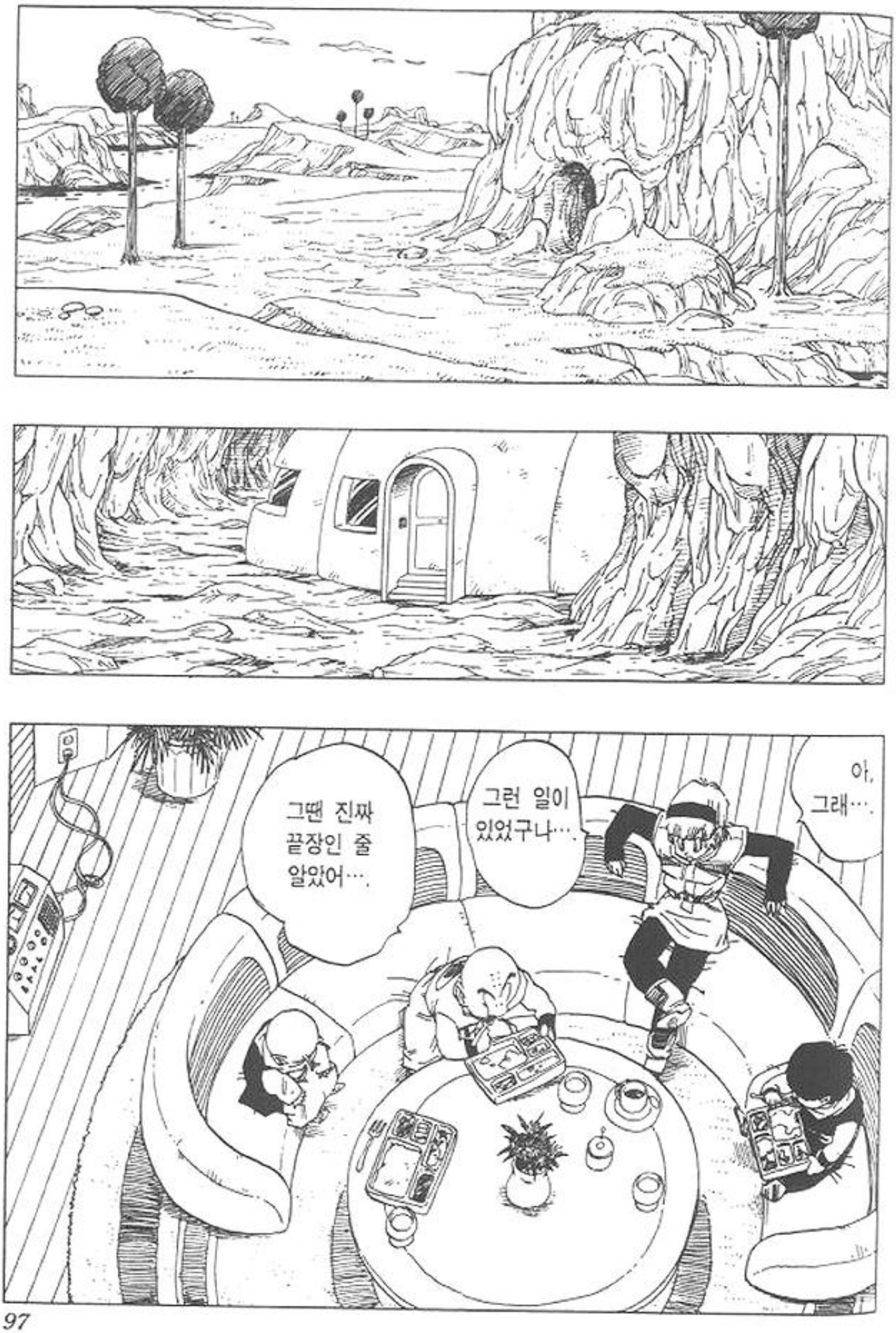
뭐,
뭐야!?

그럼
죽어라!

있긴 있지?
잡소리 말고
빨리 내놔!

네게선
사악함이
느껴진다….

돌아가….
드래곤 볼은
줄 수
없으니까….


그땐 진짜 끝장인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

밥맛이 있을 리 없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죽었을 테니까….

그래….

……

맛은 없지만….

너, 괜히 사양 말고 어서 먹어.

그건 아지사의 묘목이에요….

너희 마을에는 밭이 있어서 야채 같은 것도 가꾸고 있었잖아….

뻥치지 마.

물만 마셔도 괜찮아….

우린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야, 네 이름이 뭐니?

……

그런데 아지사슐도, 거의 모든 나메크성인도 끝장나 버렸죠….

옛날에 이상기후가 생기기 전까지 나메크성은 아지사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나메크성을 만들려고 아지사 나무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저… 저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덴데….


멈찻!!
크, 크리링 아저씨! 이, 이건…!
타악
타닥
가, 갑자기 왜 그래!?
또, 또 누군가 온 거니?
아… 아니…. 그게 아닌데….

또… 또
나메크성인이
죽어가는 거야…!

뭐!?

기… 기가
계속 줄어
들어….

龜

여…, 역시
베지터는 기를 찾는
기술을 몸에
익혔구나….

저…, 정말
지독한
놈이네….

주…, 죽이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기다….
베, 베지터…!

이거 큰일이군….
이젠 오공이
올 때까지
경솔하게
못움직이겠는걸….

이, 이번엔
놈이 다른 마을을
습격하고 있어…!

베지터와 그…, 프리더란 놈이
한 패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중 한 놈이 드래곤 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 세상은 끝장이야….


드래곤 볼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 숨겨 버리면,
그놈들은 절대 모두
모을 수 없을 텐데….


마…,
말도
안 돼….
……


그… 그렇게 하면
놈들은
나메크성인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계속 찾아다닐
거야….
아…
안 돼….


어, 어디서
왔죠…?
어, 어떻게
드래곤 볼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다, 당신들이
누군지 가르쳐
줘요…!


우, 우리 별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오… 오공이
와도 저놈들을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최…
최악이다….
방법이 없어….
어…, 역시
그때…, 베지터를
처치했어야….


크아아아




털썩...
탁


너… 너 같은 놈에게 절대 줄 수 없어…!
이… 이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래도 드래곤 볼을 안 내놓겠단 거냐!?


ob


정말 고집 한 번 고무줄처럼 질긴 늙은이군….
뭐, 좋아! 마음대로 하셔. 내가 찾아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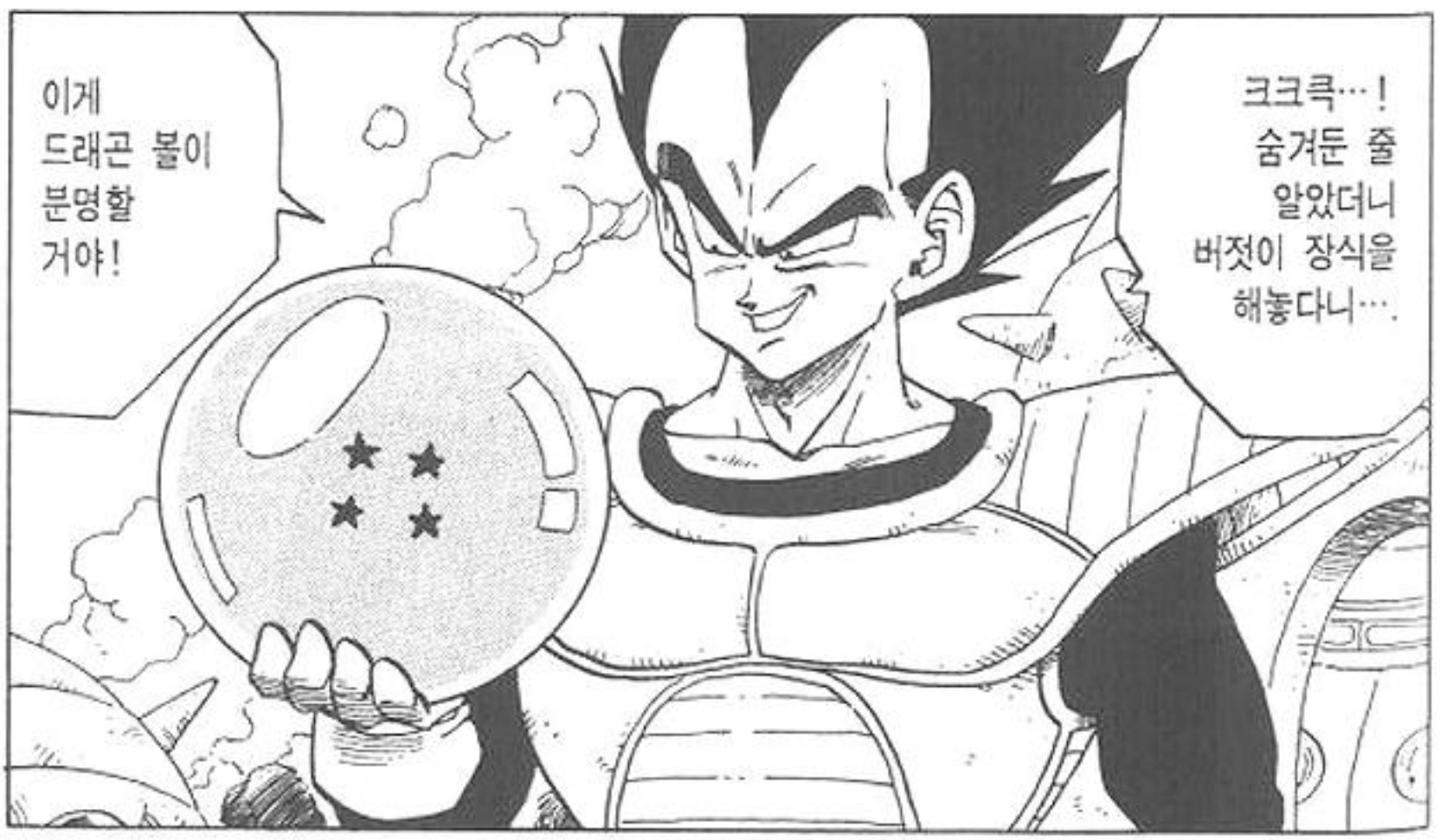
어디….
찾아볼까….
그래…, 지구로 탈출한 나메크성인 이었어….
그리고…, 이곳의 드래곤 볼을 이용해서 죽은 친구들을 되살리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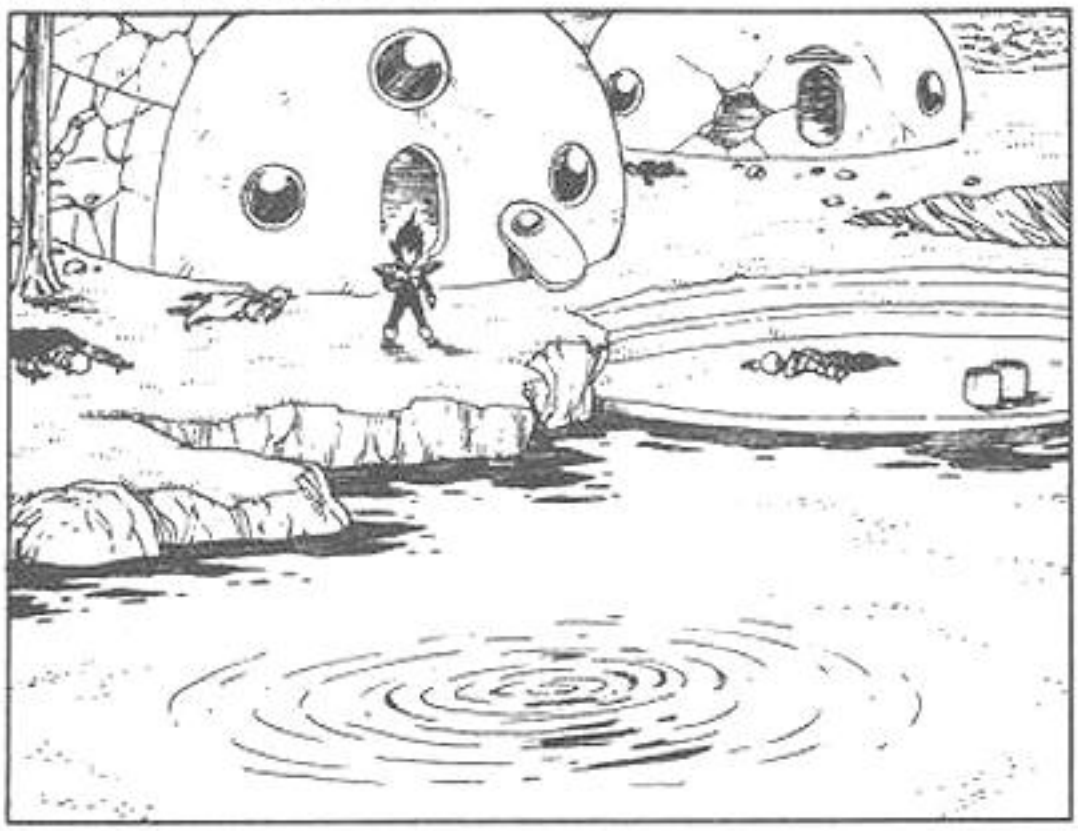




다음은, 제260화 최후의 드래곤 볼 1개


헉


이것을…
그럼…




첨벙


아는 것은
나 혼자
뿐이야….
크크큭….
여기 넣어 놓으면
누구도 드래곤 볼을
찾을 수 없을 거다….


이제
어쩌지….
남은
한 개나
찾아낼까….
프리더 놈들이
갖고 있는
드래곤 볼은
5개….


휘
락


쨔앵
도도리아가 너무 늦는군요…. 아직 그 수상한 꼬마들을 쫓고 있는 걸까요…?

그보다
나머지 두 개의
드래곤 볼이나
찾아오세요.

이젠 됐어요.
그런 꼬마들도
잡지 못하는
얼간이는 그냥
버려둡시다!

툭...

그럼 부탁
드립니다.

잘하세요.
이제 두개만
찾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남은 마을을 뒤져보면
분명 드래곤 볼이
있을 겁니다.

둘이서 찾으면
마을쯤이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다섯 개의
드래곤 볼을 갖고
우주선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세시간 뒤에 우주선에서 만나기로 하자.

너는 반대쪽을 찾아라. 만약 마을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내게 알려. 너는 강한 나메크성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하기 어려울 거다.

옛!

휘 앙

휘 앙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드래곤 볼을 노리고 찾아 올 거야….

어쩌면 베지터가 이미 찾아 냈을지도 모르겠군….

퍼 웅

퍼 웅

호호호…!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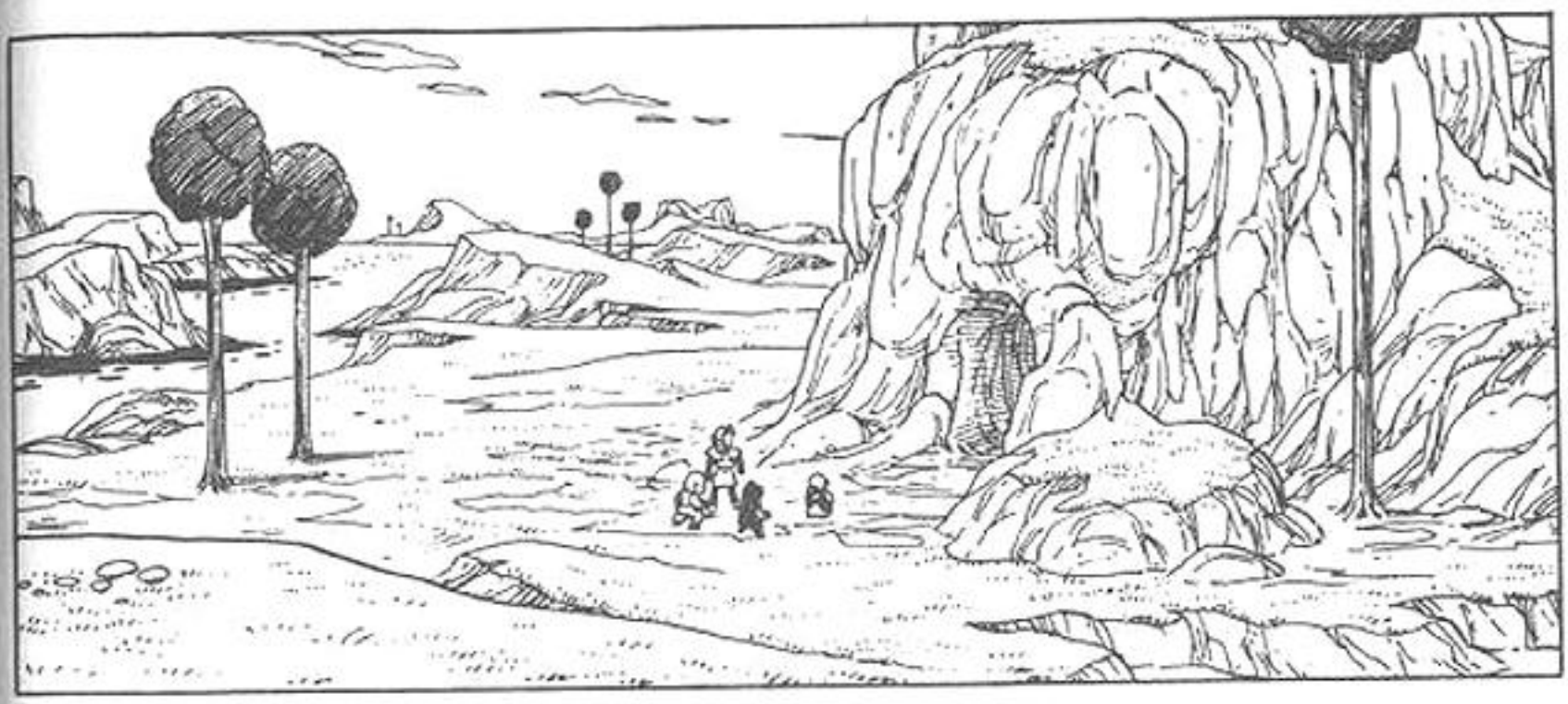
베지터가 이 다섯개를 노리고 온다면 허를 찔러 그 녀석의 두 개를 빼앗으면 7개가 모이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수고를 덜 수도 있겠지.

자, 우주선에서 천천히 기다릴까?

둥실…

휘이




최고장로라니…?


뭐!?
최고장로!?


어떻게라뇨…? 입으로 알을 낳아서….
혼자라니…. 너, 너희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지?


우, 우리 나메크성에 있는 모두를 낳아준 분이에요.
예전의 이상기후로 단 혼자만 살아남아, 또 다시 나메크성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나는 최고장로의 108번째 아이입니다….


그, 그럼 그 최고장로란 사람은 여자겠네….
아…, 그래…. 우, 우리와 다르구나….


뭐… 뭐라니….
나메크성인에도
2종류가 있지 않니?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빠랑
엄마….
예?
2종류?
그…,
글쎄….


여자…?
여자가
뭔데?


그, 그보다
왜 우리를
최고장로한테
데려가려는 건지
가르쳐줘!
정말
다행이다.
난 나메크성인이
아니라서….


드…,
들었냐!?
남자도 여자도
없대!
정말
웃기는
별이야…!
……


그, 그래….
아마
베지터란
놈한테….
이… 이젠
기가 하나도
없어….
전멸
당한
거야….


아…!
우, 우리 마을을
습격한 놈들은
이미 드래곤 볼을
4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 그리고
저쪽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렇다면….
이… 이 별에는
이제 나메크성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요…!

혹시 그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최고장로님이니!?

그… 그래…? 베지터가 습격한 마을의 드래곤 볼도 찾아냈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어, 어서 최고장로에게 알려야 하는데…!

기를 찾으면 이제 곧 최고장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 7개째의…, 마지막 드래곤 볼도 빼앗기게 된다구!

아, 안 돼! 프리더란 놈들은 스카우터가 없어졌지만, 베지터는 기를 찾는 능력을 익혔어!

아, 알았어. 조심해….

내가 따라갈게! 오반과 부르마는 여기서 기다려! 여러 명이 가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프리더건 베지터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생긴다!

아, 알았어! 어서 가자! 안내해다오.

걸어서…?

베지터에게 들키지 않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부, 부탁합니다!

그럼
너무 늦어!
베지터가
먼저 찾아낼
거라구!

30일!?

거…,
걸어서 간다면
30일 정도
걸리는데….

젖먹던
힘까지 내서
날자구!

가자….

들켜서
베지터가
접근해오면
다시 숨는
수밖에….

날아
가자….

하…,
할 수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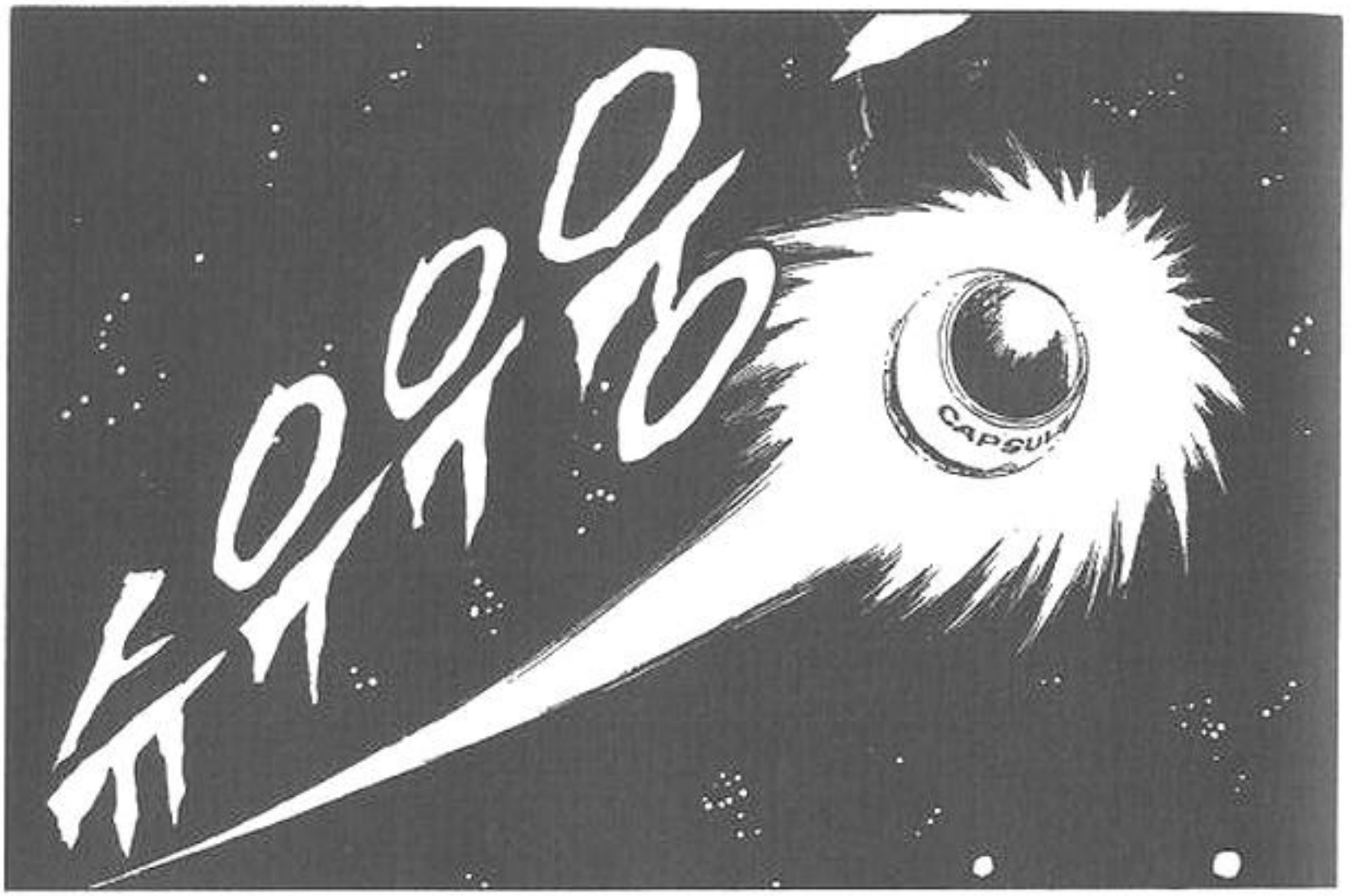
……

알겠지-!?
너희도
조심해-!

예이-!

휘이이


휘———————앙
어쨌든 최고장로가 갖고 있는 한 개의 드래곤 볼을 받아 오공이 올 때까지 남은 5일 반 동안 숨겨두는 거야…. 오공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베지터는 전보다 엄청나게 강해진 것 같아…. 그리고 프리더란 놈은 그보다 더 강한 기가 느껴졌어….
헤헤헤…. 기적을 기대하다니…. 이제 끝장인가….
쳇…. 난 장가 한번 못가보고 죽는 거네….
어떤 수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만은 오공도….


1000
CAPSULE


얍
!!




헉
헉
헉

푸우- !!

오공아!
들리느냐,
오공아….

?

조, 좋아!
됐어. 이제
20배의 중력에도
꽤 익숙해졌군
…!

그… 그럼
30배로
올려볼까… ?

허헉!
허헉!

워야~, 계왕님!
아무것도
몰랐어 ?

너, 대체 우주 같은 데서
무엇을…. 아, 그런가!
나메크성이야!
드래곤 볼을 찾으면
줄겠는데….

나메크성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구!

그, 그래.
난 계왕인데….
너, 넌 혹시
거기 우주
아니냐!?

아-!
이 목소린
계왕님!?

대단해!
이번 손님은
너보다 훨씬 빨리
뱀의 길을 통과해서
여기 도착했단다.
게다가 4명씩이나!

4명!?

손님…?
그게
어쨌다고?

엄청난 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실은 여기에 손님이
와있거든.

서,
설마…!

그렇다!
너도 아주 잘
알고 있는
4명이겠지만.

모두 네가
한 것보다
힘든 수련을
원하고 있는걸!

히히히히…!

다음은, 제261화 겁에 질린 계왕님


앙
쌔
그거 정말 대단하다!
다들 함께 모여서 계왕님한테 갔구나!
오공과 얘기할 수 있나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면 돼.

4명이라고 했지? 아무쳐, 천진반…, 혹시 피콜로도 있니?

그래, 피콜로도 있어!

너희들, 피콜로의 고향별에 가서 드래곤 볼을 찾아주겠다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저승에서 죽은 신님을 만났는데, 이곳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

오공, 잘 들리니?

아냐, 신님은 저승에 남아계셔. 차오즈야.

차오즈!?

나머지 한 사람은…, 신님인가!?

너만 강해지는 건 내 존심이 용서 못하지.

흥!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뛸 수도 없어.

이곳 중력은 그보다 진짜 질린다.

헤헤헤….

그래, 신님이 여기서 수련받게 하려고 특별히 재생시켜 주셨나봐.

차오즈는 시체가 엉망이 됐었는데, 괜찮은 거야!?

우와! 그거 잘됐다!

나야 충분히 알지. 나는 지금 그 드래곤 볼이 있는 나메크성이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더더욱 엄청난 중력에서 수련을 시작했거든.

남은 5일 반 동안에 훨씬 더 강해지지 않으면 큰일나니까.

뭐!? 왜, 무슨 일 있었나?

야기 좀 해봐….

그러고 보니 아까도 그 얘길 했었지.

내가 큰 부상을 당해서 크리링과 부르마, 오반이 드래곤 볼을 찾으러 나메크성으로 갔거든….

그런데 거기에는 그 베지터란 사이어인도 드래곤 볼을 찾으러 와있어….

뭐야!?

그, 그래서 그놈에게 당한 거니!?

아니! 아직 베지터는 크리링 애들에 대해 눈치 못챈 것 같은데, 곧 알겠지…. 모든 게 나 때문이야…. 그때 내가 크리링이 죽이는 걸 말렸기 때문에….

게다가 지구로 돌아오려 해도 우주선이 망가져 버린 것 같고….

또다른 수상한 놈들도 드래곤 볼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그놈들 모습은 베지터와 비슷하대…. 더구나 그 중 한명은 베지터의 기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걸….

그뿐만이 아니야. 더 믿을 수 없는 게….

뭐야!?

아니!

호…, 혹시 그놈 이름이 프리더 아니래…?

글쎄, 그건 못들었지만 알게 되면 가르쳐 줄게….

뭐야? 무슨 일 있었니?

저… 저 손오공조차 쪽을 못쓰던 베지터보다….

……

마…, 만약에 프리더라면 큰일이다….


나… 나메크 성의 방향은…
야무치!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내… 내가 나메크성을 조사해 줄게….
정말!? 부탁해!
삐삑
욱!
부, 분명 엄청난 기가 느껴진다….
이… 이 기가 나오는 곳을 찾아볼까….
삐…
삐..삐….




도저히 개길 만한 상대가 아냐…. 저, 절대 그놈은 건드리지 마라….
오, 오공아…. 이, 이번 상대는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이라구….


프, 프리더 … !!
아니, 계왕님도 아는 놈이야!?


그놈한테 접근하지 마! 나메크성에 가면 3사람을 싣고 바로 탈출해! 알았지!?
오공아, 내 말 들어! 이건 명령이다!


그… 그게 뭔 소리야…?
뭐…?

어정쩡하게 공격했다가 그놈 성질을 건드리면 엄청난 일이 터진다구…! 그놈만은 그냥 혼자 놀게 놔두는 수밖에 없어…!

너만 걱정돼서 하는 얘기가 아냐! 지구나 나메크성, 그밖의 다른 별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절대로 건들지 마! 알았지!?

그, 그렇게 대단한 놈인가…?

틱

여기서 네놈보다 강해져서 나메크성으로 갈게. 우리가 함께 그 뭔가 하는 미친 놈을 박살내주자구!

오공, 반드시 드래곤 볼을 모아서 우릴 되살려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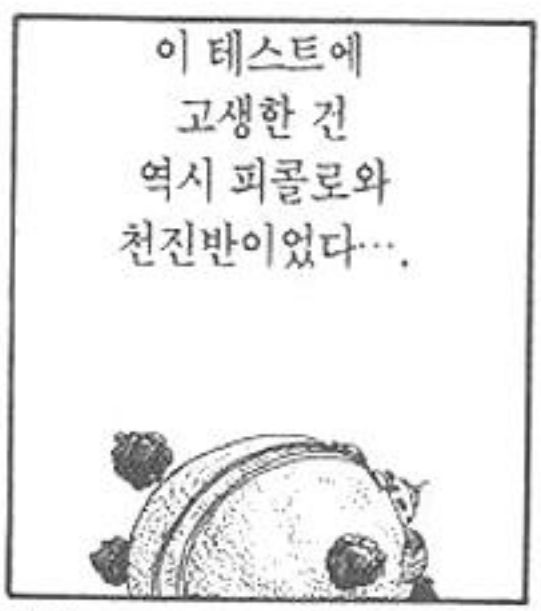
좀 보고 싶네….


프리더와 싸울 각오라면 못가르쳐 준다…!
약속해라! 나메크성에는 안 간다고!
알았어….


바, 바보 같은 소리 마! 너희들은 프리더를 전혀 몰라서 그래…!
시간이 없어.
어서 수련이나 시켜줘!


크크큭! 내가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지킬 줄 아냐….
조…, 좋아…. 한 번 믿어보마….
지…, 진짜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수련을 시켜주마!
좋아-! 그럼 나를 배꼽 잡게 웃겨봐!


이 테스트에 고생한 건 역시 피콜로와 천진반이었다….


엑!?


수련의 요점만을 빨리 배워서, 내 나름대로 기술을 갈고 닦을 수밖에….
오공과 같은 수련을 해서는 그 녀석을 능가할 수 없어….
옛날 같은 허약한 모습과는 이제 안녕이다….

비록 싸우지 않는다 해도…, 강해져서 손해볼 건 없지!

헤헤….

그리고 그 나메크성에서는….

좋아-! 단숨에 50배의 중력에서 해보자!

CAPSULE

야, 이 상태로 날아가면 최고장로 님한테 언제쯤 도착하니?

아, 앞으로 5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후우~! 5시간….
저 녀석을 안고 날아가면 빨리 가서 좋겠지만, 지금 너무 에너지를 쓰면 나중에 힘들 테니까….
제길…! 여러 파워가 모여 있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마을은 없나!?
!
끼익

이상하네…? 그 중 하나는 나메크성인이나 프리더놈들과는 느낌이 달라….

두 개의 파워가 움직이고 있다….

신경 쓰이는걸….

확인해 볼까!

!!

머, 멈춰! 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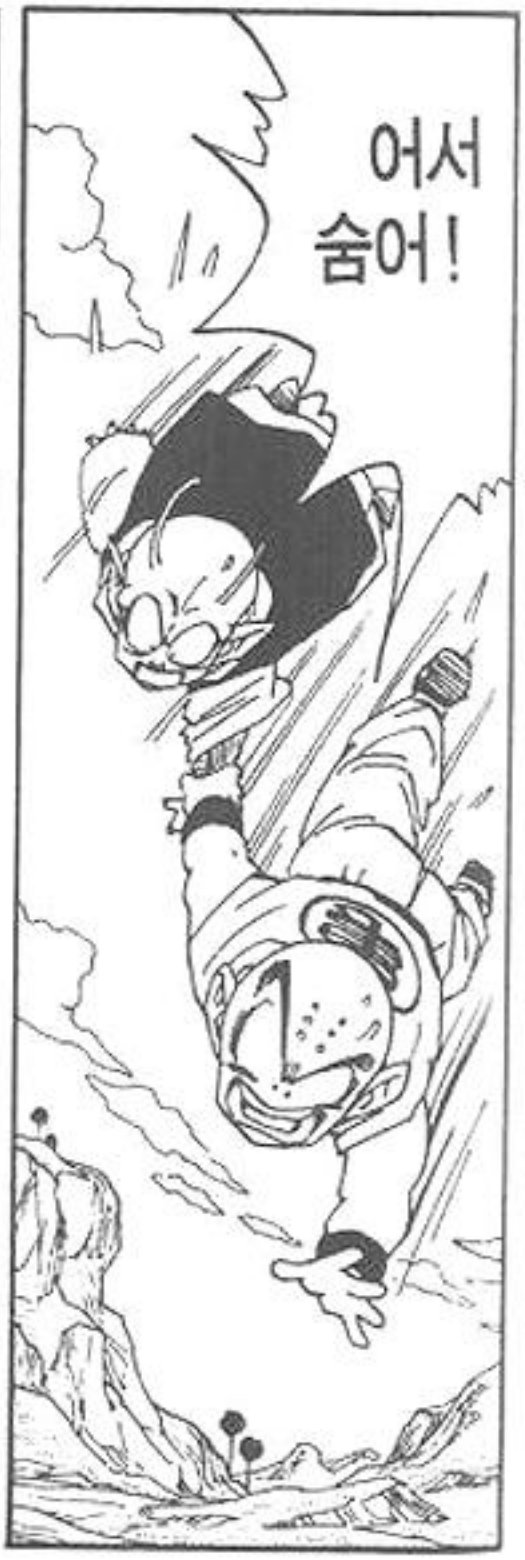
예!?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곧장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베, 베지터다…. 역시 눈치챘어!


기이이이잉


!?


어서
숨어!


방향을
바꿨네….
?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어라…!?


또 하나의
기가…,
그놈 쪽으로
가고
있어!!
!!

이쪽 파워는 따봉이다!
틀림없어! 크크큭….
단독으로 행동하길
기다리고 있었지!

쒸아!

쒸이이이







다음은, 제262화 베지터와 따봉

네, 네놈이 도도리아를 처치했다고… !?

크크큭…, 그것도 단숨에….

베지터…, 너 왜 프리더 님한테 반항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붙어 보면 알게 돼. 벼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미…, 믿을 수 없어….

지금까지는 놈의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엉뚱한 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난 전부터 그 프리더란 놈이 맘에 안 들었어. 자존심 강한 사이어인은 남한테 명령 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거든….

이유야 간단하다….

드래곤 볼 말이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만 얻는다면 프리더를 꺾을 기회가 반드시 온다!

프리더 따위에게 양보할 수는 없지…!

프리더 님의 실력은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상태야….

크크큭…. 너야말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구나….

엉청한 놈…! 영원한 생명으로 프리더 님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크크큭…. 스카우터가 없어서 섭섭한걸. 나는 많은 실전을 통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워가 강해졌다.

도도리아한테 들었다! 프리더는 사이어인을 두려워 한다는 얘길! 그 사이어인의 파워를 이제 뚝뚝히 보여주마!

쓸데없는 허풍을 떠시는군…. 수다는 그만 떨자구!

글쎄, 그럴까…?

프리더 님이 두려워한 건 떼를 지어 단결한 사이어인이야! 겨우 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구!

놀구 있네…!

!!

휘릭


불끈
파팟
부웅
타앗!!
크…
ㅇㅇ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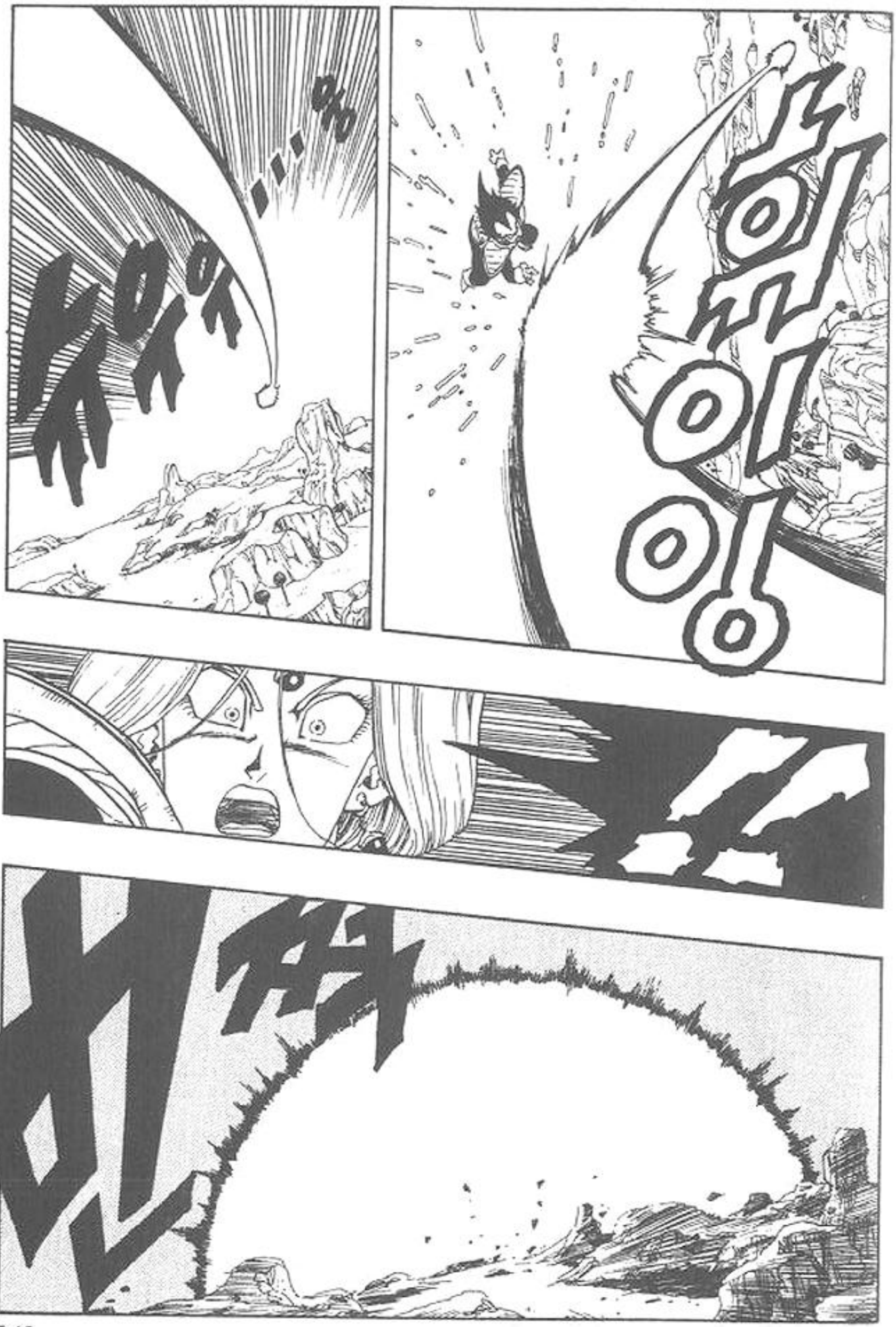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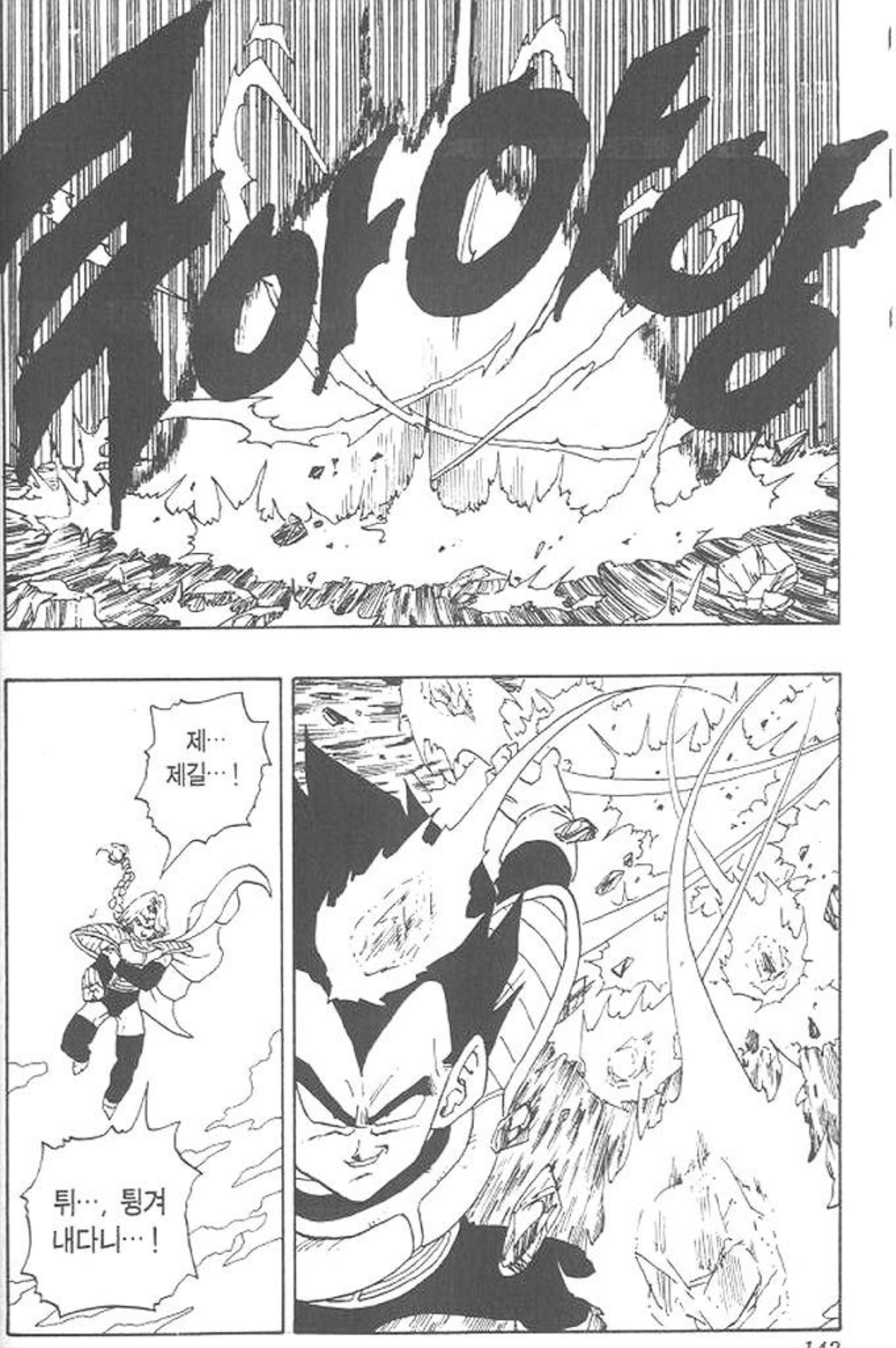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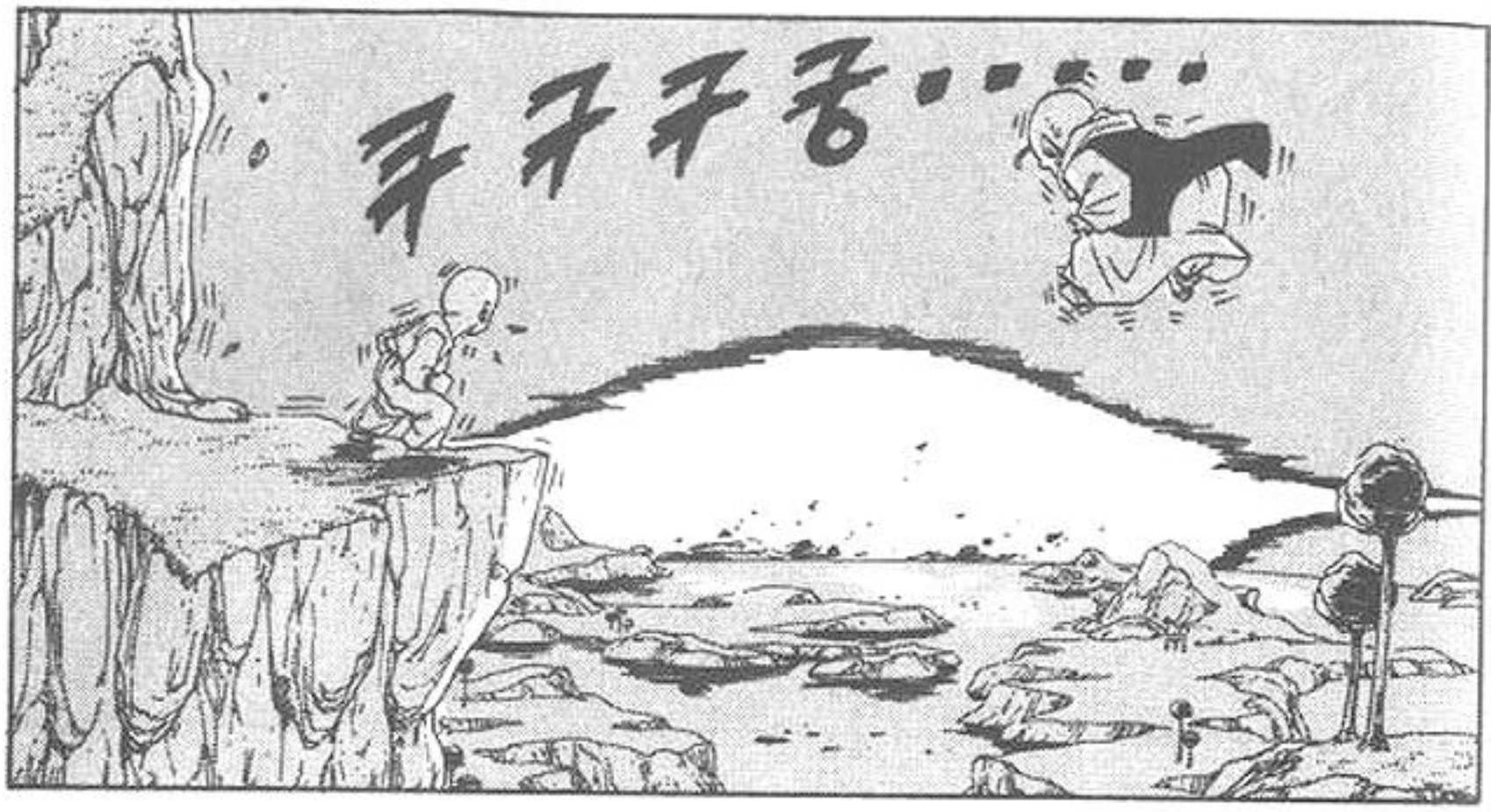



이야아
야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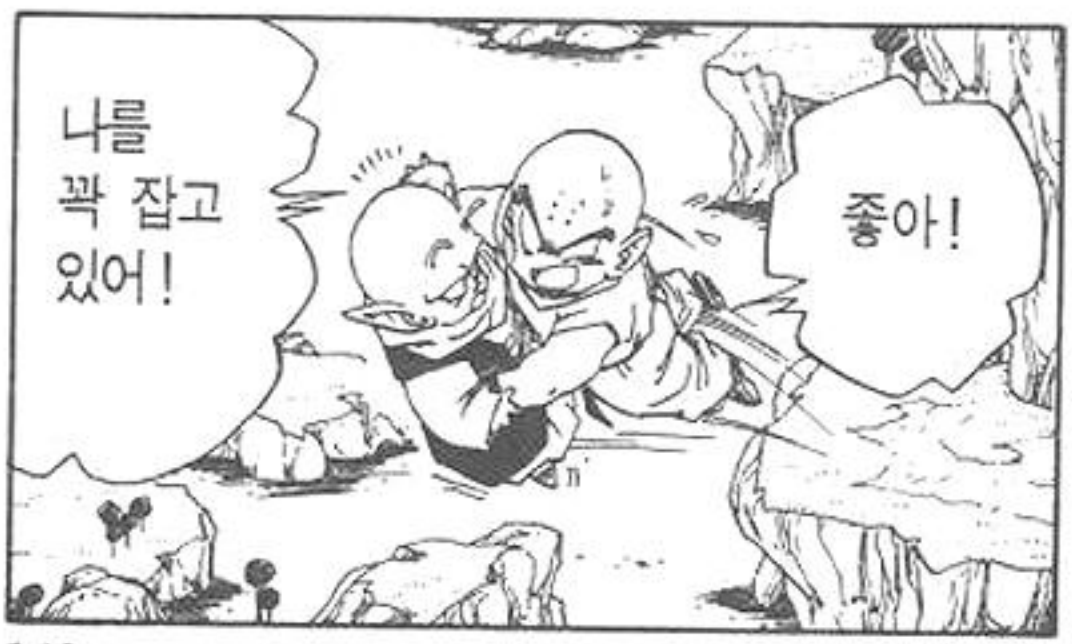

퍼억


!!!
0
0
0


제…
제길…!
튀…, 튕겨
내다니…!


크크크궁……


사…, 상대는 아마 그 프리더란 놈의 부하겠지…. 두…, 둘 다 무식한 괴물들이네….
우와아 아아….
무시무시한 기와 기가 충돌했어…! 베지터가 누구랑 싸우고 있나봐!
크으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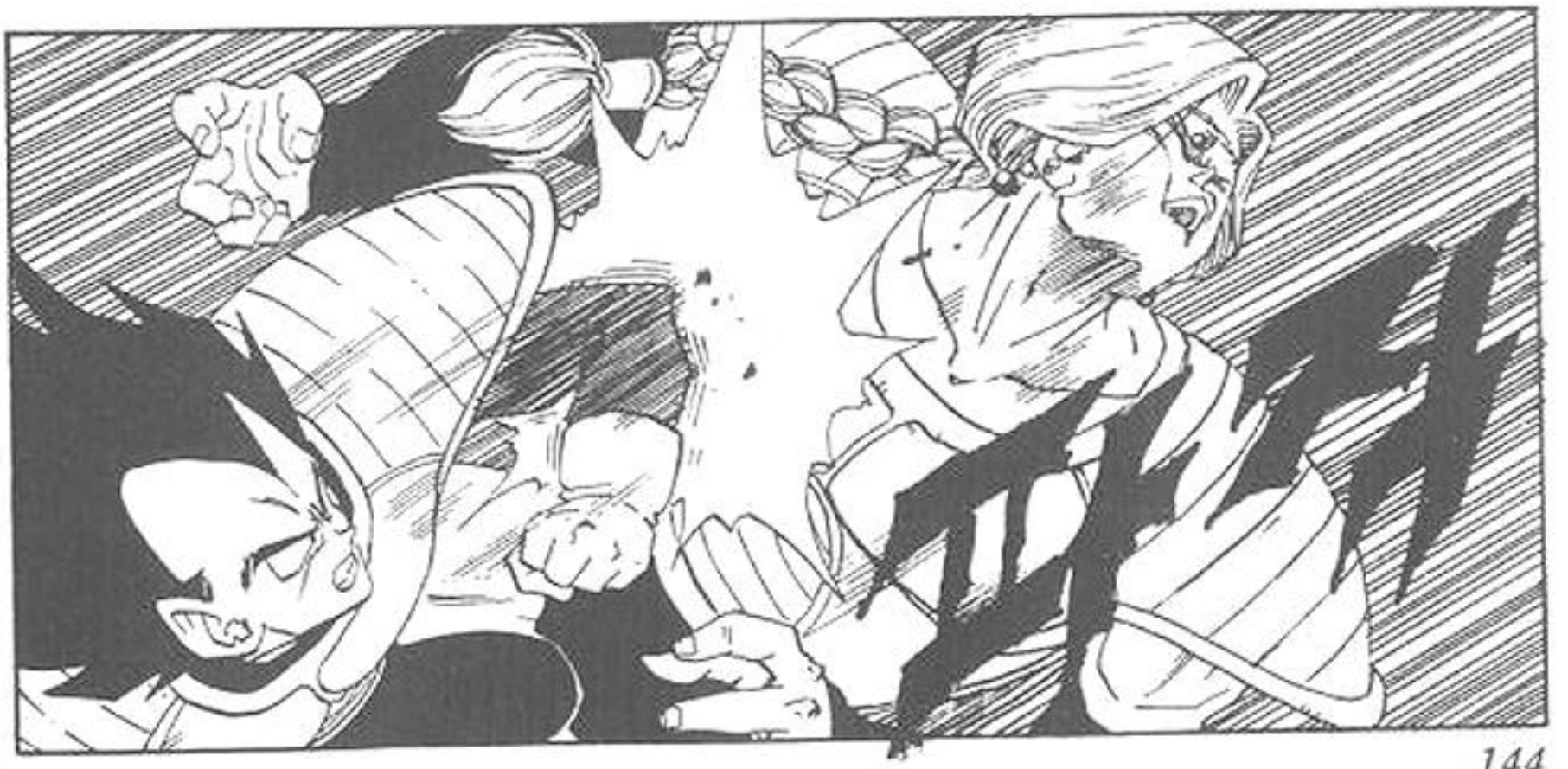

나를 꽉 잡고 있어!
좋아!


두…, 둘이 서로 싸우다 함께 박살나길 바랄 뿐….
나… 나 같은 건 도저히 영함도 못내밀 겠는걸.

내가 힘껏 날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어!

찬스다! 놈들이 싸우는 동안 최고장로한테 빨리 가는 거야!





파바바바

으으

슈슈슈슈

으하하하!
따봉 님께서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동작이
굼벵이처럼
늦어!!

퍼엉


우가아아…!
쿡!!
앗!!









다음은, 제263화 따봉의 숨겨진 힘

내가 너의
오랜 동안 잠자고
있던 진짜 힘을
깨워버렸다고?

뭐!?

호오….

크흐흐.

그렇다
….

으하하
하하!!

농담도
잘하셔!
하하하
…!!

진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변신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변신한 모습은
너무도 추해….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나는 그게 너무나
싫지만,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변신을 택하겠다….

왜 진짜 힘을
쓰지 않고 잠재워
뒀는지 네가
죽기 전에
가르쳐 주마….

으하하하!
궁지에 몰리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구만!

우리
사이어인
처럼!?

변신
이라고라!?

어디
한 번
보여
주셔….

크크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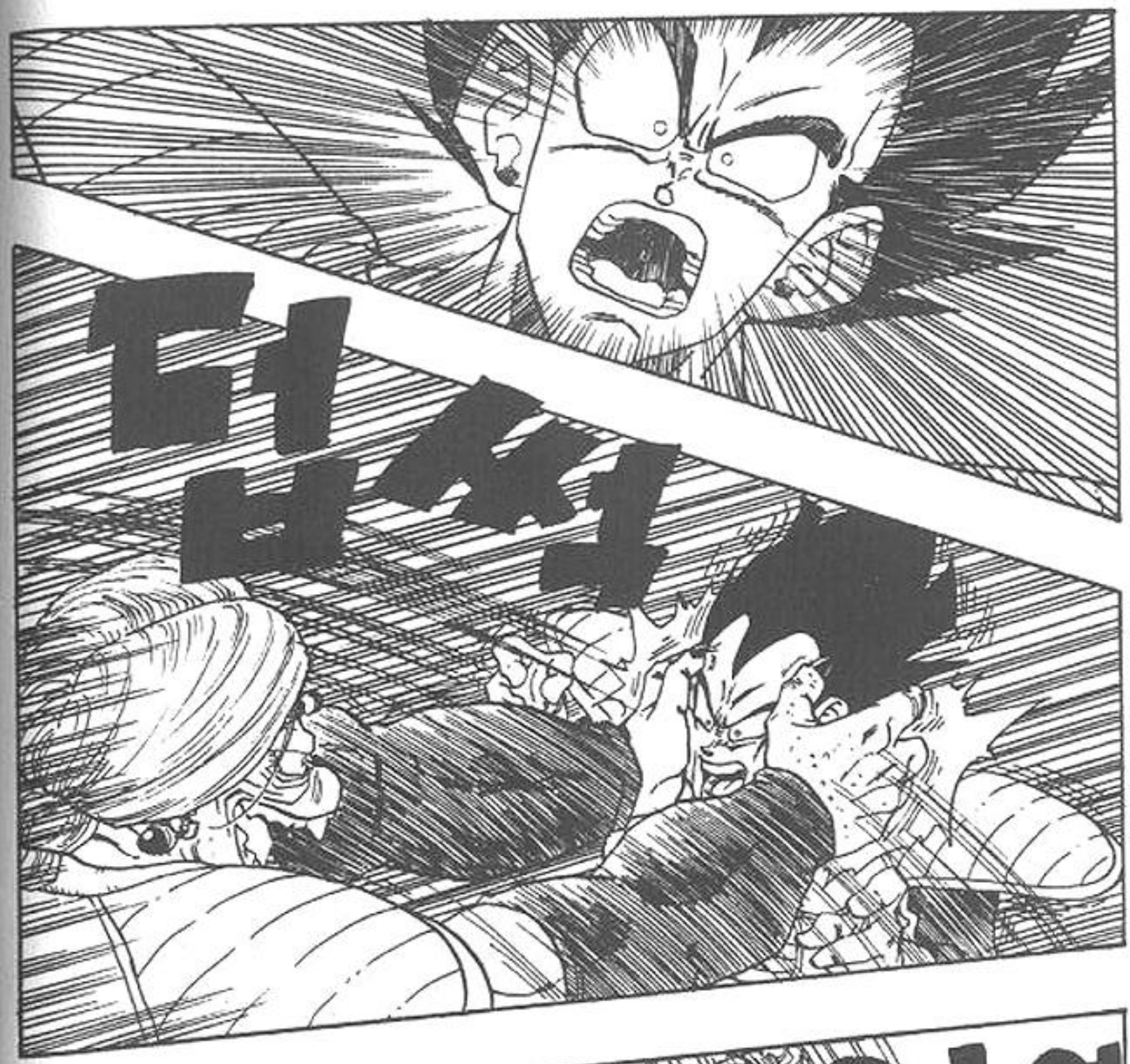
다만 파워가
증가할 뿐이지!
그것도
압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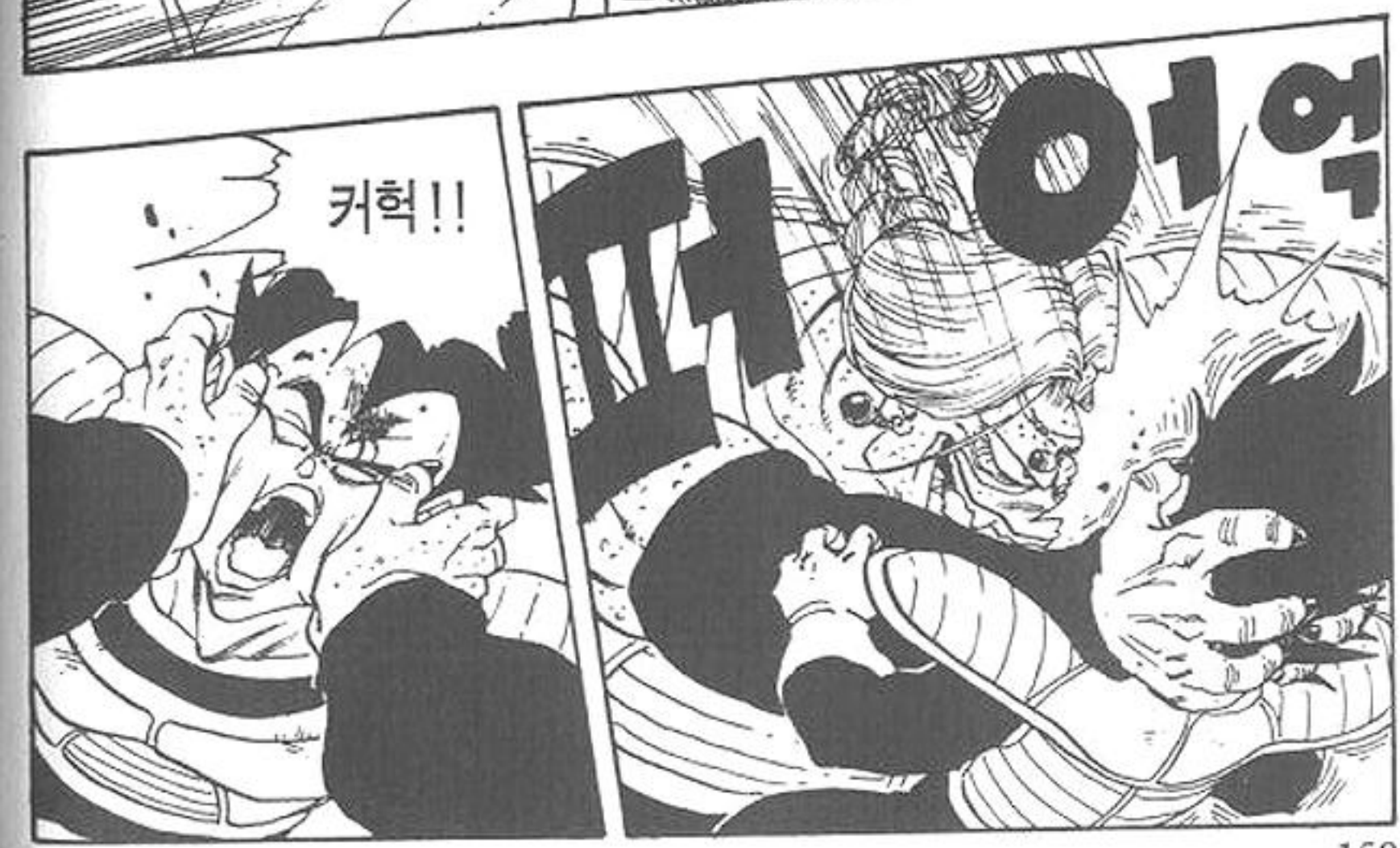
사이어인의
원숭이처럼
쓸데없이 크게
변신하진
않는다….

안 그래도
지금 보여
줄 테다….




ゴキン


다시


커헉!!
끼익


크윽!!
큭…!
이야아
아앗
—!!


하아아
아아압－！


파팡
파직
끼끽
끼아
……!
허억
허억

이…
이럴 수가…!
따봉이…!

후후….
나도 변신형 우주인
이란 걸 알더니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나
보군….

정말 엄청난
착각을 하셨구만.
네놈이 모처럼
파워를 늘렸는데
다시 역전
당했으니 말야….

아참!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저승길
선물로 가르쳐
주마….

큭…!

프리더 님도 변신형
우주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뭐야…!!

나도
못이기는 놈이
프리더 님을
당해낼 수
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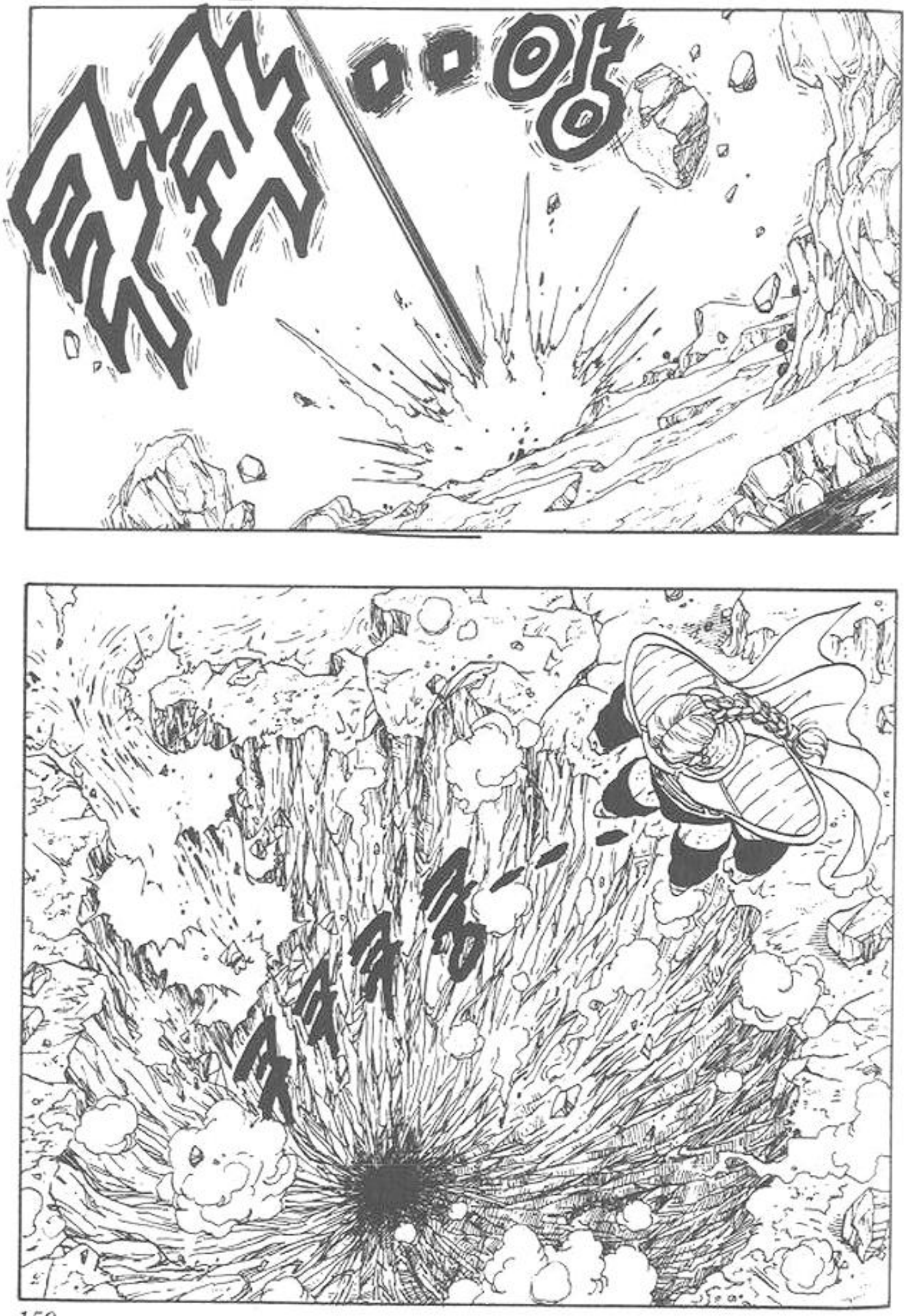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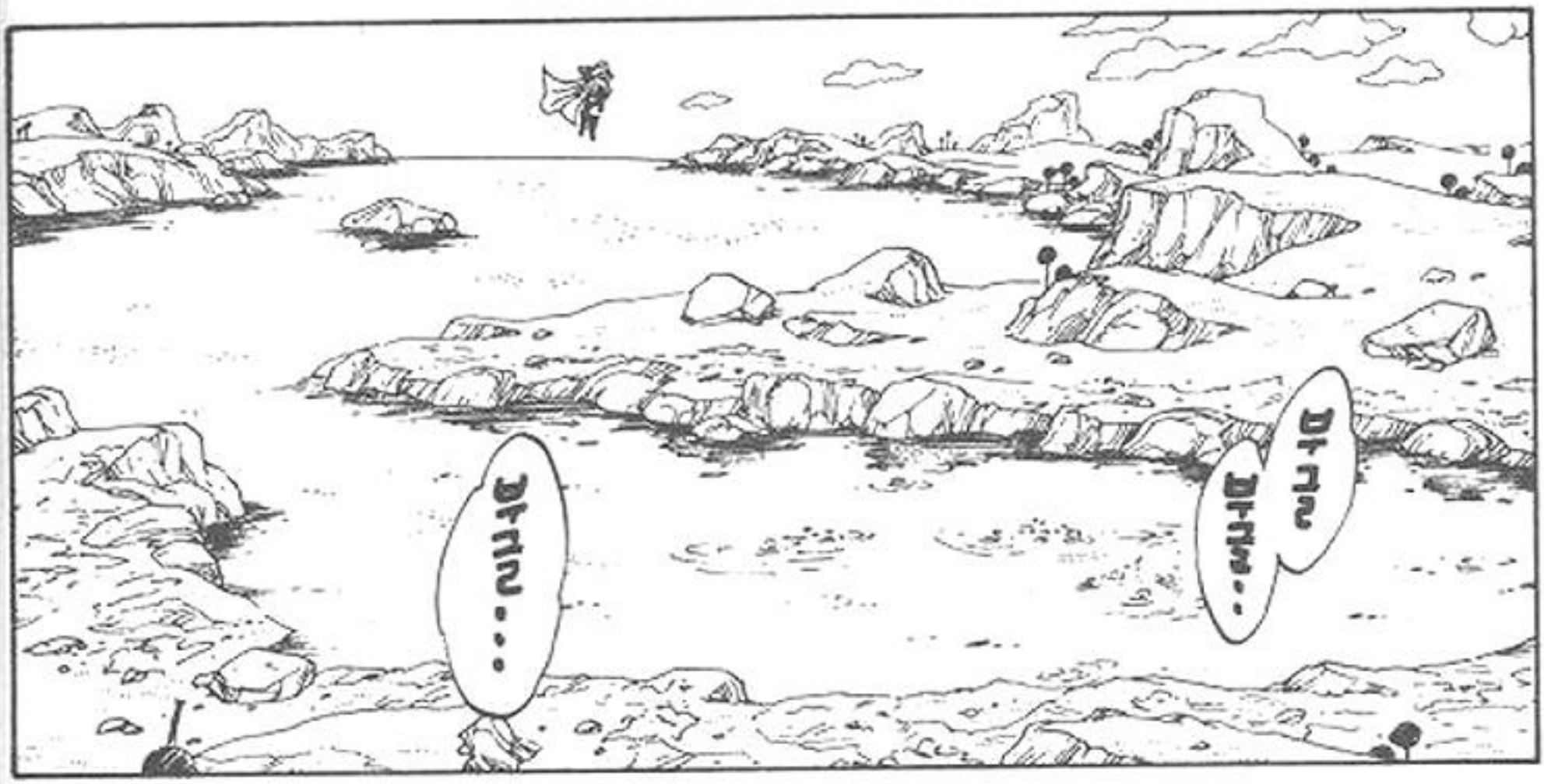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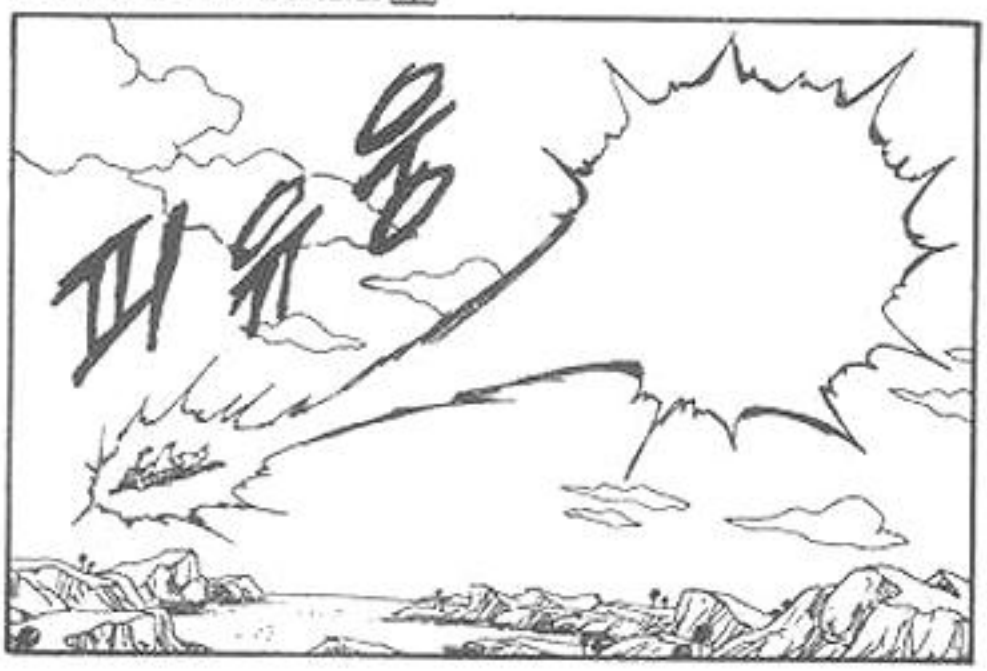



욱!!
큭!!
으아아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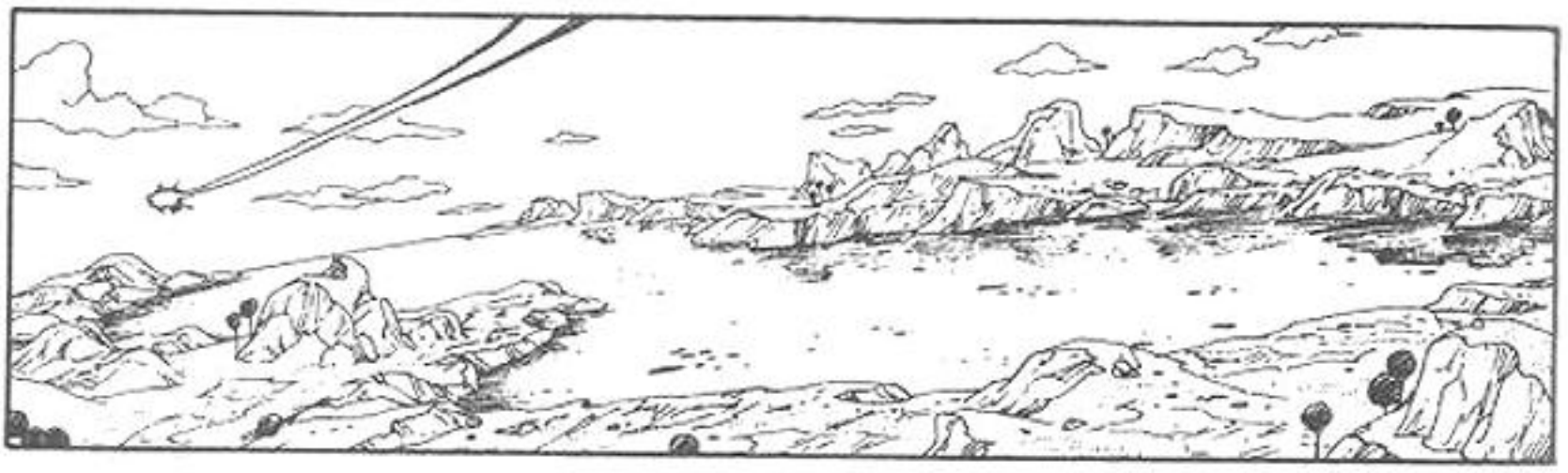




ㅂㅜㄱㄹ
ㅂㅜㄱㄹ…
ㅂㅜㄱㄹ…
모습이 안 보이네….
죽었나…?
…….
낄낄낄…. 아무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익사했나 보군.
파야
만약 살아있다고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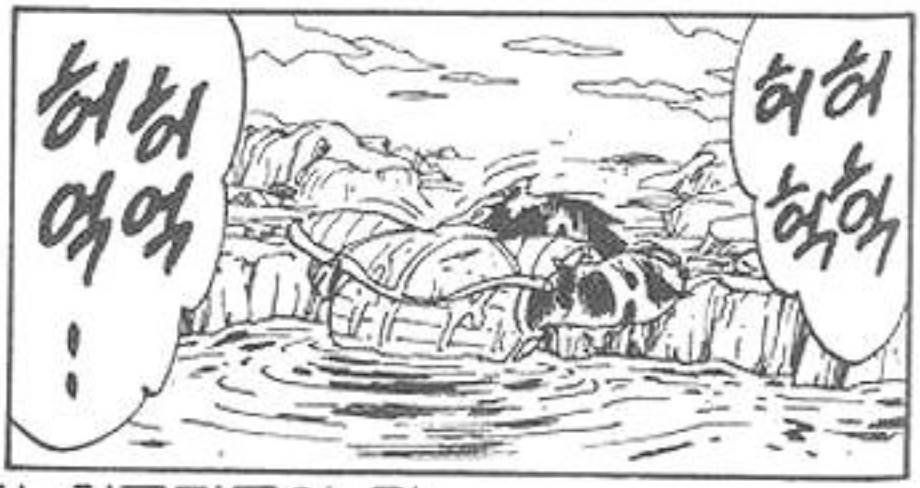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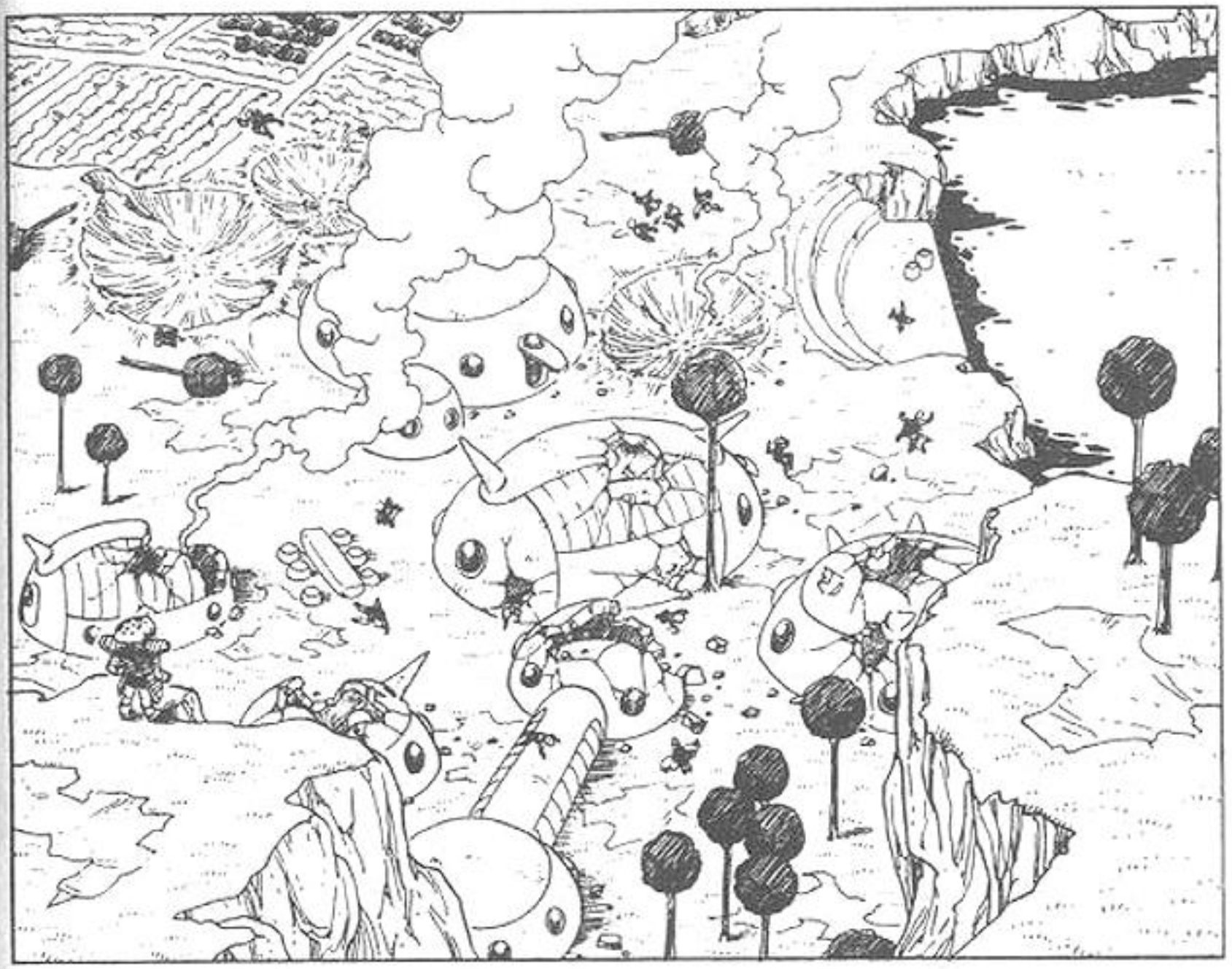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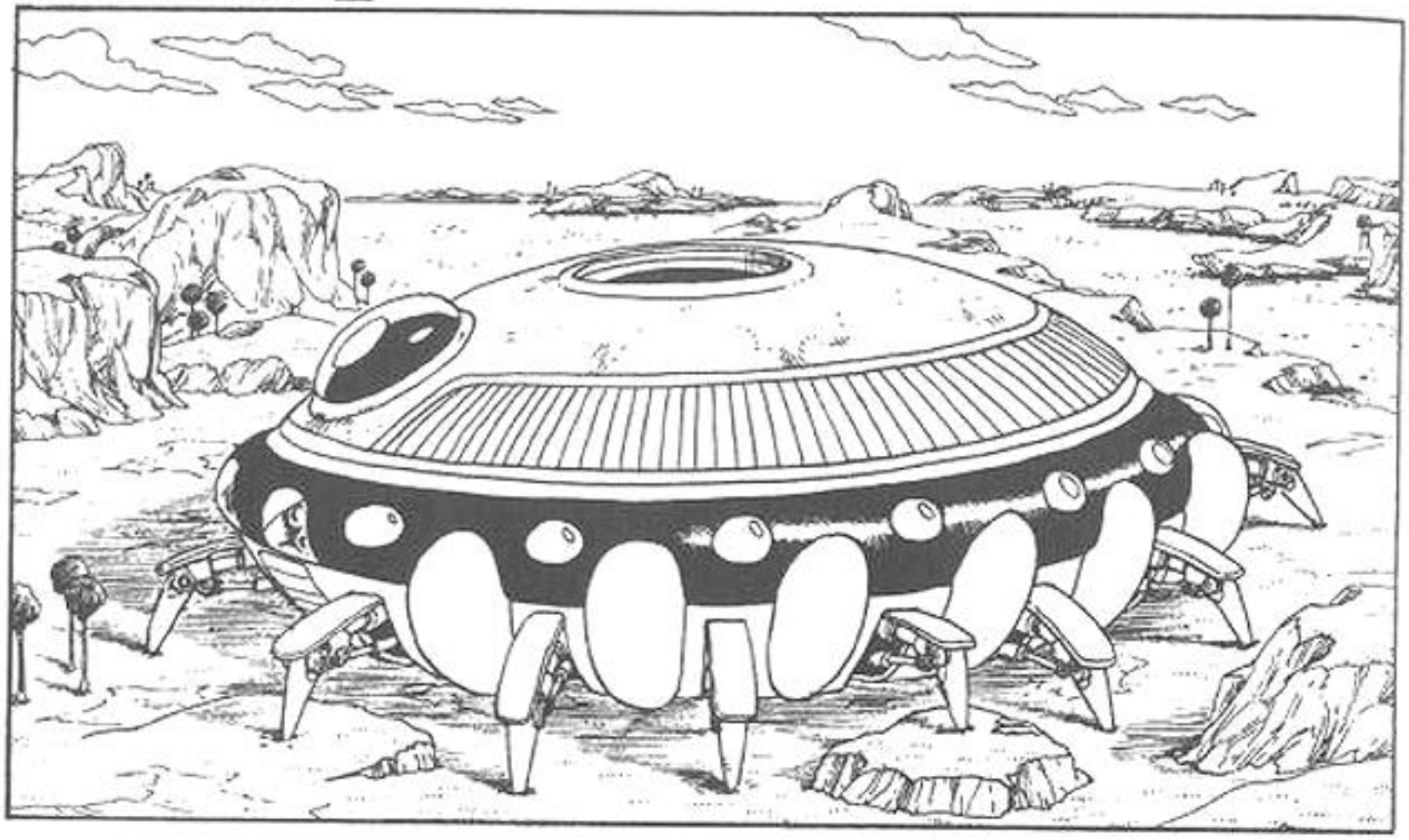
다음은, 제264화 최고장로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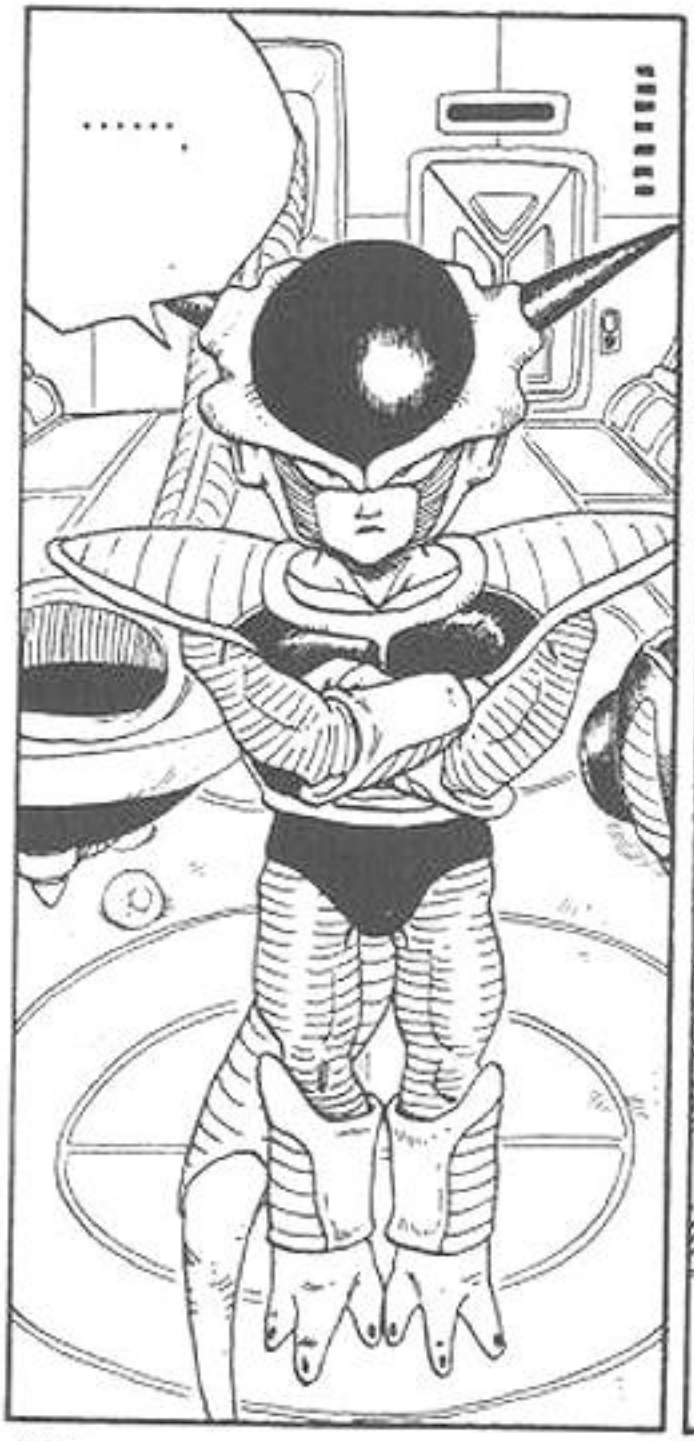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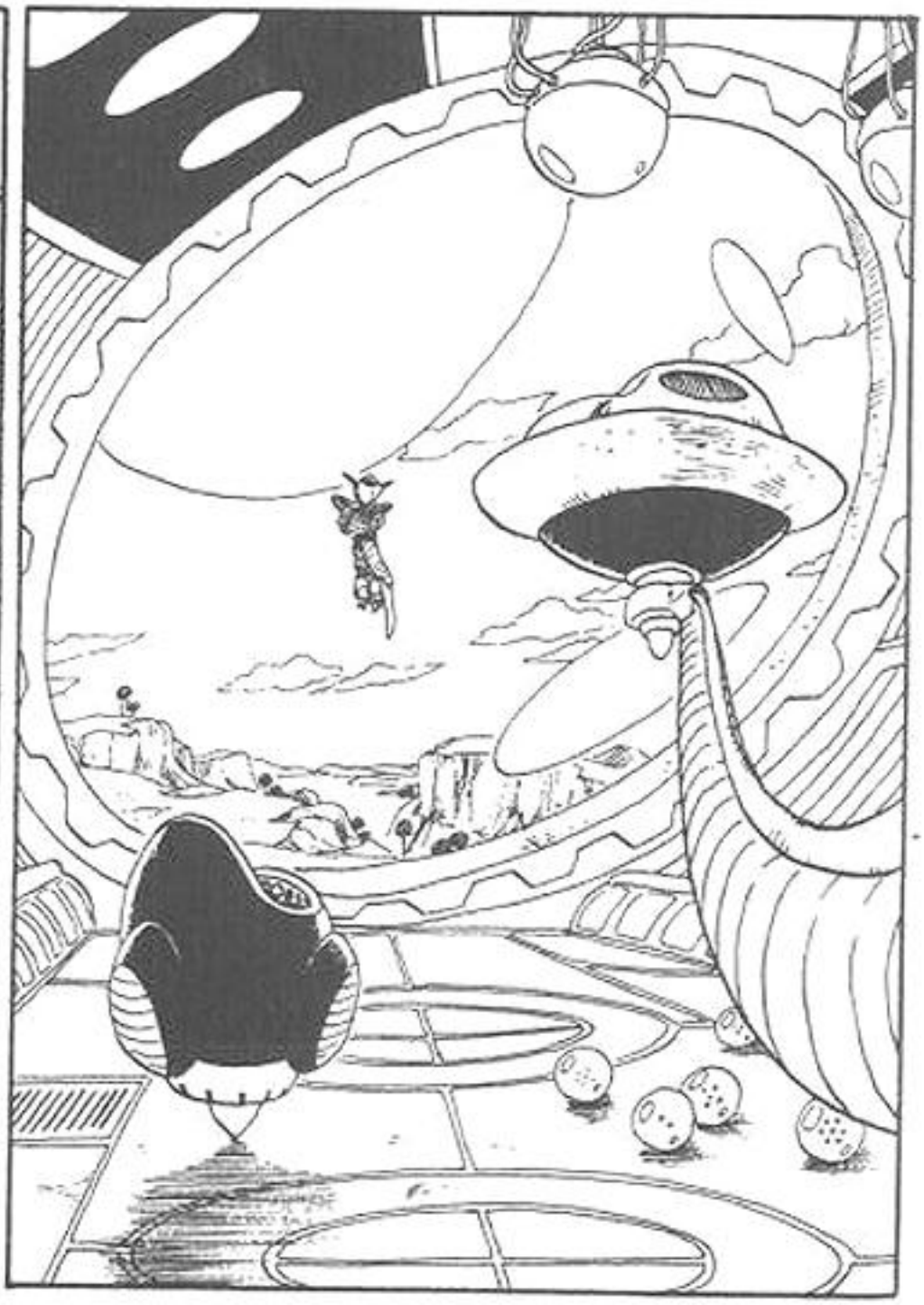

베…
베지터의
짓이다!
프리더 님께
보고
해야겠다….


이…
이럴
수가…!
우리가 아직
손대지 않은
마을이 전멸
당하다니….


파바바








들어 오세요.
탁
마을은 찾아냈나요?
워이…잉
그럼…, 베지터는 죽었나요?
호오…, 그래요? 그럼 따봉 씨가 오랜만에 변신했겠군요?
베지터 놈을 처치하고 왔습니다….
왜 확인하고 오지 않았나요?
아뇨, 시체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살아있다 해도 상당한 중상을 입었을 겁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러….

죄, 죄송합니다….

물에 잠수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몸이 젖는 게 싫어서 확인을 게을리 했죠….

그… 그건 베지터가 물에 빠져서….

예?

그, 그러나 그 마을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프리더 님! 마을을,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제, 제길~! 어, 어딘가에 숨겨놓았나…!?

노…, 놈은 드래곤 볼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호, 혹시 베지터가!

이번엔 살아 있는 게 더 낫겠군요!

따봉 씨, 즉시 베지터를 이리 끌고 오세요!

그리고 아플!
당신은 혹성 프리더에
연락해서 기뉴 특전대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물론 스카우터를 가지고
오도록 얘기하고!

5일 정도면
도착하겠죠!

예, 옛!

예!?

프,
프리더 님.
왜, 왜 기뉴
특전대
따위를…!?

죄,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을
부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묘한
예감이
듭니다….

예…
예감
이라면…?

좀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어쩌면…, 강력한 사이어인이
자라나 마침내는 적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베지터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빨리 베지터를 끌고 오시죠….

내 예감이 틀리기라도 했단 건가요…?

아, 예!

베지터 이외엔 지난 번 그 지구라는 별에 있는 어떤 놈과 그 자식뿐….

그… 그 리가 지니 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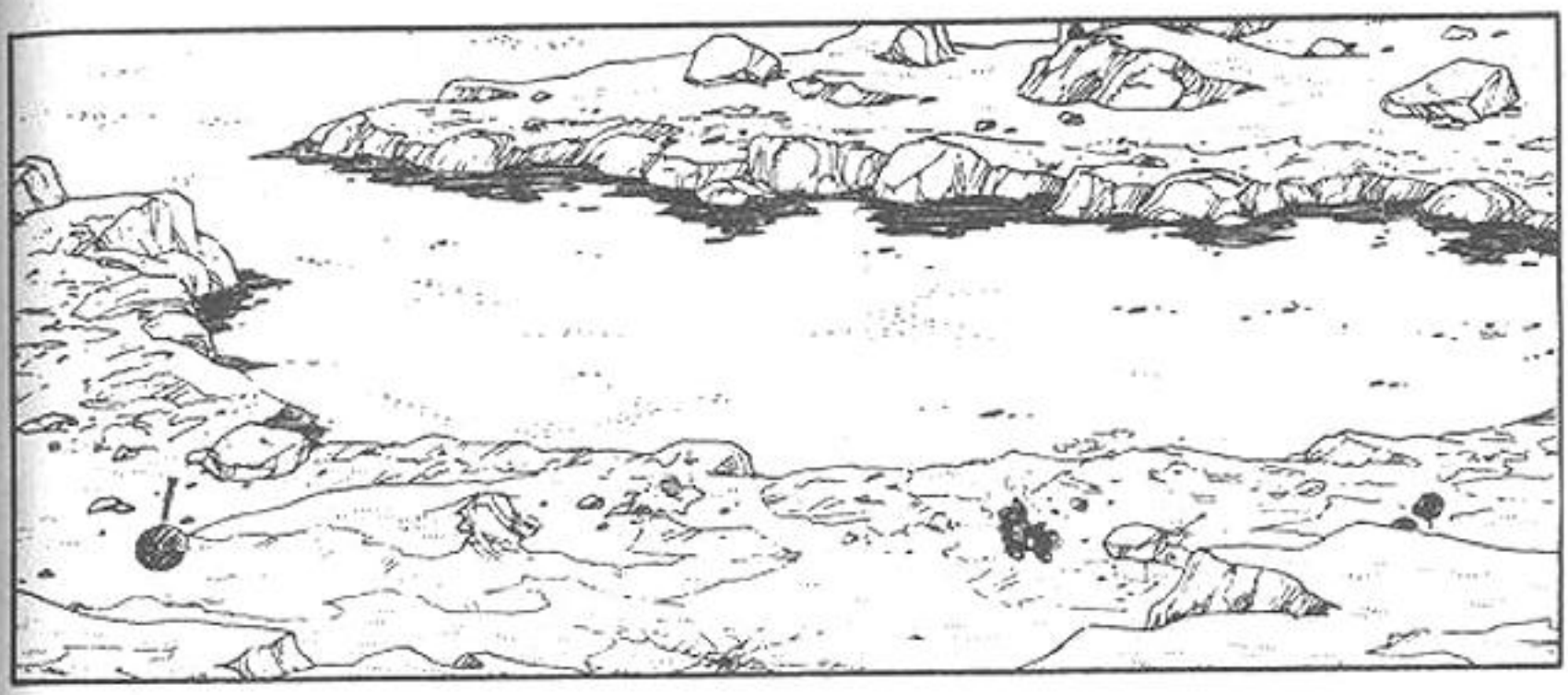
그놈들은 베지터보다 전투력이 상당히 낮을 텐데요.

퓨 웅

물론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싹을 꺾어버려야 해….

사이어인은 역시 한계를 알 수 없는 전투력을 숨기고 있는 것 같군…. 전투를 거듭할수록 크게 향상된다…

초사이어인이 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도저히…
덜컥
주… 죽을
수는…
없어…
우우…
욱…
제…
제길…
우욱…


이…
이런…!
타닥
앗!?
씨-
잉
가…
기뉴
득전대래니…

운이 좋은 놈이야. 드래곤 볼을 숨긴 장소를 불게 만들기 위해 치료를 해줘야겠다….

뭐, 그 이후에 대해선 나도 모르지만….

하긴, 어쨌든 그 덕분에 이번만은 다행이지만….

아직 살아 있다니…. 정말 지독한 놈이군….

팟

허억

오공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으며 아직 수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허억

나메크 성은 3개의 태양 때문에 해가 저무는 일이 없다….



크윽!!
휘익
파아
파
타닥
파바바바바
파바
으, 읏차…!

하…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50배의 중력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베… 베지터와의 결투도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허헉! 허헉! 허헉!

이… 이제 한계야…! 조…, 좀 쉬자…!

덜컥…

쿨—

쿨—

쿨—

깜박!

쿨—

쿨—

얘, 얘야! 일어나! 덴데! 일어나라구!

네가 안내 해주지 않으면 최고장로한테 갈 수 없잖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정신차려!
넌 편하게
가는 주제에…!

미…
미안해요….

어느
쪽이지!?
이대로 쭉
가면 되니!?

저기여요!
저기!
저 높은
바위 위에…!

그래!?

저기…,
좀더
왼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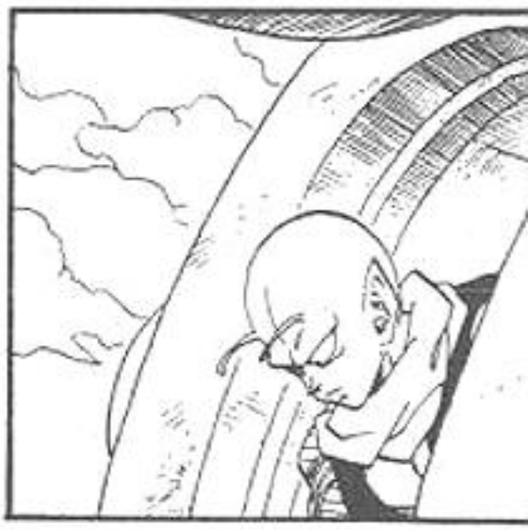
저거니!?


엄청
그렇지
눈에
있으면
시
최고장로님은
저 집안에…!


윈이이---앙


설마 벌써
당한 건
아닐 테지…?
예…!?
서,
설마…


다행이네…!
무사
하셨군요!
네일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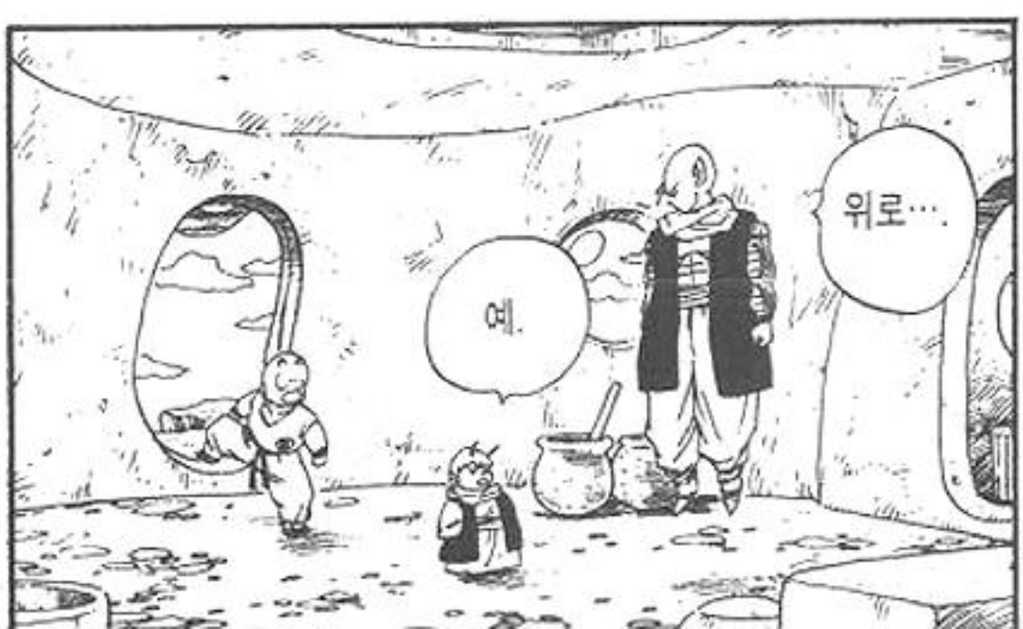

여, 역시 최고장로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기…, 깊게 설명 안 해서 다행이네….
그런데, 피콜로랑 꼭 닮았어…


잘 왔다, 덴데.
최고 장로님은 대충 사정을 알고 계시다….


둘 다 안으로 들어가. 최고장로님을 만나라….
저… 저…, 대강 사정을 아신다면 왜 여길 안 떠나신 거죠…!?


대단한 실력자네. 저 사람….
그… 그 정도까지 일 줄이야….
다른 나메크 성인과 비교해서 저 사람만 대단한 파워가 느껴져….


최고장로님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수명이 다하셨다는 걸 느끼고 계셔….
여기에 몰래 머무시며 내가 지켜 드릴 수밖에 없지.


위로….
예.

우와…,
크다….

최고장로님,
덴더와
손님입니다.

잘 오셨소….
당신은 지구인이군요.
우선 우리 덴더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뇨.
별로 큰일을
한 건 아닙
니다만….

표지 페이지 대특집X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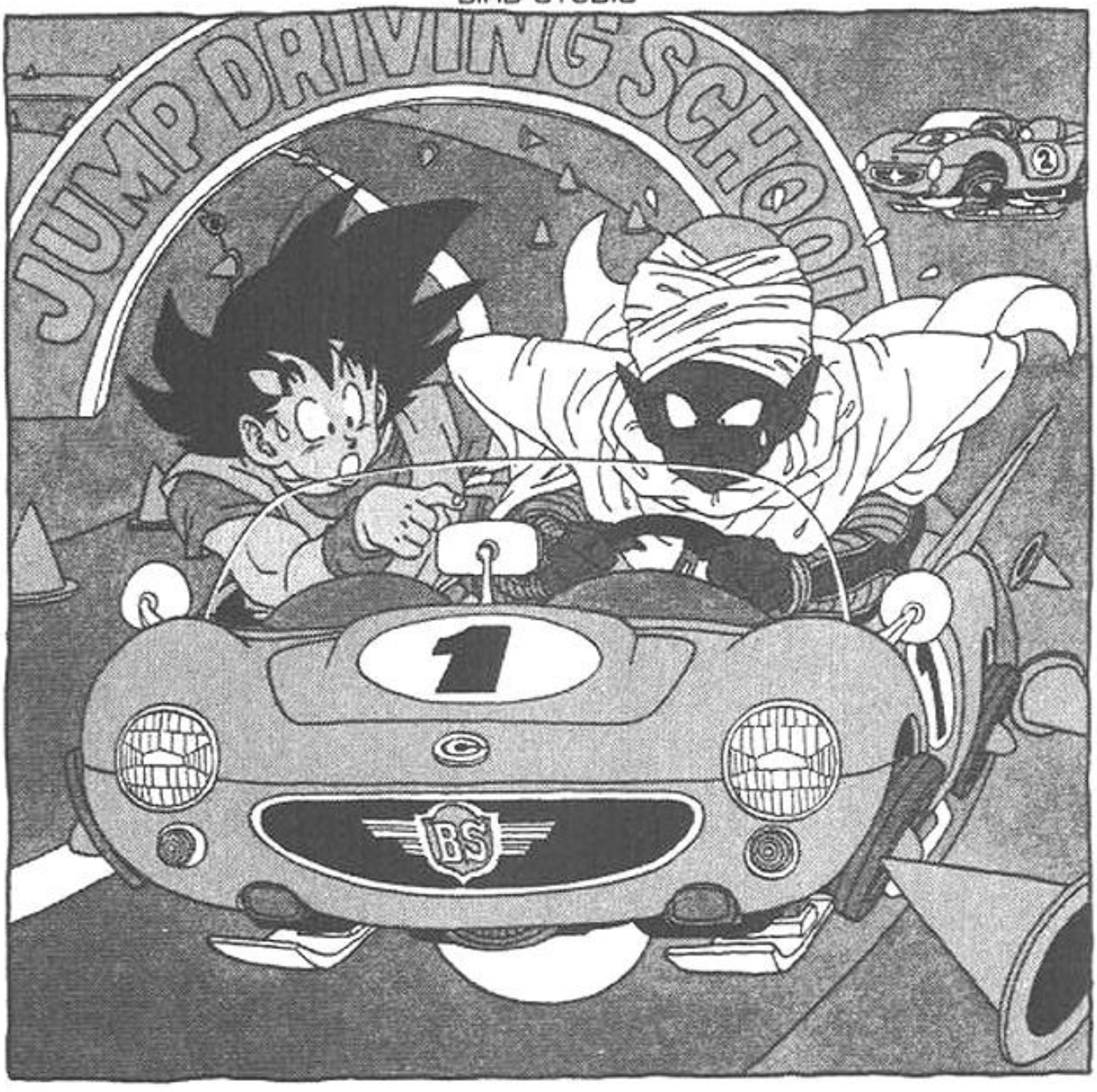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최고장로!
크리링과 오반은 최후의 드래곤 볼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오공이여, 서둘러라!! 급전개의 23권,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다!! …그 전에 소년 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다!!
제발 봐줘~!!

DRAGON BALL

드래곤볼

鳥山明
BIRD STUDIO

제255화 손오반의 돌변!!



DRAGON BALL

드래곤볼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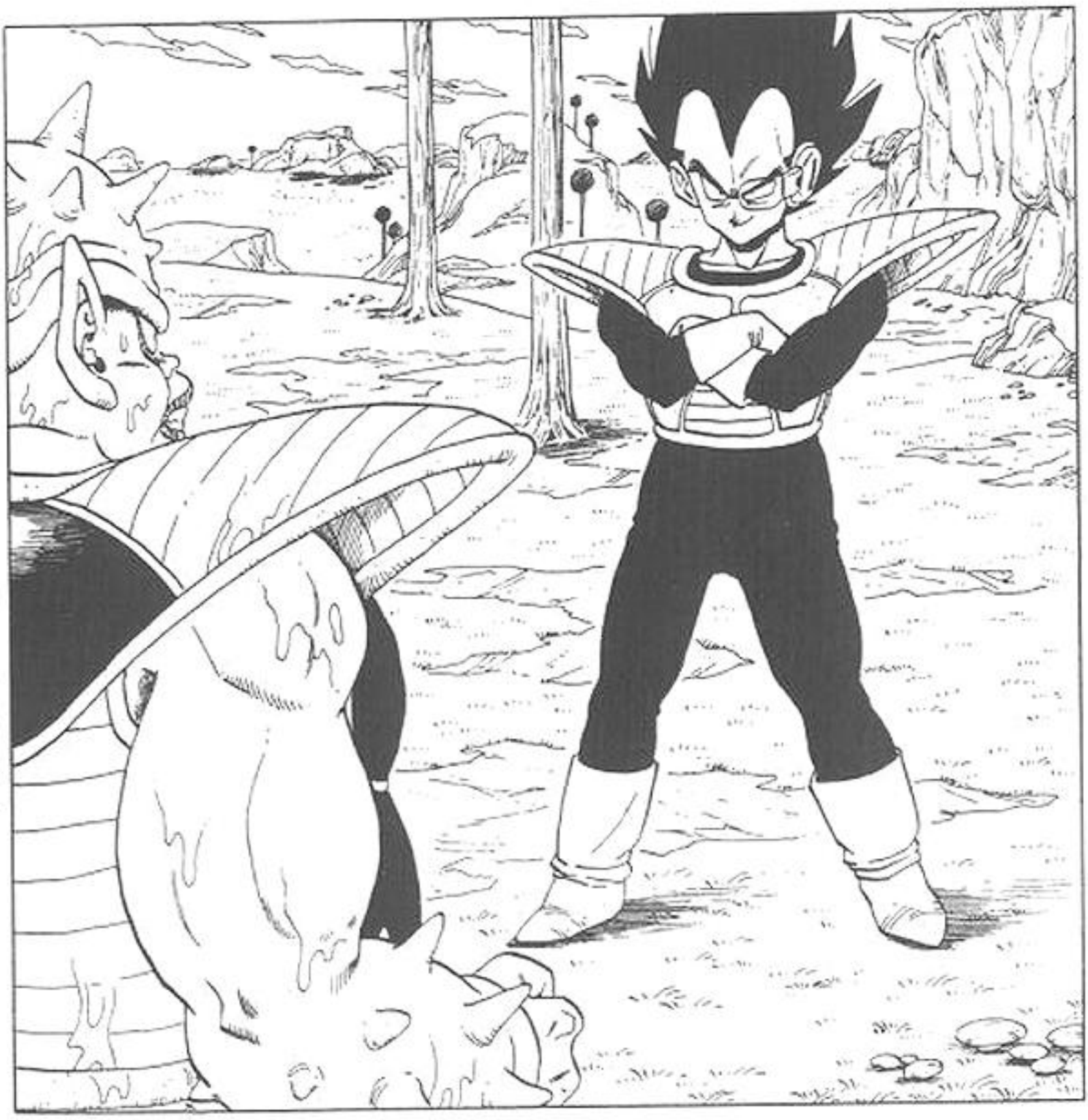
제256화 죽음을 부르는 추적자!!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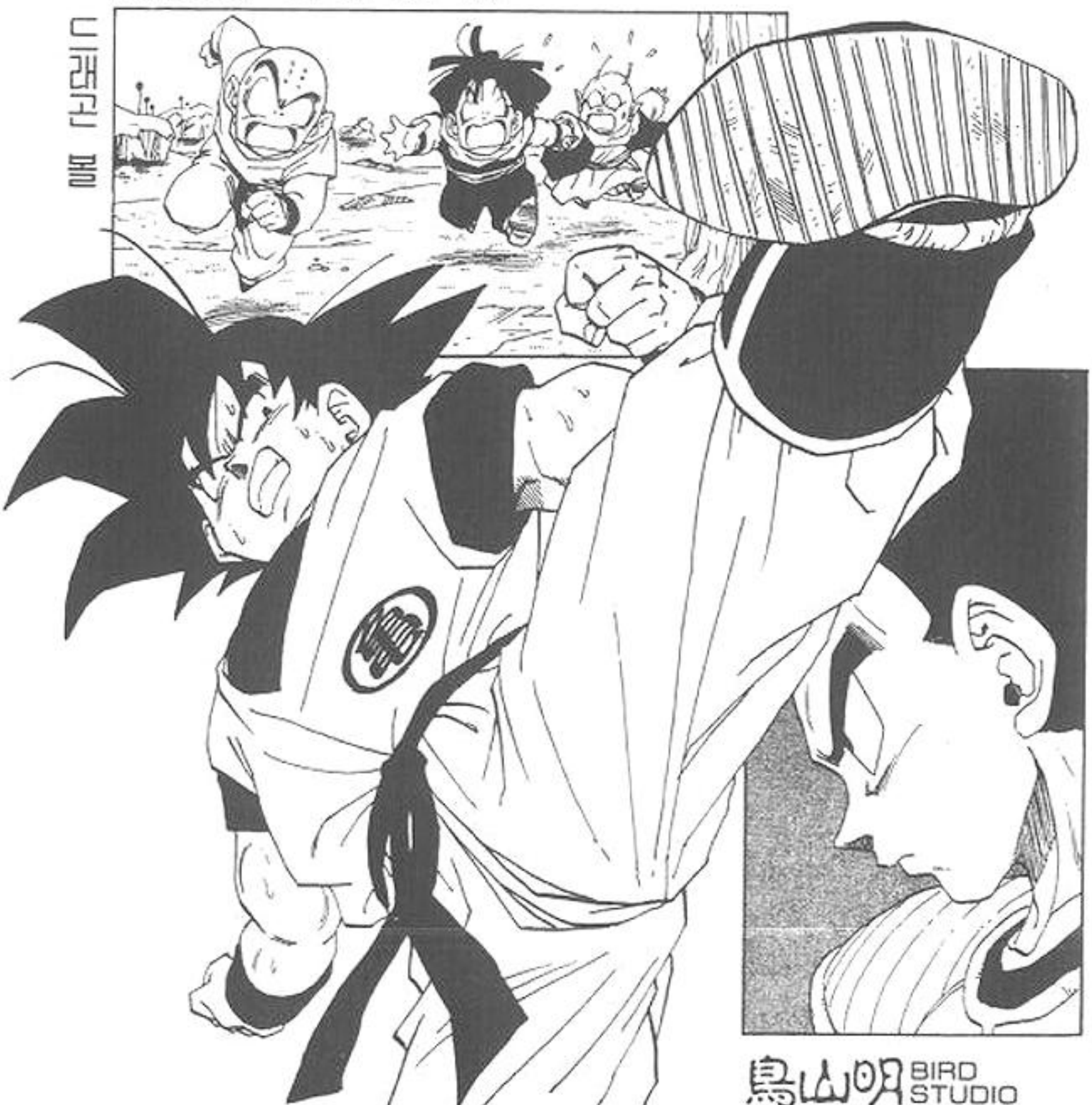
제257화 두려움에 떠는 도도리아



BIRD 鳥山明 STUDIO

DRAGON BALL

제258화 위험이 가득!!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259화
6개째의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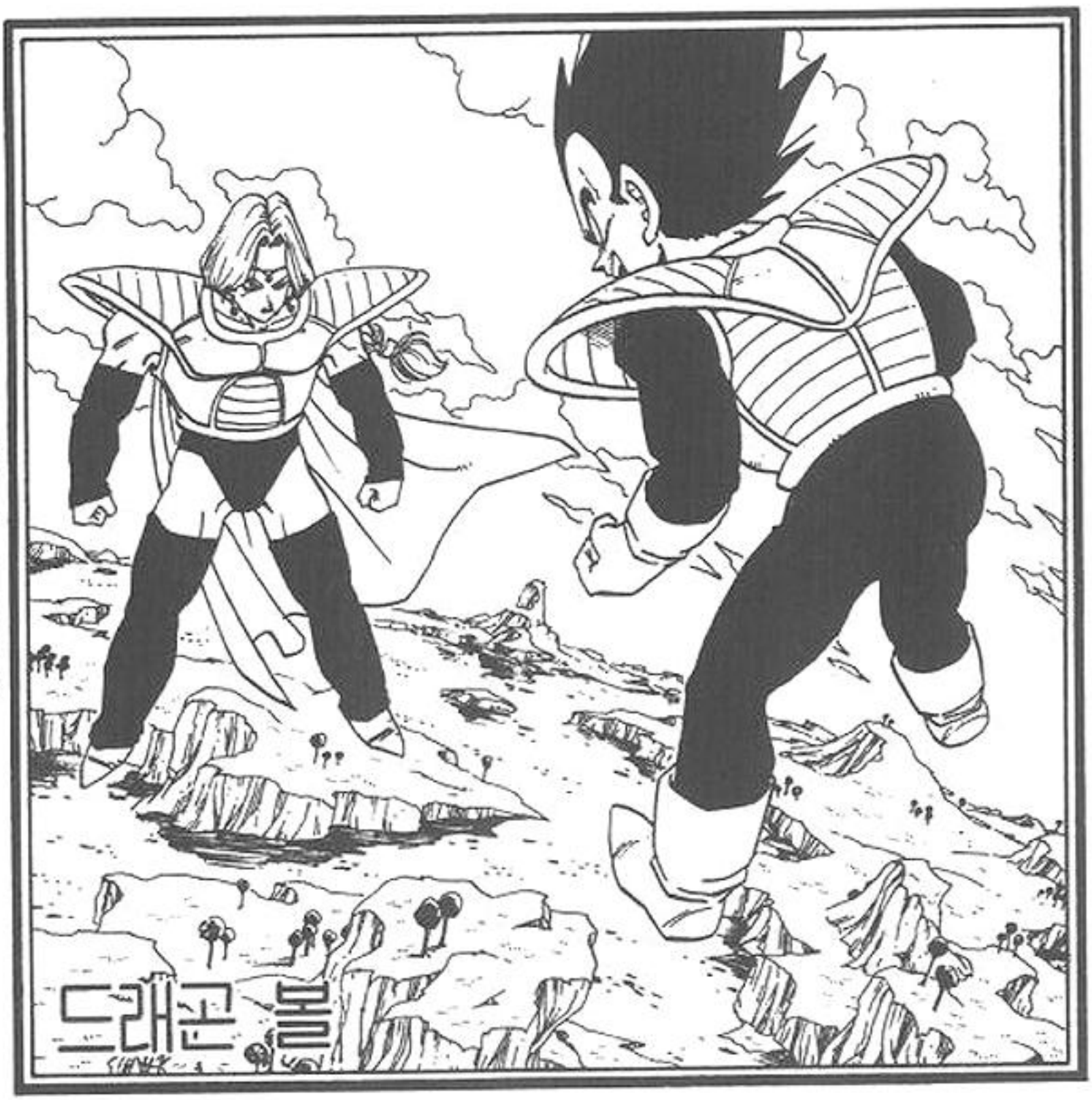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제260화 최후의 드래곤 볼 1개



DRAGON BALL

제261화 겁에 질린 계왕님



BIRD 鳥山明 STUDIO



鳥山明
BIRD STUDIO

제262화
베지터와 따봉

DRAGON BALL

DRAGON BALL

제263화 따봉이 숨겨진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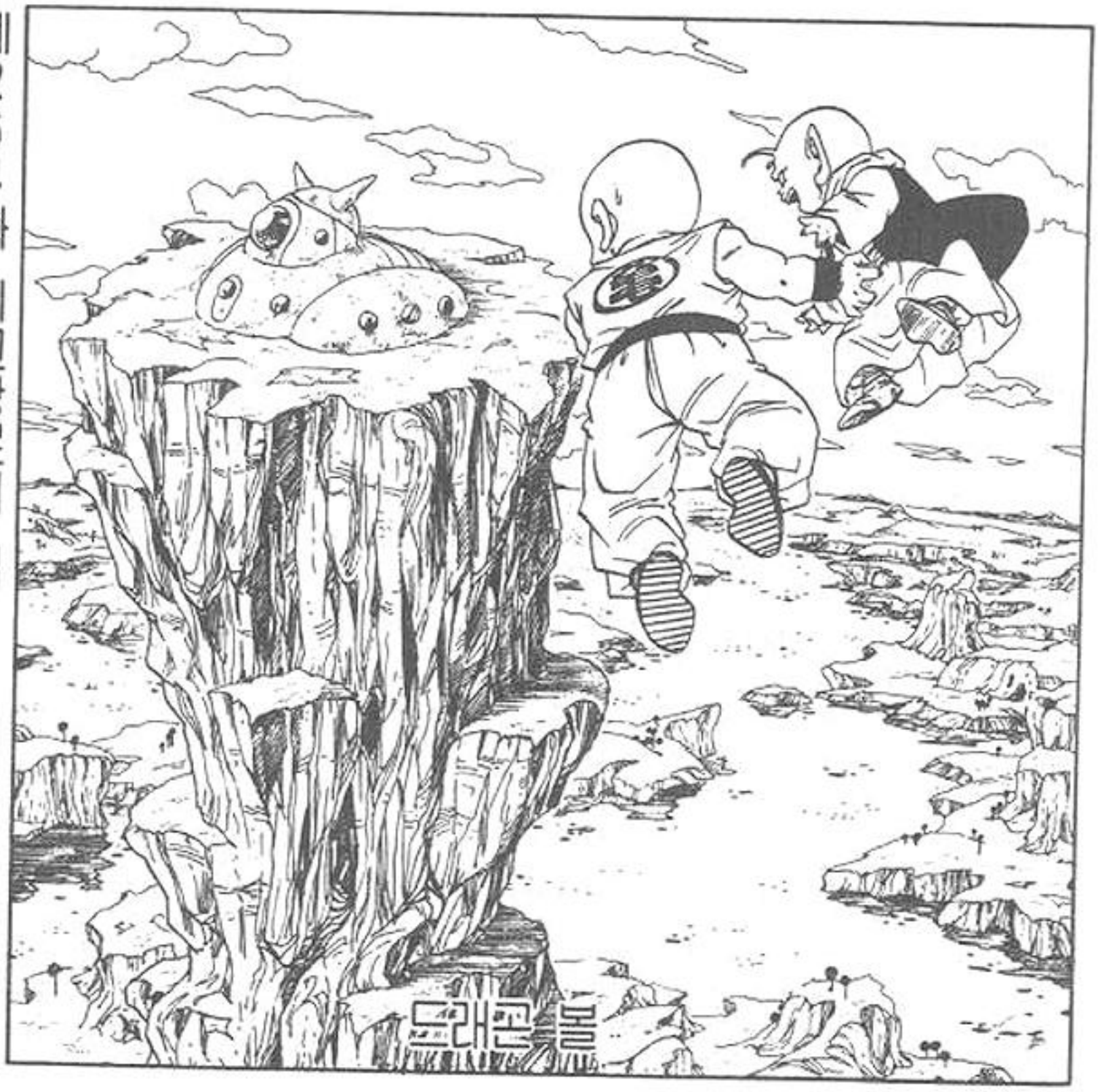


BIRD 鳥山明 STUDIO

DRAGON BALL

scanned by raprnb

제264화 최고장로의 집



BIRD 鳥山明 STUDIO